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조 영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창 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백 경 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contents

I . 서론 ● 0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방법	7
3. 연구 절차	8
4. 기대 효과	9

II. 여행 프로젝트 개발 배경 ● 11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14
2.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16
3. 지구/지역화와 지역정부 역할 확대	18

III.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 21

1.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23
1) 도입 과정 및 개념화	23
2) 사업 발굴 및 추진 체계	24
3) 여행 프로젝트 보완 및 개선	27

2.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개요	30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및 추진 체계도	30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30
(2) 여행 프로젝트 추진 체계: 성주류화 확산	31
2)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및 예산	32
(1) 돌보는 서울 (16개 사업)	33
(2) 일있는 서울 (12개 사업)	35
(3) 넉넉한 서울 (15개 사업)	36
(4) 안전한 서울 (9개 사업)	38
(5) 편리한 서울 (38개 사업)	39

IV.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 43

1. 「여행 동반자단」: 전문가 참여	46
1) 동반자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46
2) 여행 동반자 운영 실적	48
(1) 동반자 분과 총회	48
(2)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	51
(3) 온라인 전문가 자문	53
(4) 기타 활동 실적	55
3) 여행 동반자 의의와 과제	55
2.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 여성의 참여	57
1) 여행 프로슈머단 구성 및 운영	58
2)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59
3)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61
4) 프로슈머 조사의 의의와 과제	63
3. 자치구 여행 포럼단 구성 및 운영	64

V.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 67

1. 조사 목적 및 개요	69
2. 조사 결과 분석	71
1) 응답자 특성	71
2) 여행 프로젝트 전반 평가	74
(1)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74
(2)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75
(3)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77
(4)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78
(5)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79
3) 여성과 도시 공간	80
(1) 도시 공간	80
(2) 보행 및 통행권	84
(3) 교통	87
(4) 주거	90
(5) 건강 및 식품안전	93
4) 여행동반자 운영	95
(1) 여행동반자 인지도	95
(2)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96
(3)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모	97
(4)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중요도 평가)	98
(5)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99
5) 여행 프로슈머 활동	100
(1)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100
(2)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101
(3)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102

(4)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단위	103
(5)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104
6)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105
(1)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방안	105
(2)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105
(3) 영역별 제안 사항 및 사업	107
7) 소결	108

VI.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 111

1. 여행 사업 전반 발전방안	113
1) 대표 사업 발굴 및 확산	113
2)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 및 환류체계 개발	114
3) 여행 프로젝트관련 성인지 교육의 확대	114
4) 여행 프로젝트의 국내외 교류 강화	115
5)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 방안	117
2.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발전 방안	117
1) 도시공간	118
(1) 공공시설	118
(2) 공원	120
(3) 주차장	121
(4) 화장실	122
2) 보행 및 통행권	123
(1) 인도 및 보도	123
(2) 지하보도	124
(3) 횡단보도	125
3) 교통	126

(1) 지하철	126
(2) 버스	128
(3) 택시	129
4) 주거	130
(1) 주민자치센터	130
(2) 주거환경	131
(3) 놀이터	132
5) 건강 및 식품안전	133
(1) 정신건강	133
(2) 식품안전	134
3.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135
1) 전문가 참여 : 여행 동반자 단 운영 방안	137
(1) 참여 방식의 다원화	137
(2) 동반자단 구성의 유연화	139
(3) 동반자단 지원 체계 구축	140
2) 일반 여성 참여 : 여행 프로슈머단 활성화 방안	142
(1) 참여단위 및 참여방식 다양화	142
(2) 조사 분야 및 대상 확대	143
(3) 조사 도구(tool) 개발	146
4. 맺는 말	149

참고문헌 ● 151

〈부록〉

1. 런던 시 지역 여성 안전 조사 사례	157
2. 전문가 조사지	177

● 표 목차

표 1-1	여행 프로젝트 사업 점검 결과	6
표 3-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2007년도)	26
표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2008년도)	29
표 3-3	여행 프로젝트 연차별 투자수요	32
표 3-4	돌보는 서울 사업 및 예산	34
표 3-5	일있는 서울 사업 및 예산	36
표 3-6	넉넉한 서울 사업 및 예산	37
표 3-7	안전한 서울 사업 및 예산	39
표 3-8	편리한 서울 사업 및 예산	41
표 4-1	서울시 여행 동반자 분과별 구성 전문가 참여 현황(2007년)	47
표 4-2	여행 동반자 분과와 실국 연계체계	48
표 4-3	여행 동반자 분과위원회 자문 실적(2007)	49
표 4-4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 자문 실적(2008)	50
표 4-5	여행 동반자 소규모 자문회의 실적(2007)	51
표 4-6	여행 동반자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2008)	52
표 4-7	여행 동반자 온라인 자문 실적(2008)	55
표 4-8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전성 점검 체크리스트	60
표 4-9	공영주차장 안전성·편리성 체크리스트	62
표 4-10	강남구 여행 포럼단 구성 현황 및 역할	65
표 5-1	전문가 조사 개요	69
표 5-2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성	70
표 5-3	응답자 특성	74
표 5-4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75
표 5-5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76
표 5-6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77
표 5-7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78
표 5-8	여행 프로젝트의 전반적 평가	79

표 5-9	도시공간-공공시설	80
표 5-10	도시공간-공원	81
표 5-11	도시공간-주차장	82
표 5-12	도시공간-화장실	83
표 5-13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84
표 5-14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85
표 5-15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86
표 5-16	교통-지하철	87
표 5-17	교통-버스	88
표 5-18	교통-택시	89
표 5-19	주거-주민자치센터	90
표 5-20	주거-주거환경	91
표 5-21	주거공간-놀이터	92
표 5-22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93
표 5-23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94
표 5-24	여행동반자 인지도	95
표 5-25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96
표 5-26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97
표 5-27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98
표 5-28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99
표 5-29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100
표 5-30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101
표 5-31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102
표 5-32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103
표 5-33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104
표 5-34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방안	105
표 5-35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106
표 5-36	여행 프로젝트의 영역별 사업 제안	107
표 6-1	프로슈머 조사 제안 목록	144

● 그림 목차

〈그림 1-1〉 여행 발전방안 연구 절차	9
〈그림 3-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30
〈그림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체계도	31
〈그림 4-1〉 여행 프로슈머 운영흐름도	59
〈그림 5-1〉 성별 응답자 특성	71
〈그림 5-2〉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72
〈그림 5-3〉 소속별 응답자 특성	72
〈그림 5-4〉 분야별 응답자 특성	73
〈그림 5-5〉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75
〈그림 5-6〉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76
〈그림 5-7〉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77
〈그림 5-8〉 여행 프로젝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78
〈그림 5-9〉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79
〈그림 5-10〉 도시공간-공공시설	80
〈그림 5-11〉 도시공간-공원	81
〈그림 5-12〉 도시공간-주차장	82
〈그림 5-13〉 도시공간-화장실	83
〈그림 5-14〉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84
〈그림 5-15〉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85
〈그림 5-16〉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86
〈그림 5-17〉 교통-지하철	87
〈그림 5-18〉 교통-버스	88
〈그림 5-19〉 교통-택시	89
〈그림 5-20〉 주거-주민자치센터	90
〈그림 5-21〉 주거-주거환경	91
〈그림 5-22〉 주거공간-놀이터	92

〈그림 5-23〉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93
〈그림 5-24〉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94
〈그림 5-25〉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95
〈그림 5-26〉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96
〈그림 5-27〉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97
〈그림 5-28〉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98
〈그림 5-29〉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99
〈그림 5-30〉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100
〈그림 5-31〉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101
〈그림 5-32〉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방법	102
〈그림 5-33〉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103
〈그림 5-34〉 여행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104
〈그림 5-35〉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 방안	105
〈그림 6-1〉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147
〈그림 6-2〉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148

▣ 연구요약

I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 연구 목적

-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 확산 및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여행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여행 프로젝트 중간 점검 및 발전 방안 의견 수렴
- 여행 동반자 및 프로슈머단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로 젠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해외 선진도시 사례 수집을 통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의 요건 및 과제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해외 여성친화도시 정책사례 및 성인지적 도시 정책이론 문헌 연구
-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8. 12. 2 ~ 12. 10
-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회수현황 : 60명 중 50부 회수
- 조사대상 : 5개 영역별로 10~15명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여행동반자
- 조사내용 :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요건, 동반자와 프로슈머 활성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 해외 도시 방문 및 관련자 면접
 - 런던 개발청 여성정책팀, 비엔나시 관련 공무원 면접
 - 런던 시 코인스트리트(coinstreet) 지역사회 보육시설 방문
 - 런던 시 Women's Design Service 방문 및 면접

□ 기대 효과

- 여행 프로젝트 추진 상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
- 성인지적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 사업 요건 제시로 사업의 질 제고
-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인지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자료 수집 및 축적
- 서울시 여성 프로젝트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II 여행 프로젝트 개발 배경 및 의의

□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연령별, 혼인별, 계층별, 문화별 여성 차이에 따른 정책 대상 다변화 반영

□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 서울 시정 전반에서 여성의 경험 반영하여 성주류화 확산
- 여성부서와 전 실국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과 시와 자치구의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

□ 지구/지역화와 지역정부 역할 확대

- 지구/지역화와 분권화에 따른 지역 정부 역할 확대
- 지역 단위의 자체적 여성 정책 개발 및 추진 필요

III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 여행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07. 7~ 2010. 7(4개년)
사업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 도시환경 구축
사업영역	·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영역별 사업	· 돌보는 서울(16개), 일있는 서울(12개), 넉넉한 서울(15개), 안전한 서울(9개), 편리한 서울(38개)
연차별투자수요	· 512,700백만원(2007~2010)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각 실국 및 출연기관, 투자기관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서울시 여성정책부서는 총괄 및 조정

IV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 여행 동반자단 : 전문가 참여

구 분	내 용
인원	· 5개 분과 193명(2008)
구성	· 5개 분과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시의원, 서울시 인력기관 및 보육기관 대표
기능	· 실국 여행사업 자문 및 신규 과제 제안
활동내역	· 2007년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 · 2008년 분과회의 7회, 자문회의 58회 · 온라인 자문(1차 11개 시책, 2차 6개 시책 대상) · 자문안건 106건, 반영 49건
의의	·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 반영 · 대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자문회의, 온라인 자문으로 시정 참여
과제	· 운영 및 구성 다원화 · 동반자와 실국 협력체계 미흡 ·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이해도 낮고 자발적인 참여 부족

□ 여행 프로슈머단 : 일반 여성 참여

구 분	내 용
인원	· 일반 여성 40명
구성	· 20~30대 미혼여성, 30~40대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기능	· 지역사회 도시 공간 불편 사례 현장 조사
활동내역	· 서울시지하철 및 지하철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조사 ·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 실태조사
의의	·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 자료 제공 및 대안 제시 · 지역사회 사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과제	· 조사 영역 확대 및 환류 체계 확립 필요 · 사회적 약자 여성 등 구성 다원화 필요

V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 여행 프로젝트 전반

- 여행 프로젝트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 모델로서의 의미가 가장 큼
-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되고 있는 영역은 ‘편리한 서울’이며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
- 여행 하면 떠오르는 사업은 ‘여성 화장실 변기 수 증설’과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록’ 임
- 여행 프로젝트 사업선정 단계부터 여성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여성과 도시 공간

- 공공시설에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필요함
- 공원은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공간 조성 및 CCTV 설치 등 안전성 수요 높음
- 주차장은 CCTV 설치 및 사방 감시가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필요함

-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체계 마련 및 여성변기수 증설 수요 높음
- 인도와 보도는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및 유모차, 동반아동,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 확보 수요가 높음
- 지하보도는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왔음
- 횡단보도는 여성, 노인,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응답이 높게 나왔음.
- 지하철은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수요가 높음
- 버스는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 증편 수요 높음
- 택시는 여성전용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야간 안전성 확보 필요
- 주거지역은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제공과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 주는 공간 구성 수요가 높음
- 놀이터는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을 요구함
- 여성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 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이 높았음
- 식품안전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가 필요함

□ 여행 동반자 운영

- 여행 동반자 인지도는 60%이며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76%, 약간 중요하다 18.0%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여행 동반자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모는 5~10내외의 소규모 자문단임
- 여행 동반자는 서울시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전문성 발휘와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여행 프로슈머단 운영

-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도는 매우 중요하다 64%, 약간중요하다 24%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향후 프로슈머단 조사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공공시설,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 수요가 높았음
- 프로슈머단 조사 결과는 여성 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과 여성이 체감하는 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프로슈머의 활동단위로써는 구 단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동 단위임

VI 여행 프로젝트 발전 방안 제시

1. 여행 프로젝트 전반

□ 발전방안

- 여행 화장실, 여행 안심주차장, 여행 길 등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함
-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일반 시민 대상 체감도 평가를 실시함. 평가 결과는 반드시 해당 실국으로 보내어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사례 실천 경험 공유를 위해 국내 및 국외 교류를 강화함. 국외 교류를 위해 여행 사업에 대한 영역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여행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함. UN Habitat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함
-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행 사업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사업 발전방안

□ 도시 공간

➤ 공공시설

- 공공시설에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해 상시 운영하도록 함
- 공공시설은 교통시설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게 턱을 없애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 **공원**

-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야간 안전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고 가로등 개수 증대 및 비상벨 설치를 강화함
- 유모차 대여와 수유실 이용 서비스를 항시적으로 제공하고 여성 이용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주차장**

- 안전성 증대를 위한 조명개선, 근거리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자녀 및 노인 동반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함

➤ **화장실**

- 화장실 청결도를 높이는 클린 화장실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함
- 화장실 전반을 복합적인 여성 전용 공간으로 구성하여 기능성을 제고함

□ **보행 및 통행권**

➤ **인도 및 보도**

- 여성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유모차, 아동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지하보도**

- 지하보도의 존폐여부 결정을 위한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지하보도를 억제하고 우회로를 만들도록 함
- 야간 시간대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과 CCTV를 설치하고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소통 공간으로 재구조화 함

➤ **횡단보도**

- 신호등 횡단 시간을 조정하고 여성 친화적 난간을 설계함. 통행에 편리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보행 편의성을 증진함

□ 대중 교통

➤ 지하철

- 여성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철 역 설계 및 지하철 운영을 제도화함
- 여성 편의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철 내 여성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버스

- 여성의 이동이 많은 지역 내 단거리 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인지적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함

➤ 택시

-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전 화번호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함

□ 주거

➤ 주민자치센터

-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대어 하도록 함

➤ 주거환경

- 여성이 디자인하는 주거 환경 공모 및 날마다 배움터(근거리대체교육기관)를 운영함

➤ 놀이터

- 단지 내 중심에 차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놀이터 설치
- 놀이터의 창의적 공간 설계 및 전 연령대의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 운영

□ 건강 및 식품 안전

➤ 정신건강

-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운영함

- 우리동네 여행 마음치료 센터 운영함

➤ **식품안전**

- 음식물 검역체계 및 상시관리 체계 유지하여 원산지, 유통기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함
- 먹거리 인증제 실시 및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하는 먹거리 감시단을 운영함

3.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 여행 동반자단

- 동반자단 총회 및 분과총회, 이슈별 소그룹 전문가 자문, 온라인 자문, 현장방문, 서울시 위원회 참여, 신문기고, 여론조성 등 시정 참여 방식을 다원화 함
- 소규모 자문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함
- 동반자 자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 CF와 CF 매니저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실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모든 여행 사업에 대해서는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하고 동반자단 운영비를 분과별로 지원함

□ 여행 프로슈머단

-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 또는 생활권역별로 운영을 하되 일반 여성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이버 여행 프로슈머단을 운영함
- 여행 프로슈머단의 다양한 조사 활동을 위해 장애인, 이주자, 한부모 여성들로 구성된 프로슈머단을 구성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을 조사함
- 여행 프로슈머단의 조사를 화장실, 주차장, 지하보차도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가로등, 표시판과 안내도, 지역회관, 주거지역, 놀이터 등으로 확대함
- 여행 프로슈머단이 스스로 조사 안전을 정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도구(tool)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함

□ 제언

-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시정에의 정착은 시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 혹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남성 전문가, 일반 여성 시민들이 연대하여 협력할 때 가능함
- 연계와 협력이란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것임. 파트너십이란 이행 공유, 상호지원, 상호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각 참여집단은 자신들의 자원, 기술에 따라 기여하고 각 집단의 전문성,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과 시 정부가 소통과 연대를 할 때 여행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서울 여성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I

서론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시장 임기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하 여행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 정책과는 별도로 시정 전반에 도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지역 여성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책 추진 2년째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여성의 일자리 확보 및 돌봄 노동 경감, 여성의 문화권 및 여가 증진, 도시 생활 안전, 도시 시설 편의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도 7월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포럼을 통해 여행 프로젝트가 공표되었고 서울시의 전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시의 각 기관에서는 5개 분야 89개 사업을 제안하였고 각 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 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여행 프로젝트는 각 실·국별로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현재 90개 과제 13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도시 여성정책을 수립하였고 도시 공간 이용 및 도시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여성정책의 영역을 도시 공간 사용권(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정책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대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정부 독자적으로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여성 정책과 차별된다.

셋째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눈으로 도시를 보고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동반자 자문

단과 여행 프로슈머단의 운영은 도시 정책에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정책 참여를 정례화 함으로써 성 중립적인 도시 정책에 여성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은바 크다. 여행 프로젝트는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및 여타 광역지자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 여성정책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8년 UN 여성지위위원회 52차 총회 병행 행사 개최 및 제 10차 세계여성대회 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도시 여성정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초의 지역 독자적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08년 중반에 들면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행 프로젝트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에서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결과를 점검하였고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의 추진성과가 부진하며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사업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2008 서울시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여행 프로젝트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2007년 말 서울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시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행정, 한강공원, 여성, 도시생활 전반에 대한 시민조사에서 여성 분야 만족도가 14.5%로 가장 낮게 나왔다(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조사 시기가 여행 프로젝트 시행 초기인 2007년도 말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여성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여성과 관련한 안건들 중 안전, 취업·창업, 건강,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여가, 보육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안전 및 일자리,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영역의 사업들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8년 6월 서울시장은 여행 프로젝트를 민선 4기 정책의 정체성이자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다 내실 있게 정책을 수행할 것을 각 기관에게 요구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의 영역들 중 다수가 도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문화 등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부서의 성인지성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기존의 업무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행 프로젝트 추진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과정이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여성친화 도시정책으로서 적합한지,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사업 중에는 성인지성이 부족해서 여행 사업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업 중 노점상 관리, 저상버스 도입, 안전거울 설치, 버스 고급화 추진 사업들은 여성의 도시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행 프로젝트의 개념화가 불분명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행 프로젝트는 영역별로 예산이나 사업 수, 사업 내용들이 편중되어 있어 도시 전반에서 여성의 행복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영역의 도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행 사업 4개년 계획을 보면 편리한 서울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수도 28개로 가장 많아 영역 간 예산과 사업수의 불균형이 심하다. 편리한 서울 사업 중에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반 시책들이 많으며 사업이 유모차 대여, 수유실 확보, 여성화장실 개선 등에 편중되어 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5개영역 모두에서 골고루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적절한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평가담당관실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행복 제고를 위해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의 사업 개발과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셋째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효과성, 모집단 대비 사업 충분성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행 사업 중에 일회성, 저예산, 단기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여행 프로젝트 4개년 연동계획에 있는 여행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 중 여행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10%, 충분성이 부족한 사업이 37.3%, 정책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 15.5%로 나타났다(「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제안」 부시장 보고자료 2008. 10).

표 1-1 | 여행 프로젝트 사업 점검 결과

	돌보는 서울 (20개)	일있는 서울 (21개)	낙낙한 서울 (21개)	안전한 서울 (11개)	편리한 서울 (37개)	계 (110개)
적합성 부족	1	2	-	-	7	10 (9.0%)
충분성 부족	8	7	3	6	17	41 (37.3%)
효과성 부족	1	5	3	3	5	17 (15.5%)
계	10 (50%)	14 (66.7%)	6 (28.6%)	9 (81.8%)	29 (78.4%)	68 (61.8%)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행프로젝트 부시장 보고자료(2008. 10)

여행 프로젝트의 충분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도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 사업 등의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시정 전반에 성 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행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행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 부재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에 직면하자 200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행 프로젝트 132개 사업에 대한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으로 브랜드화 사업 5개, 리노베이션 사업 10개, 신규과제 7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각 실국으로 전달되어 사업에 반영하였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2008년 10월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에서는 ‘돌보는 서울’과 ‘일있는 서울’의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시설 어린이 집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안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인증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서울특별시, 2008). 향후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3040 주부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보육과 일자리 부문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도시 공간과 관련된 영역의 과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과 여행 동반자와 프로슈머단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한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의 문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여행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여행 프로젝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다.

넷째 조사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문헌들은 해외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례나 조사 사례, 성인지적 도시 정책이론 문헌, 그리고 2007년 중반 여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립한 이후의 각 실국에서 보고한 추진상황 보고서들이다. 관련 자료들은 수집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하여 참고 자료로 보고서에 실었다.

여행 프로젝트 분석을 위해 이외에도 기존의 조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관련되는 조사는 2007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시민만족도 조사」(서울시정보화기획단)이다. 2008년의 조사로는 「여행 프로슈머 조사: 지하철 화장실, 공공주차장, 지하보차도 조사」(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와 「여행 동반자 온라인 자문 조사」(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를 검토한다. 이 조사들은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여성을 대상으로 도시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와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분야별 정책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돌봄, 문화, 건강, 교통, 도시계획, 주택, 도로 등의 도시 생활 전 영역에 걸쳐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프로젝트 추진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제시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 별로 서면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여행 프로젝트 5개 영역별로 전문가 10~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지를 보내 응답지를 받았다. 최종 설문대상은 60명이며 회수는 50부를 하여 회수율은 83%였다. 조사 내용은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을 위한 주요 요건, 여행 동반자와 프로슈머의 활성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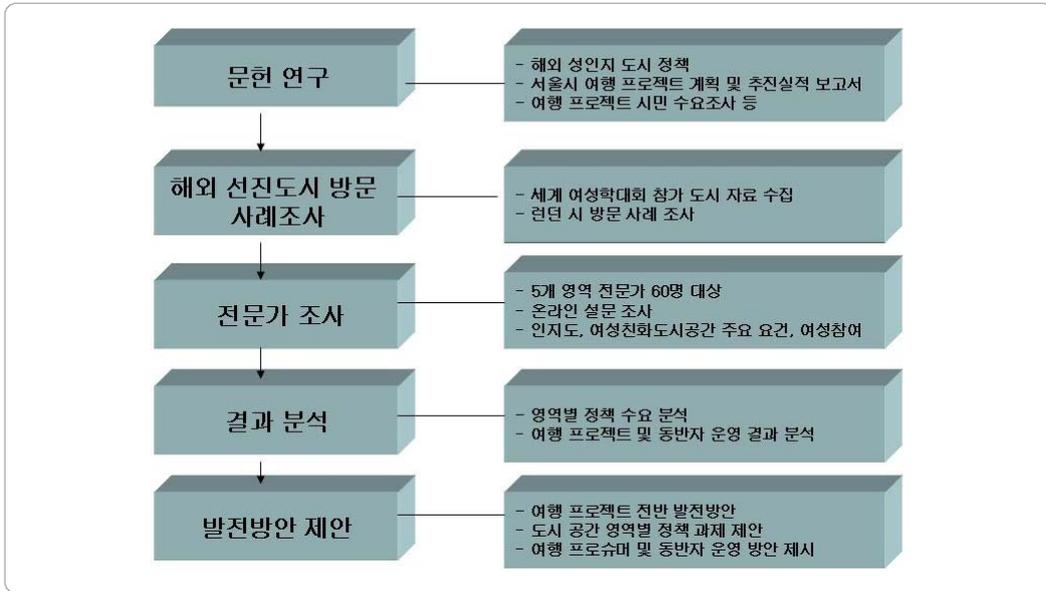
셋째는 해외 도시 정책 수범 사례지역을 조사 방문 및 관련자 면접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방문한 지역은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의 여성정책팀, 런던 시 코인스트리트(coinstreet) 지역사회 보육시설 방문, 런던 시 여성디자인서비스(Women's Design Service) 단체를 방문하여 공원 안전도 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방문조사는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해외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대회를 개최하므로써 비엔나 시의 성인지적 도시 정책 사례와 영국의 여성 친화적 주거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온라인이나 문서 형태의 해외 자료 수집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는데 유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여성 친화 도시 관련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하였고, 제 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2008년 7월 3일~7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서 독립 세션으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Tovi Fenster(지리학)교수와 영국 셰필드 대학의 Jenny Fortune(건축학), 비엔나 시 여성친화도시계획 국의 Eva Kail과 Elisabeth Irschik(건축학) 연자를 초청하여 여행 프로젝트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조사를 실시하여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영역별 발전방안, 여행 동반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여행 발전방안 연구 절차

4. 기대 효과

본 연구를 수행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여행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선 4기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 및 정착화에 기여한다.

둘째 성인지적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 사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여행 프로젝트 신규 과제 수립 및 사업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여행 프로젝트에 전문가와 일반 여성의 참여도를 활성화하여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성인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여행 프로젝트 추진과정 기술 및 이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 지역정부 여행 프로젝트의 역사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국제교류 확대에 기여하며 연구에 수록된 자료는 국제교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여행 프로젝트 개발배경

II 여행 프로젝트 개발배경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중앙 부처 주도 하에 성차별 극복, 평등이념을 여성정책의 주요 지향 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민선 4기 들면서 서울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자 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들을 담은 서울만의 고유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관심을 둔 영역은 도시계획, 도로, 교통, 문화, 공공시설 등의 분야로 이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여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 고용, 교육, 건강, 안전, 보육, 문화, 여가, 라이프스타일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평등 지향적 여성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건축, 도로, 환경, 문화 등의 영역으로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4기 창의 여성정책 브랜드인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 지향적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약칭 : 여행 프로젝트 2010)”으로 명명하였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이 장에서는 한국 여성 정책의 발전과정과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과 국가가 상호 개입하는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나 개념, 범주 역시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전환해야 하고 전환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여행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2000년대 이후 변화하는 서울시의 지구/지역화,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과정의 변화 등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정책이라 하면 ‘여성을 위한’ 정책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일차적 대상은 ‘요보호 여성’들이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정책은 모자세대 및 가출 여성,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되었고 노동 운동 중심의 진보적 여성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에 힘입어 여성정책은 노동, 가족,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성 차별이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여성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의 조기정년 철폐요구,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가족법 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성폭력 특별법(1994) 제정,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및 개정 되었고,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법이나 제도적 차원의 성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대표성 제고, 복지 및 인권 증진 등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형식적 성평등을 이루는 데는 기여를 하였지만 노동, 가족, 복지 등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일반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개발이 부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해 왔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일반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적 평등 혹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의 대상은 일부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책 수혜 대상의 측면에서도 일반 여성들은 여성정책의 수혜자로서 배제되어 있었다. 기존의 여성정책이 성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평등권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나 국가 단위로 정책 기본 틀이 수립되어 각 지자체나 대도시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웠고 여성들이 일상적 삶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들면서 한국의 여성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정책 대상의 다변화와 여성정책의 범위의 확대 그리고 여성정책 주체의 다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첫째로 여성정책의 대상이 소외 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연령별, 혼인여부별로 젊은 미혼의 여성, 아이를 키우는 여성, 중년기 여성, 노인 여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정책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과 장애 혹은 이주자로서의 이중적 주변화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특수한 위치성도 고려해서 정책 목표와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정책 대상의 다변화는 여성정책의 내용의 변화를 요구한다. 여성정책은 다양한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전반에 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정책의 이슈들이 각 여성들이 처한 삶의 문제로 이동해야 하고 정책 수립가는 각각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현장은 여성들의 일터,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주거 공간, 공공 시설, 대중교통, 공원, 대기 오염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셋째는 여성 정책 주체의 다중화와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이다. 여성정책 대상의 다변화, 정책 수요의 다변화는 최종적으로 여성 정책 주체의 다중화를 요구한다. 제도적, 형식적 여성정책에서 일상적 여성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양한 여성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성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도시 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여성의 이해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참여는 전문가로서, 단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개인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수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갖춘 도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취업률을 가진 도시, 최첨단의 과밀도 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진 역동적이고도 다중적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지점들에서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불편해 왔던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여성, 소외여성 외에도 미혼여성들, 젊은 주부들, 노인 여성들, 장애인 여성들, 이주자 여성들의 도시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

문가 여성으로 구성된 「여행 동반자 집단」과 일반 시민 여성으로 구성된 「여행 프로슈머 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 등을 조직하여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이자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민선 4기에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자 일반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는 배경이 된다.

2.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기존의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과정과 획기적으로 다른 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 과정은 중앙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향식 전달 구조를 유지해 왔다. 국가 단위로 정책의 기본 틀이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대도시에서는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예로 중앙정부는 5개년 단위로 국가단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1~2년에 걸친 연구용역 및 담당 부서의 준비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맞추어 세부 사업들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각 지자체에 보내고 이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중이고 이에 따라 서울 시도 자체 시행계획과 추진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국가단위의 여성 정책 과제들을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나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지자체 장의 임기 주기인 4개년 단위로 운영되어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 예로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2008~2012년간 시행되나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민선 4기에 맞추어 2007~2010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지자체에서 2007년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난 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 여성들이 여성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앙과 지역이라는 수직적 위계체제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중앙

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여성 정책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이나 관련 정책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 담당자들은 여성정책이란 여성정책 부서가 담당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통상, 환경, 보건, 문화, 교통, 주택 등의 정책에 여성의 이슈들을 포함하기 어려웠고, 이는 지방정부인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0년대부터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2개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성별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매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환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책의 성평등을 이루는 데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불평등한 예산분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이다.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제 도입을 앞두고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모형을 개발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이 실행되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역 정부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는 성주류화 제도가 시정 전반에 정착되지 않았고 정부 조직 내에서 여성정책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 여성정책에서 성주류화 전략은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동시에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 제시된 90개 기본사업 132개 단위사업은 대부분 여성정책 조직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이다. 여성 정책 조직은 여행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전 실국과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부 사업 중에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사업이나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 사업에도 여성의 관점이나 경험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점에서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가 새로운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였다.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은 공무원의 성인지성을 제고하였고, 공무원들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반영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성주류화가 여행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면 여행 프로젝트는 성주류화 전략을 더 확대시키는 의의가 있다.

3. 지구/지역화와 지역정부 역할 확대

서울시가 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 여성정책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은 서울이라는 지역이 전 지구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지역 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지구화 과정은 국가와 지역간의 경계를 허물고, 때로는 초국적 범위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범위도 중요하게 만든다. 전지구화의 과정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동일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전 지구화는 기존의 국가,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나 행정 체계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는 지구화 시대에는 국가 중심의 대량 생산 경제체제보다 로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가 경제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Purcell, 2002). 지구화 시대에는 로컬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이테크 기술 발전 및 도시 인프라 개선, 새로운 경제에 맞는 노동력을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시행하며 로컬 경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지구화를 통한 국가 간의 경계 허물기, 그리고 지역정부의 등장은 근대 국가에 기초하였던 시민권의 개념을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범위로 확대하기도 하고 지역 정부 혹은 도시로 이양하게 한다. 한 예로 새로운 형태의 초국적 시민권과 글로벌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는 EU 시민권을 들 수 있고 남아시아 연합, WTO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권의 범위가 축소되는데 글로벌 도시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하위 범주였던 지방, 지역, 구 단위로 시민권 범위가 작아지기도 한다. 이전의 시민권은 국적에 따라 부여되었다면 이제는 지방, 자치단체, 지역을 단위로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다. 시민권 범위의 재조정을 통해 새로운 로컬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이 도시 경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공간 설계 및 도시 공간 계획에 주 책임자로 참여하게 된다(Purcell, 2002).

지구화의 또 다른 한 과정이 분권화이다. 지구화는 국가 중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정부로 혹은 도시로 권력을 이양하게 된다. 국가가 더 이상 정치적 우선권을 갖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며 국가의 국민은 모두 동일한 정체성과 귀속성을 갖는 집단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도 국가 외의 다른 다양한 정치 공동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분권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독자적으로 로컬 정부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 특히 글로벌 도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과 별개로 지역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 지구/지역화는 지역정부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중앙정부도 지역 정부로 행정력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정부는 민주화와 분권화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구화에 따라 동일국가 내에서도 도시별로 지역별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차이가 많이 난다. 동시에 지역 분권화에 따라 지역 정부가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여성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은 지구/지역화와 분권화라는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세계성과 지역성, 다양성과 아울러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대도시로서의 서울은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지역 정부로서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도시라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은 국가에 기반한 보편적 시민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더중요하고 도시민으로서의 일상적 삶의 경험들에 의미를 두게 된다(Fenster, 2008). 도시민으로서 중요한 권리는 이전의 법적, 제도적 권리보다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외에 식품, 주거, 건강, 고용등과 같이 인간 생존에 기본적인 필요와 연관된다.

이러한 도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도시 생활에서 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여성에게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도시 정책, 여성정책은 아직까지 이러한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도시발전은 있었어도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적인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도시 발전과 도시 공간 사용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다.

여행 프로젝트는 바로 도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적 권리를 대두케 하는 글로벌 대도시로서의 서울의 특성과 연관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역정부로서 도시 여성의 도시 공간 사용 및 도시 생활에서의 여성 차별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여행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서울시라는 지역정부, 도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전반의 발전에서 여성의 이해를 받

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서울 여성은 글로벌 대도시라는 지역에 거주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서울시 여성들은 고학력화, 노령화, 계층 양극화, 가구 다양화, 결혼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확대라는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서울시 여행정책은 여성정책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 여성 정책인 여행 프로젝트는 첫째로 도시 여성의 삶의 특수성과 여성 내의 차이를 다룬다는 점, 둘째로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셋째로 여성 정책의 영역을 도시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III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III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개요

1.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1) 도입 과정 및 개념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민선 4기 초반부 「여성정책 추진계획 보고회」시 시장이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나아가 여성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2007. 1. 시장지시사항). 여행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은 “여행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하고 만든 것도 나고, 어떤 정책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민선 4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자 민선 4기의 정체성이다”(2008. 6. 시장지시사항)라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는 시장이 정책 구상에서부터 여행 프로젝트 시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데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시장 지시에 따라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 이전 정책과 차별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도시 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대상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로, 교통,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 6월 서울시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영역을 도시 공간에서 더 확대하여 일, 돌봄, 여가, 문화 등의 영역으로 넓히기로 하였다. 여성이 도시 생활에서 살기 편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편의성 증진 외에도 일자리, 보육, 복지, 여가, 삶의 질 향상 등의 다양한 측면이 개선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행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영역으로 결정되었다.

새로운 여성정책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논의가 많았다. 처음에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 도시라고 명명하였다. 당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한 살기 좋음(livability)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았으며 살기 좋음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그러나 ‘여성

이 살기 좋은 서울' 프로젝트를 줄여서 부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의 끝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로 결정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이 되면 궁극에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목표로 행복(happi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계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추구하던 평등(gender equality)개념과 행복 개념이 대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행복이라는 용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2007년 7월에 개최된 여행 프로젝트 포럼에서 시는 '평등을 넘어 행복으로'라는 주제를 내걸었는데 여성계는 아직도 성 평등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평등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행복 개념은 여행 프로젝트를 이성애 중산층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여성의 행복이란 기존의 이성애 관계 내에서 남성애에 의지하고 남성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들은 여행 프로젝트를 도시권(right to the city)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 생활에서 공간 이용의 권리와 도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에서 여성들의 불평등함과 성차별을 문제시하는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여행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평등 패러다임 연장선에 놓여, 평등의 영역을 도시공간의 사용권(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정책의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대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나아갔다(조영미, 2007).

2) 사업 발굴 및 추진 체계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조직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여성정책은 도시 공간 전반을 포함해야 하므로 여성정책 조직 내의 사업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사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범 서울시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다. 여성정책 부서는 기존의 여성정책 중 돌봄과 일의 영역에 신규로 시행하는 과제만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여성정책과 구분된다.

각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은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4개년 동안 추진할 목표들과 투입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2007년 「여행 프로젝트 2010 : 사업별 4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분기별로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었다. 2007년 4개년 계획에서는

5개 영역 89개 사업을 제시하였고 2010년까지 총 5,1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시 2007). 들보는 서울에 16개 사업, 일있는 서울에 12개 사업, 넉넉한 서울 16개 사업, 안전한 서울 9개 사업, 편리한 서울 37개 사업이 제시되었다. 2008년 4월 연동계획(안)은 1년 동안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기 및 추진 목표를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총 90개 사업 132개 단위사업으로 확대하였다(서울시 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2008년 연동계획」).

서울시의 여성정책 부서는 전체보고 회의를 개최하거나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등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하고 각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 중심으로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의 여행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정책부서는 시장단 및 전실국, 투자출연기관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각 해 연말에는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으로 실국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 단위를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로도 확산하였다. 자치구로의 확산은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여성들의 불편 요소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정책 목표에 적합한 바라 할 수 있다. 자치구 여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는 자치구에서도 여행 프로젝트 4개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자치구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데는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여행 프로젝트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여성정책 평가에는 기존의 여성정책보다 여행 프로젝트 평가 비중을 높여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계획 수립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구에서 여행 사업들이 자리 잡자 2008년 8월 자치구 시행 여행 사업들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자치구 여행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있는 분야'에서는 동작구, '안전한 서울'에서는 도봉구, 유방암 검진 우수사례로 서초구가 선정되었다. 자치구 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업들을 보면 시 단위 사업보다 규모는 작으나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이 높다.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여행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은 것도 긍정적이다.

표 3-1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 (2007년도)

일 자	안 건	주요 추진 내용
2007. 1. 18	시장지시사항 제 80호	- 여성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 해소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강구
2007. 2. 15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방침	- 도로, 공원 등 도시 공간적 측면의 사업추진 기본방향 설정 등
2007. 3. 26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부추진 계획 방침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별 추진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2007. 2. 13~ 2. 21	사업추진 T/F 구성 및 실무위원 등 자문 단 구성	- T/F는 공무원과 실무연구위원으로 자문단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2007. 2~4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7회)	- 사업기본방향의 적정성 등 자문, 효과적 추진 방안 논의 등
2007. 3~4월	생활 속 불편사례 조사 실시	- 시 홈페이지 조사코너 운영 - 시장-디카 모니터 활용 시민 여론조사
2007. 4. 12	프로젝트(안) 검토	- 전문가 자문
2007. 4. 17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방침	- 도시공간을 포함한 시장전반에 걸친 사업 발굴·추진 및 범 서울 시적 추진체계 확립 등
2007. 5. 4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 1차 보고회 개최
2007. 5. 15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명칭 결정	- 약칭 여행(女幸) 프로젝트 명칭 결정
2007. 6. 14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초안) 보고회	- 각 실국별로 4개년 계획 보고 - 돌보는, 일있는, 넉넉한, 안전한, 편리한 영역 87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
2007. 7. 10	여행 프로젝트 정책포럼 개최	- 학계 및 대 시민 여행 프로젝트 소개
2007. 7월~11월	여행 프로젝트 저변 확대	- 테마 사업(9개) 추진
2007. 7. 19	4개년 계획 확정 및 홍보	- 여행 프로젝트 2010 확정 및 기자 설명회 개최
2007. 7.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 홍보	- Paran, Daum 홈 페이지의 서울시 사이트에 추진배경 및 사업 소개, 서울시내 전광판 표출 홍보
2007. 8	여행 프로젝트 홍보	- 이미지(심볼 및 로고타입) 선정 - 홍보영상물(여성이 행복한도시, 서울)제작 여행 프로젝트의 배경과 취지, 사례 등으로 구성
2007. 7~8	여행 프로젝트 수요조사	- 여행 프로젝트 아이디어 조사 - 전문가 조사, 일반여성 FGI
2007. 8. 29	국제심포지엄 참가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발표
2007. 10. 9	여행 프로젝트 추진실적 보고회	- 시장단 및 전 실국 대표 참석 - 3개월간 추진성과 보고
2007. 10. 12	여행 동반자 발족식 개최	- 여행 동반자 5개 분과 187명 구성
2007. 11	여행 동반자 분과위원회 개최	- 5개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선출
2007. 11	여행 이론적 체계화 발표	- 여성정책으로서의 여행 프로젝트 이론화 - 도시권을 중심으로 학회 발표
2007. 12. 27	07년 결산 여행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및 추진 실적 보고회 개최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등 7개 분야 우수 사례 시상
2007. 12. 31	여행 매뉴얼 발간	- 여행 프로젝트 소개 및 여행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발간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2007-2008)

3) 여행 프로젝트 보완 및 개선

2008년 여행 프로젝트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은 유지하되 예산 편성 결과 및 사회 행정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15일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08년도 연동계획은 2010 년도까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2008년도 연동계획에서는 예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분야별 추진 시책을 재검토하고 정책 목표를 보완 조정하도록 하였다.

2008년 연동계획(안)은 5개 분야 90개 사업 13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동계획은 2007년도 4개년 계획에 비해 신규 사업이 10건 늘어났고 9건의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되었다. 사업 건수나 사업 내용에는 이전의 4개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신규로 늘어난 사업은 보육 도우미 운영(돌보는 서울),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 강화, 여성직원 확대 채용(일있는 서울), 여성자원봉사 리더 양성(넉넉한 서울), 무장애 1등급 도시 만들기 시범 추진(안전한 서울), 여성이 편리한 지하철 정거장 디자인 개선,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 여행 프로젝트 확산 지원, 서울의 여행 명소, 폐경기 여성 건강프로젝트(편리한 서울) 10개 사업이다.

사업이 통합된 경우는 보육시설 보조교사 자원봉사단 운영(보육도우미 도입으로 자원봉사 수요 상실), 안전하고 편리한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노동부로 이관), 여성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중복사업), 고객보호를 위한 통신 판매 감시단 운영(공모사업으로 1회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설치기준보완(여성친화도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과 통합),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입법 활성화 및 정비 추진(주차장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해당 과에서 추진 중으로 폐지), 객실의자 난방구조 개선(시범운영결과 개선효과 미흡으로 폐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연구(여행 프로젝트 확산지원 사업으로 통합), 서울 여성교육 정보포털 서비스(여성능력개발원 기능으로 분리) 등 9개 사업이다(2008, 4.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4분기(7. 15)에 여행 프로젝트 90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집하여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내용은 2/4분기까지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도, 질적 관리 실태, 대시민 홍보활동, 시민만족도, 여행동반자 활용 실적 등을 집중 확인하고 점검하여 개선 혹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검토결과 총 132개 단위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개 (2.3%)이고, 88개 사업(66.7%)은 정상추진 중이며, 지연우려 사업은 33개(25%), 시기 미도래 사업은 6개(4.5%), 취소 보류된 사업은 2개(1.5%)이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지연우려 사업

들은 영유아 플라자 설치, 동 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사업, 대규모 화장실 관리·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 사업들은 여행 사업의 대표사업이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연은 여행 프로젝트 추진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각 사업별로 시정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상 문제를 파악하였다. 유모차 대여 서비스 운영 조사 결과 일부 공원에서는 유모차를 신상품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두거나, 유모차 대여를 주말만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안내판이 부족하였으며 대여실이 공원 입구와 주차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물 2, 3층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모유 수유실 사업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공간 부족으로 70% 이상이 여직원 휴게실이나 탈의실, 역장실과 겸용하고 있고 안내판 등의 이정표가 부족하여 찾기가 어려우며 일부 수유실의 경우 수유 소파와 기저귀 교환대 등의 수유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파악되었다(2008, 7.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존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것과 질적 관리를 통한 사업의 체감도 증가,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적극적인 사업 발굴 제시, 홍보자세를 전환할 것을 각 실국에 요청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의 보고서가 여행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은 여행 사업의 다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08).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여행 프로젝트가 각 영역별로 추진목표나 사업영역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영역에만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계획 대비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여행 사업의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을 점검(monitoring) 하였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중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여행 브랜드로 사업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브랜드화 사업」으로 여행 화장실, 여행 안심 주차장 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성친화적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여행 브랜드 화장실과 주차장으로 인증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 브랜드 사업에는 영유아 플라자 설치, '행복창업주식회사' 구축, 여행 공공문화시설 편의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제안한 사업은 「리노베이션 사업」이다. 기존의 여행 사업들 중 취지는 좋으나 적절한 규모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보다 개선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리노베이션 사업은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 버스, 창동극장 활용-예술과 함께 하는 브런치 콘서트 등 10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여행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과제」 제안이다. 각 실국에서 여행 프로젝트로 추가 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우리 동네 아이지킴이(해피 시니어 활동), 행복한 여성가게 운영, 여성의 섬 선유도, 여행 WISE(Women's Initiative for Safer Environment), 여행길,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책방, 여성문화예술센터 설립 등 7개 과제이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제안된 과제들을 각 실국으로 보내어 관련 기관에서 신규과제로 채택할 사업들과 개선 과제로 선정할 사업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 경과(2008년도)

일 자	안 건	주 요 추 진 내 용
2008. 1~2월	여행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조사 결과 제공 및 여행 매뉴얼 설명회	-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2008. 1~3월	여행 동반자 실국별 분과회의 간담회	- 5개 분과별로 동반자 위원, 관련 실국담당자 전체회의 개최
2008. 2	UN CSW 총회 발표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보고 - 여행 프로젝트 국제 홍보
2008. 3	여행 프로슈머 운영 및 1차 조사	- 여성 시민고객들이 지하철 역 및 지하도 상가 317개소 현장을 찾아가서 여성들만의 Needs를 발굴, 시정에 반영 및 환류 - 비상벨, CCTV 설치, 조도 향상 등 개선
2008. 4. 15	여행 프로젝트 추진실적 보고회 및 08년 연동계획 수립	- 각 실국 별 추진성과 보고 - 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추가 등
2008. 5. 29	여행 컨퍼런스 개최	- 유방암 없는 서울,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 프로젝트 중 여성 건강 분야 추진 활성화
2008. 5~6	여행 프로슈머 2차 조사	-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조사(총 255개소)
2008. 7. 6	여행 프로젝트 국제 포럼 개최	- 제 10차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스페인 마드리드)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세션 개최
2008. 7. 15	여행 프로젝트 2/4분기 보고회 개최	- 여행 프로젝트 추진상황 평가 결과
2008. 8. 18	자치구 여행 프로젝트 경진대회	- 우수 자치구 사업 선정 및 발표(3개 사업) 동작구(일), 도봉구(안전), 서초구(유방암)
2008. 8. 31	자치구 여행 포럼단 발족	- 25개 자치구 단위 여행 포럼단 구성(각 50명) - 포럼단 위촉 및 발대식
2008. 8~9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 및 개선 방안 제안	- 90개 과제 점검 및 여행 프로젝트 적격성 평가 - 신규과제(7개) 및 브랜드화(5개), 리노베이션(10개) 제안
2008. 9	여행 CF Manager 및 여행 CF단 구성	- 실국별 여행 프로젝트 사업관리 및 여행 동반자와의 접점자 역할 수행
2008. 9	여행 동반자 소수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사안별로 전문분야 동반자 참여 활성화 및 집중적 자문을 위해 구성 - 여성복지(8), 도시경쟁력(7), 주택건축(9), 도로 교통 (5), 환경(6)
2008. 9. 18	도시환경개선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전역의 화장실, 여성편의시설, 버스정류장, 보도블럭, 주차장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및 가이드 라인 제시
2008. 10. 22	세계여성포럼 여행 프로젝트 세션 참가	- 세계여성포럼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발표
2008. 10~11	여행 동반자 서면 자문 실시	- 1차 자문: 시정 주요 과제 11개 과제 - 2차 자문: 시정 주요 과제 6개 과제 - 자문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및 반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 자문대상: 5개 분과별 여행 동반자 대상
2008. 11	각 실국별 신규과제 및 개선 방안 제시	- 여행 프로젝트 신규과제 제안 사업 중 관련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 제안
2008. 12	여행 동반자 보고대회 개최	- 여행 동반자 및 각 실국 본부장, 출연기관장 - 여행 동반자 경과 보고 - 우수 자문 사례 보고 - 여행 동반자 향후 운영 방안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2007-2008)

2.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개요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및 추진 체계도

(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서울시 민선 4기(2007~2010)가 출범하면서 기획된 여행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보도, 공원, 문화시설, 쇼핑시설 등의 공간 이용에서 국가 단위 여성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도시 여성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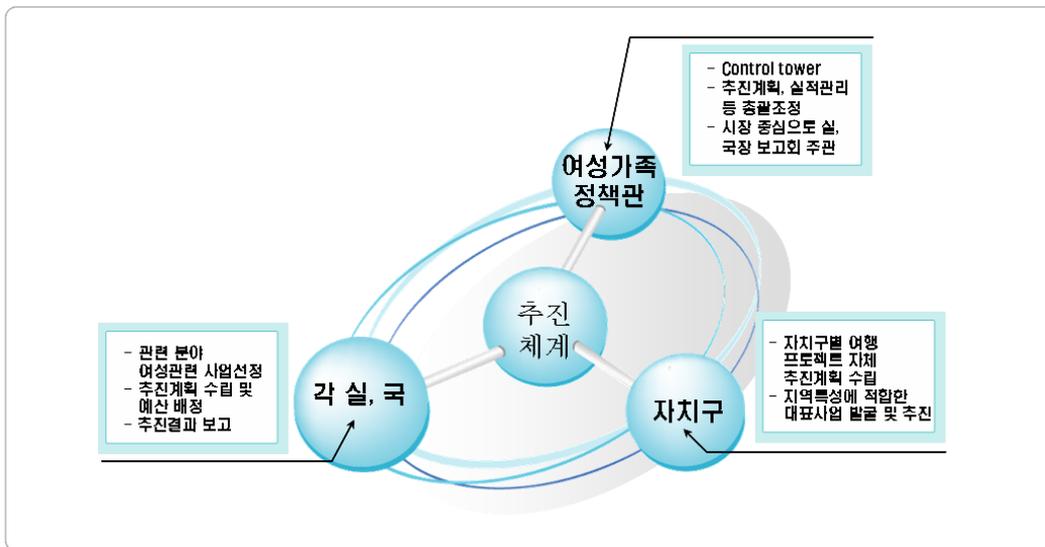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일/가족 양립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영역으로 구성되며 핵심전략은 도시 생활 전반으로 여성정책 지평 확대, 설계부터 사전적, 예방적 접근, 범 서울시정 의 성인지 체계 구축이다.



〈그림 3-1〉 여행 프로젝트 개념도

(2) 여행 프로젝트 추진 체계: 성주류화 확산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추진 계획과 실적 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실제 사업 발굴과 시행은 서울시 36개 실국과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전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전담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국한하였고 비 여성부서의 업무에 성별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전담부서가 control tower가 되고 각 실국이 관련 분야 중에서 성인지적 관점 통합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 단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여행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행 프로젝트는 서울시정 전반에 수평적 성 주류화와 자치구로의 수직적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다.



〈그림 3-2〉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추진체계도

여행 프로젝트는 각 실, 국에서 4개년 간 시행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수행된다. 이외에도 여행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 시장은 비 여성부서에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각 실국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4회씩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추진상황, 추진 상 문제점, 개선대책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 체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전 부서에 확산되고 정책 수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매년 올해의 여행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 매년

4/4분기까지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5개영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연말 보고회 때 사례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한다.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비 여성부서의 참여가 미흡하고 성별이슈 제기에 대한 반감이 컸으나 여행 프로젝트는 시장의 독려와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각 부서의 참여도가 높다.

2)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 및 예산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2007년 5개 분야 8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 프로젝트의 규모와 사업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입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각 실국의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예산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5,2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역별로는 돌보는 영역 15.4%, 일있는 영역 5.7%, 넉넉한 서울 5.6%, 안전한 서울 6.3%, 편리한 서울 70.0%로 영역 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 돌보는 영역에서는 보육시설 건립으로, 편리한 서울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설비용으로 인해 이 부분의 예산 비중이 높다. 연차별로 보면 2007년 9.3%, 2008년 19.6%, 2009년 28.2%, 2010년 42.9%로 프로젝트 초기 2년은 예산 투자 비중도 낮고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여행 프로젝트 4개년 투입 예산이 5,218억원이라고 한다면 여성정책으로서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편리한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편리한 영역의 사업의 많은 부분이 여행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기존에 법으로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은 문제가 된다.

표 3-3 여행 프로젝트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백만원, %)

분야	계	2007	2008	2009	2010
계	512,788 (100.0)	47,278 (9.3)	100,587 (19.6)	144,714 (28.2)	220,209 (42.9)
돌보는 서울	79,102 (15.4)	10,159	19,051	24,411	25,481
일있는 서울	29,232 (5.7)	3,076	7,733	8,952	9,471
넉넉한 서울	28,734 (5.6)	4,092	86,868	8,528	9,246
안전한 서울	32,346 (6.3)	3,912	8,104	9,963	10,367
편리한 서울	343,374 (70.0)	26,039	58,831	92,860	165,644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2007)

(1) 돌보는 서울 (16개 사업)

돌보는 서울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영역에서는 그간 여성에게 전담된 보육과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외에 노인, 한 부모,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을 구현한다.

주요사업은 공공보육 시설 확충, 자녀 양육을 위한 토털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이용아동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있다. 서울시는 공공 보육 시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신축 혹은 폐지되는 동 청사를 활용하거나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서울시에 공공 보육 시설 21개소를 확충하였다. 돌보는 서울에는 문화시설, 지하철 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여성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는 노인과 노숙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시행', '여성 노숙인을 위한 재활전문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다.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한부모 가족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다.

돌보는 서울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예산을 늘려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도우미 사업이나 영유아 플라자 설치 사업도 좀 더 예산을 늘리고 동마다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 돌보는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보육	영유아 플라자 설치	37,526	4,883	297	1,456	1,530	1,600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2,731	-	761	960	1,010	
	동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15,525	2,441	2,974	5,352	4,758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① 서울신청사		건축비에 포함					문화국 시립미술관, 서울메트로,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경쟁력강화본부 투자유치담당관, 주택국 신청사건립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산업통상진흥원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② 지하철 주요 거점역사		민자유치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③ 지하철역(수유실)		13	13	-	-	-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④ 서울의료원		175	-	15	10	150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⑤ 시립미술관		100	-	100	-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강화		7,216	456	1,560	2,600	2,6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 발달 검사		10	-	2	4	4	경쟁력강화본부경쟁력정책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530	270	360	450	450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대책담당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5,246	323	1,407	1,758	1,758	
	소외된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 기회제공		97	23	23	25	26	
사회적 약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32,330	924	294	210	210	210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대책담당관
	여성 재활전문쉼터 설치·운영		948	128	256	278	286	복지국 자활지원과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시행		22,496	4,096	5,055	6,066	7,279	복지국 노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홈헬퍼) 사업시행		2,700	600	600	700	8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		5,262	1,315	1,463	1,242	1,242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7,344	1,320	-	1,320	’08성과 분석후 검토	좌동	경영기획실 교육사업담당관
	보육도우미 운영(신규)		6,024	-	1,653	2,153	2,218	보육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2) 일있는 서울 (12개 사업)

일있는 서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들이 원하는 적절한(decent) 일자리의 창출, 일/가족 양립의 지원, 성평등한 직장 문화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일있는 서울을 통해 서울시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서 보다 평등하게 일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6년 51.9%로 주요 선진국 보다 낮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강화, 취업 지원,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인 창업 교육 지원하는 맘프러너 창업 스쿨 사업, 여성창업지원, 구인, 구직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여성 직업교육 확대, 여성 직업교육 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한다.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61.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을 원활히 하고 육아휴직 급여 외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였는데 2006년 시범기간 2개월 동안 31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 5개월 간 125명이 참여하였다. 시범 운영 기관도 2006년 1국 1사업소에서 2006년 4국 2사업소로 확대되었다. 이용자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이용 사유는 육아와 간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율이 낮고 일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있는 서울의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도 지극히 낮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3-5 일있는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일자리	맘프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14,975	1,355.3	26.8	425.2	441.5	461.8	산업통상진흥원
	여성직업훈련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200	-	-	100	100	경쟁력강화본부
	실버케어여성직업교육훈련 실시		420	51	123	123	123	경쟁력강화본부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확대		2,800	378	722	800	9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 일자리갯기 지원 프로젝트 개선		10,200	2,400	2,400	2,600	2,800	여성가족정책관
	유관기관 연계 창업 지원 강화(신규)		비예산	-	-	-	-	신용보증재단
근무 환경 개선 등	모자가정을 위한 세계개선 추진	14,257	비예산	-	-	-	-	재무국
	여성 경제인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비예산	-	-	-	-	재무국
	여성 민간위탁검침용역여성종사원확대		비예산(위탁업체에서 지급)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아리수품질확인제수질검사원여성 확대 위주채용		9,648	-	2,646	3,402	3,600	
	채용 아리수홍보단관리를위한여성고용		549	-	137	206	206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	-	-	-	-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4,060	-	1,280	1,280	1,280	행정국
	공무원 탄력근무제 전면 실시		비예산	-	-	-	-	행정국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3) 넉넉한 서울 (15개 사업)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경제활동 참여, 일상생활 패턴, 문화 향수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문화와 관련한 시간 및 비용 지출에서 성차가 있다. 서울시 여성들은 문화 예술 공연 관람비용은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은 남성이 더 높다. 문화, 여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이 문화 창조는 물론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넉넉한 서울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 시설을 여성친화적 시설로 만드는 것과 여성을 위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건립, 여성을 위한 문화 강좌 개설 등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문예회관, 시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여성 화장실을 증축하고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시설을 설치한다. 여성들을 위해 소규모 실내 체육 시설을 지역사회 내에 확충하는 사업도 돋보인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에서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들의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성과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가족 영상축제를 지원하고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예술과 함께하는 브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목을 30% 할당한다. 여성 중심 웹 가이드를 마련하고 여성관련 포털의 콘텐츠 평가, 맞춤형 여성 정보방 홈페이지 구축(여성과 관련된 복지, 교육, 취업, 문화행사, 보육정보 등을 통합, 연계하여 여성종합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넉넉한 서울에서는 여성을 문화 향수권자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설개선이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성 문화 생산을 위한 여성 예술가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여성문화예술 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표 3-6 넉넉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시설 개선	문화시설 등 여성편의시설 개선	6,778	6	2	4	-	-	문화국 문화예술과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11.95	7.2	4.75	-	-	청계천문화관
	여성을 위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6,500	-	1,300	2,600	2,600	문화국 체육진흥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 조사		260	35	72	75	78	문화국 문화예술과
	여성 친화적인 문화예술 공연시설 건립		-	건립 예산 포함	-	-	-	주택국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
프로그램 운영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지원	22,099	800	200	200	200	2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 담당관
	생활체육사 배치 운영		14,742	3,116	3,560	3,882	4,184	문화국 체육진흥과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음악회		3,454	58	1,029	1,032	1,335	서울시립교향악단
	여성친화적 강좌 등 개설		839	111	223.5	245.5	259	세조문화회관,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국
	인터넷 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제작운영		58	19	15	12	12	정보화기획담당관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운영		540	-	150	180	210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실시		855	150	218	225	277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정책 담당관
	잠실종합운동장 여성생활강좌 개설		302	2	100	100	100	문화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 운영		200	20	40	60	80	서울문화재단
	창동극장 활용 - 예술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140	20	40	40	40	서울문화재단
	여성자원봉사 리더 양성(신규)		169	-	49	60	6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4) 안전한 서울 (9개 사업)

안전한 서울은 도시의 위협,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시의 밤길 안전도를 제고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을 구현하며 도시에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점점 증대되고 있는 도시 오염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안전한 서울에서는 여성 친화적 뉴타운(재건축, 재개발) 건설 사업이 돋보인다. 주거단지 조성 시 단순한 주거공간의 확보 위주에서 안전위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CPTED) 설계를 하여 여성 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광장, 도로 설계 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경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하 보차도를 여성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다. 여성을 위해 안심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여 필요시 여성 운전자 택시를 보내주고 운행 정보를 가족에게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응급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안전한 서울 분야는 2008년 여행 프로슈머 조사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지하철 및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의 안전도 조사(2008년 4월), 공용주차장 및 지하보도(2008년 6월), 서울시 전 화장실 및 여성편의시설 대상 안전성 편의성 조사(2008년 10월), 안심 콜택시(2008년 11월)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도 향상, 안전벨 설치,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안전하게 다니는 지하보차도 공사가 여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하 보차도 보수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보차도는 점차 폐쇄하는 추세이라는 점과 지하 보차도 보수 계획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행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표 3-7 안전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시설 개선	여성 친화적 뉴타운 건설		비예산	-	-	-	-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시행		비예산	-	-	-	-	푸른도시국 조경과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지하보차도 관리		14,433	3,900	2,533	3,000	5,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기타	민방위교육장 활용 여성 생활안전체험 교실 운영		64	12	15	17	20	비상기획국 민방위담당관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		비예산	-	-	-	-	맑은환경본부 자공해사업담당관
	무장애(Barrier free) 1등급 도시만들기 시범 추진(신규)		-	-	-	-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여성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1,520	-	440	540	54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지원		17	-	4	6	7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비예산	-	-	-	-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5) 편리한 서울 (38개 사업)

편리한 서울은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공간 구성을 통해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여성들은 가사노동 수행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 온라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편을 느끼는 공간으로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운전 및 주차, 보육시설, 보도통행, 공원녹지, 공공건물 순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서울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여성들의 공공시설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의 이동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편리한 서울은 도시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주거 환경 및 공공 공간 전반에서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공중 화장실의 여성이용편의 증진, 건축물의 여성편의시설 개선 등처럼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성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신설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에 여성화장실 변기수 비율을 남성 대비 여성을 1.5배로 적용하여 증설하고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하며 화장실 조명 설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에서 여성 화장실을 증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지하 공간에 있는 여성 화장실의 증설은 공간 확장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성 화장실 수 증가는 전체 모집단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여성 편의시설 및 아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정도이다.

여성들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지정하고 주차장에 CCTV 설치를 강화하였다. 여성들의 보도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보도의 턱을 낮추고, 보도 표면 자재를 바꾸고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및 지하철 전동차의 손잡이를 하향 조정하였고 2008년 말 지하철 1~4호선(전체의 52.3%) 및 5~8호선(100%) 대부분에서 장착될 예정이다. 지하철 및 버스에 여성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 시설물 설치(픽토그램 설치), 지하철 역사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등을 추진하여 2008년 1~4호선 개찰구 287개소 중 27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보다 중요한 것이 도시 계획 시설 설치 기준 등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도시 계획 설계부터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설치 기준을 보완하였다.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위원회에 여성 위원 위촉을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적 도시개발 사업(마곡지구)을 시범추진하며, 건축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편리한 서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 프로젝트와 무관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 고급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노점상 정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편리한 영역은 여행 프로젝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적합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기존의 편리한 영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여성 친화적인 여행 사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표 3-8 편리한 서울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확장실	여성화장실 시설개선	41,236	21,266.2 (구비 2,259)	4,053	7,138.6	5,474.4 (구비 1,259.5)	52,872 (구비 1,259.5)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본부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16,366	96	3,326	6,704	6,24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개선		3,604	1,687	1,480		427	시설관리공단
주차·통행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30,832	1,332	8	349	305	67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백화점·대형마트 여성 편의시설 개선		비예산	-	-	-	-	경쟁력강화본부
	보행편의 개선 위한 보도정비 추진		29,500	6,200	7,100	7,550	7,650	도시교통본부
제도개선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1,376	-	-	향후 학술용역 계획수립 후 반영		-	도시계획국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마곡지구) 시범추진		SH공사에서 전액 부담				-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
	건축물 및 시설물 여성 편의시설 개선		비예산	-	-	-	-	주택국, 도시기반시설본부
	SBA 여성기업 지원제도 운영(여성단체공동사업추진)		160	-	50	50	60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음식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개선		1,000	-	300	200	5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담당관
	쇼핑센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216	36	60	60	60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대중교통	시내버스 및 전동차 손잡이 개선	248,438	400	10	310	80	-	도시교통본부
	교통시설물의 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 사업 추진		677	-	257	210	210	도시철도공사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2,170	1,018	1,152	-	-	서울메트로
	여성이 편리한 지하철정거장 디자인 개선(신규)		84	-	84	-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저상버스 도입 확대		156,700	10,800	25,900	60,000	60,000	도시교통본부
	버스 고급화 추진		4,800	-	-	2,400	2,400	도시교통본부
	엘리베이터 증설 및 대기용 의자설치		83,607	7	5,200	3,200	75,200	서울메트로

영역	2008년 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총계	계	2007	2008	2009	2010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코스 확충 및 홍보	549	330	62	86	86	96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주택국 건축과
	설계자문시 여성위원 참여		비예산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부 프로슈머제도 실행		219	39	50	60	70	SH 공사
정보 제공	여성 중심 웹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터넷방송 「아름다운 여성」 주제 UCC 공모전 개최	266	16	-	10	3	3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맞춤형 여성 정보방」 홈페이지 구축		매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운영사업 예산에 포함 추진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여성 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200	60	40	50	50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마당」 구축		비예산	-	-	-	-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성인지적(Gender-based) 관점의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50	-	30	10	10	서울복지재단		
기타	여성·가족 친화적인 문화예술 기회 확대(신규)	3,676	566	132	134	140	160	여성가족재단
	女幸 프로젝트 확산 지원(신규)		1,306	-	416	440	45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의 女幸 名所 서울여성플라자(신규)		645	5	230	180	230	여성가족재단
	폐경기 여성 건강 프로젝트(신규)		4	-	1	1.5	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여성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점검		비예산	-	-	-	-	감사관 조사담당관
	행정서비스 여성시민고객 만족도 평가		484	110	140	120	120	감사관 평가담당관
	「여행 프로젝트」 정책 현장 평가 투어		12	3	3	3	3	감사관 평가담당관
	여성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585	-	225	180	180	한강사업본부
	시민불편살피미 반영		74	11	20	21	22	감사관 조사담당관
여성불편민원 다산 패트를 현장 확인 강화	비예산	-	-	-	-	고객만족추진단 민원조사담당관		

자료: 서울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 2008년 연동계획(안)」

IV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IV

여행 프로젝트와 여성의 참여

도시 생활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이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시 정책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도시 공간 이용과 참여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 계획은 전형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도시 설계 담당자나 관리, 설계사업의 대표자,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도시계획에서는 여성의 경험이나 삶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이나 주거 계획,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는데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이제 보다 역동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관심사들을 도시 계획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도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gender-sensitive urban governance)란 성별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고 수혜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는 성별에 따라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적 자원 접근도가 다르고, 성별역할 기대가 다르므로 성별차이로 인한 도시 계획 분야의 여성참여 배제 및 여성의 경험 미반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Beall, 1996).

여성의 도시 정책 참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로서, 정치적 대표자로서, 고용주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지지집단이나 자조 조직의 일원으로서 도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도시 정책 입안가, 도시 정책 설계 전문가, 정책 수혜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여성의 경험과 삶을 도시 정책에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다(Beall, 1996).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성의 관점을 도시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여성의 도시권 확대를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여행 동반자 집단」과 「여행 프로슈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후반부터는 자치구 여성들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여행 포럼단」을 구성하였고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여행포럼단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여성부터 전문가 여성까지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시도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여성참여 확산을 위한 조직들의 운영 현황 및 의의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행 동반자단」: 전문가 참여

1) 동반자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여행 동반자 집단」은 2007년 10월 여성, 복지, 도로, 교통, 주택, 건축, 도시 경쟁력, 환경 분야의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와 여성단체, 지방 정부기관 관계자들 187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9월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여 5개 분과 193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여성복지분과 53명, 도시경쟁력 분과 47명, 환경분과 34명, 도로교통분과 29명, 주택건축분과 30명 총 193명이다.

분과별 동반자 추가 영입을 통해 동반자 집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서울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과 분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정책 설계단계부터 시행과정까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새로운 여행 사업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여행 사업초기부터 동반자 구성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여행 프로젝트가 도시 환경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야 하므로 분야별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 전문가 집단의 이론적인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행 동반자는 187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여행 동반자의 구성 현황을 보면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여성단체 및 NGO, 관련 서울시 기구, 시의원, 서울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

표 4-1 서울시 여행 동반자 분과별 구성 전문가 참여 현황(2007년)

	여성·복지	도로·교통	주택·건축	도시경쟁력	환경
전문가	-변호사 -복지환경디자인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설인협회	-여성언론인 -변호사 -벤처/IT기업/경제인	-환경디자인
학계·연구기관	-사회/상담/사회복지/유아교육학 -여성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환경디자인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주거/건축/문화인류학 -시정개발연구원	-소비자/행정/사회/문화/레저스포츠학 -시정개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환경/간호/약학/법학/산림/도시학 -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NGO·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중앙회 -서울YWCA -소비자연구시민모임 -청년여성문화원 -여성CEO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청년여성문화원 -통일여성안보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적십자봉사사회 -서울시의용소방대연합회여성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미래가족문화연합회 -여성자원금고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시민문화단체 -재향군인회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어머니회 -대한YWCA -환경시민단체 -간호사협회 -여성약사회
지방정부기관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시의원·시협의회	-	-서울시보육시설가정분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서울시보육시설가정분과위원회

여행 동반자는 서울시 실, 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 분과별로 책임자와 실행위원을 선출하였고, 분과별 해당 실국들 중 선임부부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만들었다. 창립 당시 여행 동반자 운영 계획에 따르면 분과별로 매년 해당 실국과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사업의 자문,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 4-2 | 여행 동반자 분과와 실국 연계체계

	여성·복지	도시 경쟁력	환경	도로·교통	주택·건축
선임본부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맑은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균형발전본부
해당실국	-복지국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국 -경영기획실 -정보기획단 -문화재단	-푸른도시국 -물관리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 본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SH공사

2) 여행 동반자 운영 실적

여행 동반자는 2007년 10월 5개 분과 187명으로 구성되어 발대식을 가진 후 분과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선정하고 동반자로서 사업의견을 시에 제안하였다. 동반자 참여는 분과총회를 통한 자문, 사업별 전문가 자문, 온라인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전문가 자문의 결과를 실국으로 전달하여 각 실국의 여행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동반자 자문 참여 실적과 운영 현황을 참가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동반자 분과 총회

2007년 여행 동반자 활동실적을 보면 분과회의 5회, 자문회의 12회를 개최하였다. 각 분과회의에서 동반자들이 여행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업들은 보육시설, 노인시설, 육아휴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여성 편의시설 등이다. 그 외에 동반자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2007년 동반자 분과회의는 11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10월에 동반자단이 발족하고 나서 각 분과별로 위원장 등 조직구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이었다. 2007년 동반자 분과총회는 동반자들이 여행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정도였고 자문내용도 특정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보다는 여행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경험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표 4-3 | 여행 동반자 분과위원회 자문 실적(2007)

분과	참여자	자 문 내 용
여성복지	28명	- 여행동반자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 단위로 운영 - 여성발전기금 선정과정,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여성관련 사업은 연령, 계층 등 특성을 반영한 사업 필요
도로교통	18명	- 여성이 사회적약자가 아닌 남녀평등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
도시경쟁력	27명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카페 운영 -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 필요 - 특수분장, 보디페인팅 등 관광상품화 -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 제공 - 각종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필요
주택건축	18명	- 노인, 약자 등을 위해 교통신호등 시간을 현재보다 길게 조정 - 재래시장 사물함 설치 - 보육시설도 스쿨존으로 지정 - 어린이집 정원만들기 추진 -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다나기에 불편한 지하철 환풍시설 개선 - 서울은 조명시설이 밝아 별을 볼 수 없으므로, 건물 조명개선 필요
환경	18명	- 간호사들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문제 해결 - 구체적 주제 및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환경문제 토론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2008에 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월부터 3월까지 여성복지분과, 주택건축분과, 도로교통분과, 환경분과, 도시 경쟁력 분과 전체회의를 분과별로 개최하였다. 2008년 분과회의는 총 7회가 개최되었고 여성복지 분과는 총 3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활발한 자문참여를 하였다. 분과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 선임본부 및 담당공무원, 동반자,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었다. 주요 안건은 분과별 여행 프로젝트 주요 사업 발표 및 동반자의 각 분야에서 여행 관련 사업 아이디어 제시 등이었다.

2008년도의 동반자 분과회의는 선임본부 및 관련 실국의 여행사업이나 실국의 2008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동반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 사업별로 자문의견을 구하였다. 2008년 동반자 분과회의의 핵심은 동반자와 각 실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분과에서 2008년 여행 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해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본부의 책임자 급들이 참석하여 여행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몇 분과에서는 실국의 관심도나 동반자들의 참여도도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분과회의는 동반자, 각 실국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모든 동반자가 각 분과의 여행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반자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게 해주는 데는 유용하였으나 논의주제가 포괄적이고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자문의 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다.

표 4-4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 자문 실적(2008)

분과	참여자	내 용
여성복지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동반자 분과위원회 역할 및 기능과 연계방법 - 키즈센터는 특성화 및 기능검토 후에 설치되어야 함 - 여행 프로젝트 관련 사업 추진시 기존시설과 운영단체와 네트워크 - 시단위에서 시설을 스크린할 필요성, 여성관련 사업이 너무 적음
여성복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분과 실행위원회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능임 -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미취학 아동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여성 내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 수렴 요구 - 한부모, 일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과 여성에 관심 - 공보육과 민간보육의 질적차이 축소
주택건축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추진 -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 '마곡지구' 시범추진 - 건축물의 여성편의시설 개선 - 북촌한옥마을 여성탐방코스 및 편의시설 확충 - 신청사 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 주부프로슈머 제도
환경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야 함 - 아리수 공급확대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여성복지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동반자의 역할과 권한 - 여행동반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상호역할 규정 - 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참여
도로교통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 시설 디자인 개선 - 지하철 화장실 온수 공급 - 지하철역사에 보육시설 설치시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탁방안 - 보도블록, 가로등을 시전체 동일한 디자인으로 개선 - 공공화장실 청결도 향상 - 가로등 조도를 높여 안전 확보 - 여행 프로젝트 타겟을 저소득층, 다양한 연령으로 확대 -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로 나아가야 함
도시경쟁력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를 맡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산전후휴가는 일정기간은 쉬고, 일정기간은 재택근무 방안 검토 - 남성들도 육아휴직 필요 - 여성에 국한되는 체육시설이 아닌, 공동체육시설에 여성편의시설 제공 - 여성에게 세무교육, 지방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예술가 기획양성 프로그램 마련 - 여성을 위한 경영 및 세무 컨설팅 필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2)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

분과회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반자 중 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사안 중심으로 자문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각 분야별로 개최된 소규모 자문회의는 12회가 개최되었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재활쉼터 운영, 공중화장실 여성편의시설 개선, 창업교육사업, 공원시설 안전시스템,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뉴타운 시설 여성편의성 증진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표 4-5 여행 동반자 소규모 자문회의 실적(2007)

사업명	분과위	내 용	비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자문	여성복지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안건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자문	여성복지	- 여성홀헬퍼 사업 평가 지표 건	장애인복지과
여성재활쉼터 운영	여성복지	- 남성위주의 재활프로그램을 대상자 개별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재구성 및 개발	자활지원과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여성복지	- 공중화장실 여성을 위한 편의개선에 대한 자문 · 여성변기수 확충(50:50) · 리필시트지, 기저귀교환대, 보조의자 설치 등	위생과
서울여성창업아카데미	도시 경쟁력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여성이 선호하는 업종 특화	신용보증재단
정책평가투어단 운영	환경	- 공원이용자 중심의 안내시스템 설치 - 공원이용 안전시스템 보완 및 설치 - 휴식 및 편의시스템 보완 등	감사관
뉴타운 건설	주택건축	- 여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단지내 1층 건립 - 여성인력 활용 주부 자원봉사단 운영 대책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등 주민공동 시설 대책 -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등 시야확보	균형발전본부
지하철 건설	주택건축	- 지하철 건설 관련 여성을 위한 시설 건설	도시기반 시설본부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도로교통	- 지하철 여성전용칸 운영 · 전용칸 용어 재검토 · 시범운영 후 결정 등	도시철도공사
창업교육사업	여성복지	-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07년 교육사업 운영결과 및 '08년 교육사업 자료 자문	산업통상진흥원
여성복지분과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여성복지	- 여성복지분과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	여성가족재단
여성복지분과 오찬 간담회	여성복지	-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과 자치구 관심 확대 필요 - 세대별, 계층별 여성들 요구조사 선행 필요성 -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모형개발을 위한 발전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협력사업 도모	여성가족재단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2008년에는 여성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아리수 여성일자리 창출, IT 기반 여행 프로젝트,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문정지구 살기좋은 도시 조성,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등 총 44회의 소규모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사업별 자문은 다수의 사안에 대해 각 전문 분야별로 단기적 혹은 일회적 자문을 함으로써 자문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2008년도 각 실국의 여행 프로젝트 연동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동반자들의 자문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2008년 후반에는 5개 영역별로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총 30여명 정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관련 현안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단력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이 풀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풀의 전문가들을 교체할 수 있게 하였다. 소규모 전문가 자문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의 결과가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반자 소규모 자문회의는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하여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동반자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실국이 여행 동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 투입 등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동반자 전문성이 확보될수록, 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자문이 시행될 경우 동반자 정책 참여도가 높았다.

표 4-6 여행 동반자 소규모 전문가 자문 실적(2008)

사업명	분과위	내용	비고
여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여성 복지	-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내용이 여행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실외공간 금연정책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효과적인 사업수행방안 -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가 장소	건강증진담당관
아리수 여성일자리 창출 등	환경	-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필요	상수도사업본부
IT기반 여행 프로젝트	도시 경쟁력	- 맞춤형 여성홈페이지 개편사항 - '08년 신규 IT기반 여행 프로젝트 사업 검토 - 여성을 위한 교양홈페이지 제작 - 여성편의시설 안내마당에 콘텐츠 확보 - 홍보 강화	정보화기획단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주택 건축	- 은평뉴타운1지구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방안	균형발전본부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조성	주택 건축	- 문정지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시행지침 자문	도시계획국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 복지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신규사업 공모 자문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모니터링 - 여성장애인 지원 교육프로그램등	장애인복지과

사업명	분과위	내 용	비고
동남권 유통단지 통합환경디자인	주택건축	- 동남권 유통단지 통합환경디자인	SH공사
재활센터 프로그램 개선	여성복지	- 재활센터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재활지원과
성인지적 관점의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여성복지	- 복지서비스 만족도 성차 원인 파악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진단틀 개발	서울복지재단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분야 현장실태조사	주택건축	- 실태조사 조사설계안에 대한 개선 및 고려사항 - 불특정다수 여성 이용시설물 유형의 적합성 - 부설주차장 모집단 추출기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정책개발 필요 - 맞춤형 교육사업 개선 - 취업, 창업박람회 개최방안 개선 - 창업보육센터 운영방법 개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인증화 방안 - 조달계약시 여성고용 우수기업 우대방안 - 여성창업지원시스템 원스톱 체제 구축 필요 - 맞춤형 직업훈련 개선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적 연계방안 -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대표 브랜드화 전략 - 여성능력개발원 기능활성화 방안 - 여성창업활성화 방안 -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개선방안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커리어 멘토링 솔루션 사업제안 -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계획 검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방안	여성복지	- 여성일자리 대표상품 개발 - 브랜드명 검토 - 신규직종 개발 - 여성커리어멘토링 검토	여성가족정책관

자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2008)

(3) 온라인 전문가 자문

동반자 분과회의는 다수의 동반자가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만나야 한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각 분과에 소속된 실국 여행 사업들이 내용이나 수위가 다름으로 인해 각 실국에서 동반자 분과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수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는 효율적이기는 하나 관련 분야의 소수 전문가만

지속적으로 참가하므로 인해 다수의 동반자들이 참여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8년도 들면서 기존의 사업 외에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여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였다. 기존의 동반자 자문은 여행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행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여 성인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주요 시정 사업에 여성의 시각을 추가로 반영하면 새로운 여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여행 프로젝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다수의 동반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안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동반자 온라인 자문이 시행되었다.

온라인 자문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추진되었는데 1차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차는 자문은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6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제들은 서울시 여성담당 부서에서 다른 실국에 의뢰하여 결정하였으며, 다른 실국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의 주요사업을 스크린 하여 대상 목록을 만든 뒤 관련 실국에 자문 필요성을 확인 후 선정하였다.

자문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들이 분과별/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 조사지를 구성하여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보내고 자문 결과를 수거하였다. 대상 과제들은 분과별로 구분하여 각 분과 소속 동반자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전화 확인을 거친 후 수거하였다. 각 분과별로 동반자 참여율을 보면 1차 자문은 38.3%, 2차 자문은 44.2%가 참여하였고 분과별로는 여성·복지 분과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재단은 자문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정책과로 제출하였고 여성정책과는 해당 사업부서로 송부하여 반영토록 하였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사례는 시립 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희망드림 프로젝트(여성·복지 분과), IT 콤플렉스 건립, 창동복합공연장 건립(도시경쟁력 분과), 서울형 친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주택·건축분과), 한강 교량 보행환경 개선, 여성친화적 자전거 도로(도로·교통 분과), 북서울 꿈의 숲 조성, 공원 화장실 증장기 개선, 노을 공원 공원화 사업(환경 분과) 등 10개 과제이다(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2008).

【 표 4-7 】 여행 동반자 온라인 자문 실적(2008)

구분	기간	대상	조사방법	자문사업
1차 자문	2008. 10~11	5개 분과 동반자	-설문조사 -반구조화된 의견조사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용역사업 - 서울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 -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 IT-Complex 건립 - 공원화장실 증장기 개선계획 - 노을공원 공원화 계획 - 강북 대형공원 공사 후속 공정 추진 - 울곡로 도로구조 개선 추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한강교량 E/V 및 전망카페 조성 - 서울형 친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자문	2008. 11~12	5개 분과 동반자	-설문조사 -반구조화된 의견조사	- 희망드림프로젝트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 - 서울형어린이집 -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4) 기타 활동 실적

여행 동반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소개, 실국 주요업무, 동반자 의견 제안, 제안내용 검토의견 제시 등을 하고 있다(2007년 12월부터 <http://cafe.daum.net/womenhappyseoul> 카페를 개설). 실국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해당 실국의 업무를 분과별 공지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였다. 2008년 동반자 대회 개최 및 여행 사업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기도 하였으나 동반자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3) 여행 동반자 의의와 과제

여행 동반자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시정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규모 동반자단으로 구성하여 다수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문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지역 여성 정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대규모 분과회의, 소규모 전문 자문회

의, 온라인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반자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동반자들은 2007년 5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008년 7회의 분과회의와 58회의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106건의 자문 안건을 제안하였고, 시에서는 49건의 자문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동반자가 구성된 지 1년 2개월 동안 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하겠다.

동반자들의 참여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행 동반자단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자문과 사업 반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동반자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를 짚어보자면 첫째 분과별 동반자 인원수가 많고 전문가 비중이 낮아 전문적인 자문이 어려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반자 그룹은 2007년 여성·복지분과 50명, 도시경쟁력분과 44명, 도로·교통분과 30명, 환경분과 35명, 주택·건축분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자 중 각 분과별로 30~40%가 서울시 여성단체 및 관련 시설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 비율이 낮다. 동반자단 규모가 크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반자 내에서도 자문의 내용이나 수위가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일반 기관 대표 여성들은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동반자 자문회의는 전문성과 집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문제는 동반자들이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반자단이 대규모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이 어려워 동반자들 중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여행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동반자들이 소규모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관심 사안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동반자들의 여행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은 자문 참여도를 낮추게 하였고 동반자의 자문 내용의 효과성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동반자와 관련 실국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동반자의 참여는 실국의 관심과 자문 결과 반영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택 건축 담당 실국과 같이 동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반자의 자문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다수의 실국이 의례적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실국의 여행 사업들은 도시 여성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한 예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이 법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여성의 편의성 증진 사업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도로, 교통, 주택,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친화에 대한 개념정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 일 등의 분야에서는 지역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체감도가 낮았다. 실국의 사업의 성인지성 부족,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개

님 규정 미흡은 자문 어젠더(agenda) 발굴을 어렵게 하여 동반자와 실국의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여행 CF(creative facilitator 창의 촉진자)와 CF manager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행 프로젝트 보고회 때 부서장 지시사항에 의한 것이었다(부시장 지시사항 제 255호, 2008. 7. 15). 여행 CF는 부서별 팀장 이하 1명, CF Manager는 실국본부 사업소 과장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 부서에 여행 리더 그룹을 운영하여 조직 내에 여행 프로젝트를 내재화하고 여행 동반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행 CF는 실국별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동반자와 접점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자이나 2008년의 활동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행 CF 명단은 구성되었으나 본인이 여행 CF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실국의 여행 사업 확산과 동반자의 참여를 위해 실국과 동반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및 일반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동반자단 재구성 및 운영 방식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행 동반자가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젠더 컨설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 컨설팅 시스템」은 분과별로 대표적인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동반자 전문가가 각 실국 담당자에게 긴밀하고도 집중적인 젠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컨설팅 시스템은 성인지적 도시 정책 시행 초기에 직면하는 문제, 즉 실국 담당자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 성인지적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 여성의 참여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 전문가 여성들 외에 일반 시민 여성들이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여성의 실질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여행 프로슈머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사례를 보면 도시 정책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여성들이 지역사회 공원이나 도로 등을 조사하여 시정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 영국의 여성디자인서비스 (Women's Design Service)에서도 지역사회 환경, 보도, 가로등, 지역사회 표지판, 공공건물 접근성, 지역청소년 센터 디자인, 주거단지 및 지역거주 시설, 야외 운동장 및 공원, 대중교통, 안전 감시체계 등에 대해 조사(safety audit)하고 결과분

석을 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WDS, 1998). 실제로 이 단체는 조사에 사용하였던 체크리스트 목록과 관찰기술지 목록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행 프로슈머는 2008년 “여성 시민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여성 시민고객으로 구성된 여행(女幸) 프로슈머를 운영하여 여성 고객들의 욕구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여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입되었다(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 2007. 3).

여행 프로슈머의 구성은 일반 여성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계층과 연령을 아우르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은 여성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의 반영은 시정 각 부분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는 사후 연구(post research) 등을 통해 여성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1) 여행 프로슈머단 구성 및 운영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역 사회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 일반 여성들 중 연령별, 혼인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풀을 구성하였다. 2008년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은 20~30대 미혼 여성, 30~40대 기혼여성, 시니어 여성 약 40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슈머단 모집은 서울시 각 인력개발기관 중 권역별로 1개소 씩 대상으로 수강자 중 프로슈머단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시니어 프로슈머는 시니어 연합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20~30대 미혼여성은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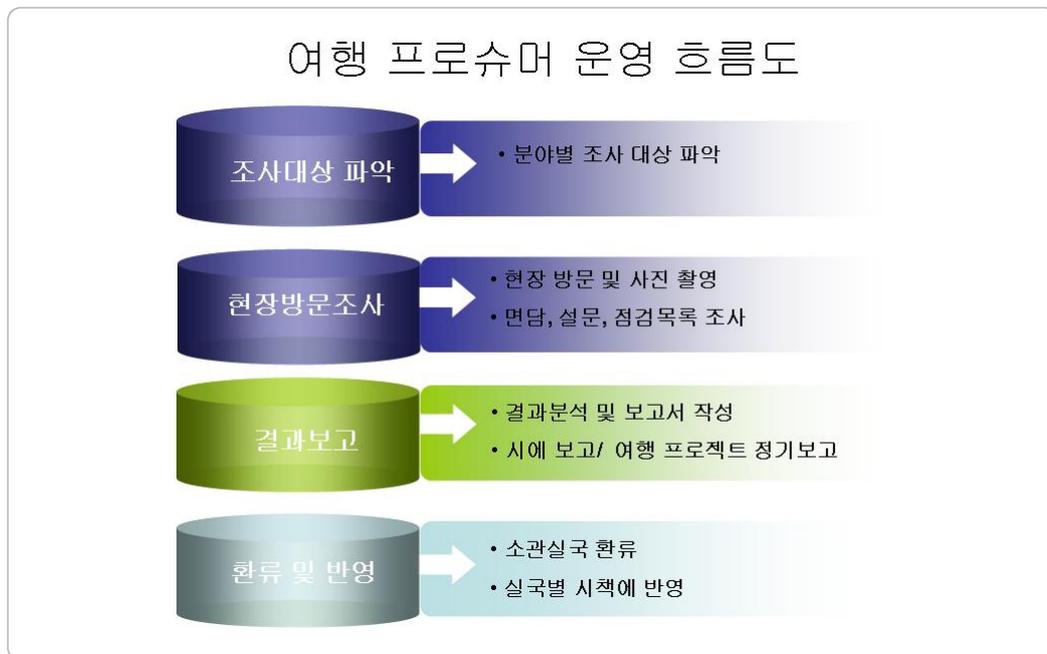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 단은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 조사」(2008. 4),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2008. 7),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2008. 10), 「여행 프로젝트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실태조사」(2008. 11)를 시행하였으며 영유아 플라자 조사를 수행하였다(2008. 12).

프로슈머단 조사 대상이나 주제는 도시 환경 중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편사항 등-화장실, 지하도, 주차장, 콜택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자치구 별로 구분하여 샘플링해서 조사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예: 2008년 11월 주차장 조사).

조사 방법은 프로슈머단이 해당 지역이나 대상지로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문관찰 조사법과 대상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법을 병행하였다. 프로슈머단이 일반 여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문관찰조사의 경우 연구자들이 개발한 점검 포인트 「체크리스트」로 측정하였고, 설문조사 역시 연구자들이 개발한 설문지로 조사를 담당하였다.

여행 프로슈머단이 조사한 결과들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에 제출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각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 조사 결과를 보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담당 부서는 결과를 시·부시장에게 보고하였다. 한 예로 지하철 여성 화장실, 주차장 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 조사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교통본부 등에서 반영하여 시정한 결과들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2008. 4. 15 여행 프로젝트 시장보고회).



〈그림 4-1〉 여행 프로슈머 운영흐름도

2)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는 현재까지 5개 현장을 조사하였다. 프로슈머 조사의 구체적인 현황과 점검 결과 반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프로슈머 조사는 2008년 4월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 화장실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2008년 3월19일~29일 심야시간대에 시행하였고, 조사 지역은 지하철역 284개소, 지하도 상가 20개소의 여성화장실이었다. 조사내용은 화장실 이용행태, 일반불편사항, 안전성 인식정도, 안전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1,002부)와 현장의 상황을 참여관찰지에 기술하거나 사진을 찍는 관찰기술 조사, 그리고 안전성 점검 체크 리스트 조사(지하철 역 284개소)를 시행하였다.

프로슈머는 20대 여성, 30~40대 기혼여성, 50대 시니어 여성 등 약 30여명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슈머 조사 교육을 1일 시행하였다. 프로슈머들은 1개 조당 3명으로 10개 조를 구성하였고, 조장을 선발하여 조별로 연락을 취하였다. 조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슈머 거주 지역 인근의 역을 조사 대상으로 배당하였다. 프로슈머들은 초기에는 조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4~5일 지나면서 적응도가 높아졌다. 이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조사 이후로 지역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1차 프로슈머들은 2차 프로슈머 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였기 때문에 2차 조사에도 다수가 참여하였다.

표 4-8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전성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조사항목	측정항목	측정 기준
시설 조건	출입구	내부분리형	화장실 내부에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됨 상대 화장실의 내부 안보임/ 흰히 보임, 여자 화장실 경유해서 남자 화장실 출입 등 체크
		일반분리형	남녀 출입구가 평행으로 분리
		완전분리형	남녀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
	동선(접근성)		역에서 화장실 이용거리
	위생상태(환기포함)		청결상태 및 환기상태 점검
	비상벨	유무, 작동여부	비상벨을 눌러 역무원 호출
	내부간격	천정, 바닥, 문	천정과 문의 틈새, 바닥과 문의 틈새, 화장실 문의 틈새
	잠금장치		문의 잠금장치 안전도
	장애인 화장실	유무, 남녀구분	
부대 시설	아동용 변기 아동보호용 의자	유무	
	기저귀 교환대	유무	
비고			기타 지적사항들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 안전실태 조사」

조사 결과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은 청결문제가 가장 큰 불편요소로 지적되었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화장실 이용 동선 불편, 여성 화장실 내부 노출 및 상대방 화장실 노출, 외진 위치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심야시간대 화장실 안전문제에 대한 위협의식이 높았고 성폭력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화장실 위치가 외지지 않아야 할 것과, 비상벨을 칸 마다 설치할 것, 화장실 문바닥과 천정간격 조성, 견고한 문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장실 전체를 위의 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호선 별로 화장실 문과 천정/바닥의 틈새 정도, 비상벨 유무 및 작동여부, 화장실 개방성, 화장실 위치, 조명 잠금장치, 편의성을 비교하여 각 호선별 화장실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

여자 화장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도시기반시설 본부(지하도 상가)에 전달되었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다(2008. 4. 15 여행 보고회 내부 자료).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대책은 주로 화장실 입구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실 앞 CCTV 설치의 범으로 규제가 많아 시행이 쉽지 않고, 실제 위협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후에 범인 수색 등에 유용할 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3)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제 2차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2008년 6~7월에 시행되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운전자 909명과 지하보차도 이용객 178명, 총 1,0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0~50대 여성 프로슈머 22명을 선발하여 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였고 각 조별로 해당 조사장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2일 ~11일이며 주로 오후와 야간 시간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공영주차장 151개소(전체 153개소)와 지하보차도 27개소(전체 31개소)이며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조사, 사진촬영 등을 수행하였다. 2차 프로슈머 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프로슈머 전체가 참석하여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프로슈머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프로슈머로서의 경험이 갖는 의미, 조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여 설문조사나 점검조사를 통해서 듣기 어려운 경험들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명, 주차공간, 안전성, 접근성, 안내표지, 이동약자 및 종합의견에 대한 설문조사와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4-9 | 공영주차장 안전성·편리성 체크리스트

구분	측정 항목	비고
조명	조명상태	
	불이나간 조명 유무	
	불이나간 조명 개수	
주차공간	주차면적 충분	
	주차방식	직각, 병렬, 사선
	여성전용주차	
안전성	고립감유무	조사자 판단
	CCTV 등 감시장치 유무	
	CCTV 충분여부	
	위험상황시 안내표지 유무	위험상황대응 설명, 연락처
	소리지면 주변사람에게 전달가능	
	비상벨설치 유무	
안내표지	입구 안내표지	
	출구 안내표지	
	주차장내 이동방향 안내표지	
접근성		
이동약자	휠체어, 유모차 사용가능	
종합의견	전체분위기	
기록시간	시 분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조사결과 주차장 이용 여성 중 61.9%가 위험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75.2%가 응답하였다. 지하보차도 및 지하보도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의견이 75.3%로 높았고, 노숙자나 취객을 마주칠까봐 두렵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조명 개선, 비상벨 설치, 통합형 CCTV 설치, 여성전용 주차구역 설정, 순찰시스템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과 노약자가 대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 마련, 안내표지의 가시성 증대, 주차장 청결성 유지관리로 편의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지하보차도의 경우도 비상벨 설치와 노숙인 및 취객 관리, CCTV 설치, 조명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명 개선 및 CCTV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추진 중이다(2008. 7. 15 서울시 여행 보고회자료).

4) 프로슈머 조사의 의의와 과제

프로슈머를 통한 일반 여성들의 조사 참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는 일상적 환경에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불편하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일상적 경험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사결과의 구체성이 확보되어 관련 부서에서 개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조사 결과의 환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2008년도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프로슈머 조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행 프로슈머는 미혼, 기혼여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들의 관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여성 집단, 청소년, 노인, 이주자 여성, 한부모 여성, 장애인 여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프로슈머단을 조직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프로슈머 조사는 조사 대상이 화장실, 주차장, 콜택시 등 일부 도시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프로슈머단의 다양화와 아울러 조사 대상 지역도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슈머단은 생활불편 요인 발굴 외에도 여행 프로젝트 사업 평가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사업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 중 혹은 완료 후에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혹은 여성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평가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 관련 NGO,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해야만 일반 시민 여성의 실질적인 정책 요구들과 정책 수혜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들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여성 친화적 도시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슈머는 일종의 「여행정책 평가 투어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 평가를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 수행한다면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 개선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

3. 자치구 여행 포럼단 구성 및 운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 지역사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행 프로슈머단과 동반자 집단으로 구성된 「여행 포럼단」을 창설하였다.

여행 포럼단은 자치구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직접 실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포럼 구성 대상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및 여성 활동가 그리고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여성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여행 포럼단은 기존의 여행 동반자 그룹과 프로슈머단의 복합적 기능을 하며 전문가 그룹은 구별 여행 사업 아이템 발굴과 여행 방향정립을 하고 일반 여성 그룹은 여성정책 현장 방문 및 평가, 구정에 결과 반영, 대외 홍보 등의 기능을 한다.

자치구에서 여행 포럼단을 창단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시 차원에서 실국관의 수평적 연계체계(horizontal linkages)를 구축하는 것 외에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수직적 연계(vertical linkages)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행 프로젝트가 일상적 차원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단위가 지역단위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행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도시 공간의 불편 요소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여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서부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둘째는 여행 사업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행 사업의 효과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여성 시민 참여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여성들을 조직하여 여성차별적인 도시 공간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여행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자치구 여행 포럼단을 창단하게 된 것은 여행 사업의 인지도 제고, 지역여성 참여를 통한 자치구 여행 사업의 다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가 8~9월내 약 50여명 규모의 여행 포럼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구별로 약 50여 명 전후로 여행 포럼단을 구성하였으며 2008년만 25개 자치구 전체 약 800여명의 여행 포럼단이 조성되었다.

자치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조직의 구성도 다양하였다. 다수의 자치구 포럼단이 지역 사회의 풀뿌리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일부 구는 서울시의 동반자단과 유사한 구성을 갖추기도 하였다. 다음은 서울시 강남구의 여행 포럼단 구성현황 및 역할인데 여행 프로젝트의 5개 영역별로 전문가, 여성단체, 여성정책 관심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주 기능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여행

사업들에 대한 영역별 자문과 각 사업 아이템 발굴이었다. 강남구의 구성 현황이 서울시 자치구의 여행 포럼단의 전형은 아니나 전문가, 여성단체, 일반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인용하였다.

▣ 표 4-10 ▣ 강남구 여행 포럼단 구성 현황 및 역할

구분	전문가 그룹	여성단체그룹	여성정책 관심주민
대상	법조, 의료, 여성CEO 문화예술단체 대학등 학계 전문가 언론사 기타 여성전문가	여성단체 회장단 (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	여성 전문가 및 관심있는 일반 주민
주임무	정책 자문 및 개발, 여성요구사항 파악 사업아이템 발굴, 각 분야별 정책 반영 및 실행 참여		
구성방법	5개 분과위원회 분산배치 분과위원회별 여행 동반자 그룹과 여행 프로슈머 활동 서울시 전체 여행 동반자 그룹과 거버넌스 구축(network 체제 유지)		

자료: 강남구 여행포럼단 발대식 자료(2008)

현재 여행 포럼단은 발족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할지 정립되지 않은 구가 많았다. 여행 포럼단에 속한 여성들 다수가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 포럼단 발대식에서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이해」강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향후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직화와 참여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구 여행 포럼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첫째 구정 전반에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확산, 둘째 여성 담당 부서 외의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전문적인 자문 제공, 셋째 자치구 여행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 기반 확대, 넷째 지역 사회 여성 불편 요인 조사 및 대안 제시, 다섯째 자치구 여행 신규 과제 제안 및 사업 아이디어 제공 등이 필요하다.

자치구 여행 포럼단이 지역사회에서 성인지적 여성 사업들을 발굴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행 포럼단의 성인지 교육과 아울러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조사(safety audit) 사례 연습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단위의 전문가 여성들 풀을 조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도로, 주택, 환경 등 도시 정책 수립 초기부터 시행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 여행 포럼단은 여행 프로젝트의 여성참여 단계의 하부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여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V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 분석

1. 조사 목적 및 개요

여행 프로젝트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면서 여행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여행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각 실국 단위로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가를 한 적은 없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반자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는 하나 각 영역 혹은 구체적인 사업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행 프로젝트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여행 프로젝트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돌봄, 문화, 주택, 건축, 건강, 안전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행 프로젝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최종 조사 대상자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60인이다. 전문가 선정은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 영역 별로 15~20명의 전문가 풀을 만들고 이들 중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동반자나 자문에 참여한 자, NGO 단체 대표 및 실무자,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영역별 10~15명 정도를 선정하였다.

표 5-1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08. 12. 2~ 2008. 12. 10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전문가 60명 (돌보는, 일있는, 넉넉한, 안전한, 편리한 영역별로 전문가 10~15명 선정)

전문가 조사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인식도 및 현황 파악, 둘째는 여성과 도시 공간(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 인도 및 보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대중교통, 주거시설 및 주거환경, 건강 및 식품 안전) 관련 정책 수요 파악, 셋째는 여행 동반자단, 프로슈머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넷째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지는 여행 프로젝트의 인지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위한 주요 요건, 여행동반자와 프로슈머의 활성화 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및 홍보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반구조화된 문항들을 혼합하였다.

표 5-2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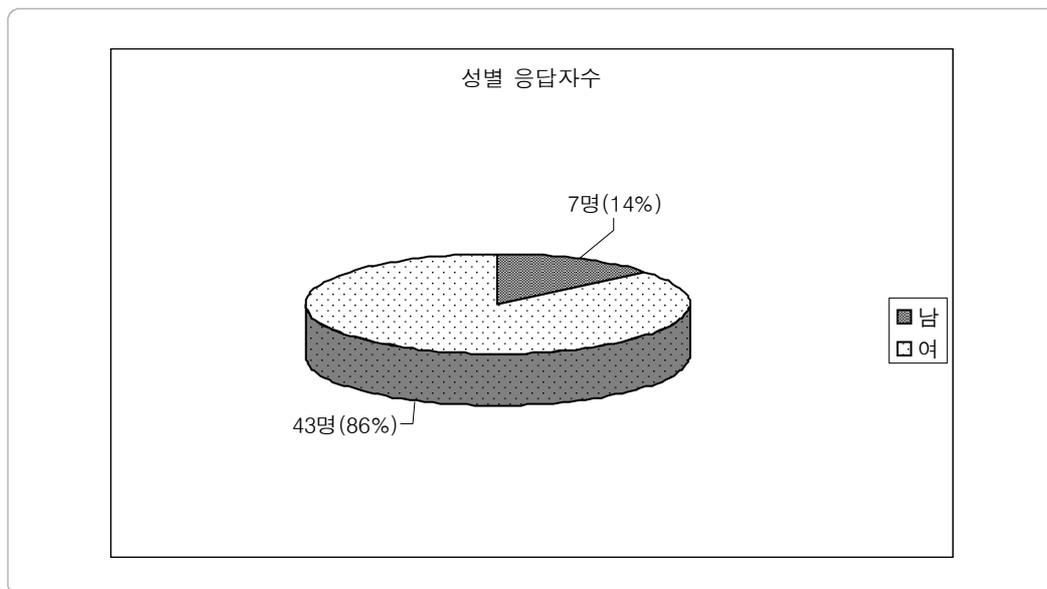
영역	주요 주제	세부 문항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여행 프로젝트 의의	여행 프로젝트 인지도 여행 프로젝트의 의미
	각 영역별 현황	잘되는 영역, 향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대표적 여행 사업	여행 프로젝트하면 떠오르는 사업
	여행 사업 현황 및 문제	여행 인지도, 성인지성, 여성경험 반영 정도 등
여성과 도시공간	도시공간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의 여성친화적 요소
	보행	인도 및 보도, 지하보도, 횡단보도의 여성친화적 환경 요인
	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주거	주민자치센터, 주거환경, 놀이터
건강 및 식품안전	정신건강, 식품안전	
여성전문가 참여	여행 동반자	인지여부, 전문가 참여 중요도, 운영 적정규모
		운영개선방안
		동반자 참여 방식
일반시민 여성참여	여행 프로슈머	일반여성참여 중요도, 프로슈머 조사 영역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방법 프로슈머 활동 단위
	자치구 여행포럼단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중요도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기능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발전 방안	발전방안 추후 개발해야 할 사업 홍보 방안
기타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소속, 전문분야

전문가조사는 총 60명의 전문가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수거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의 각 영역의 전문가를 고루 포함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을 구성하였고, 총 60명 중 수거된 설문지는 총 50부로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2.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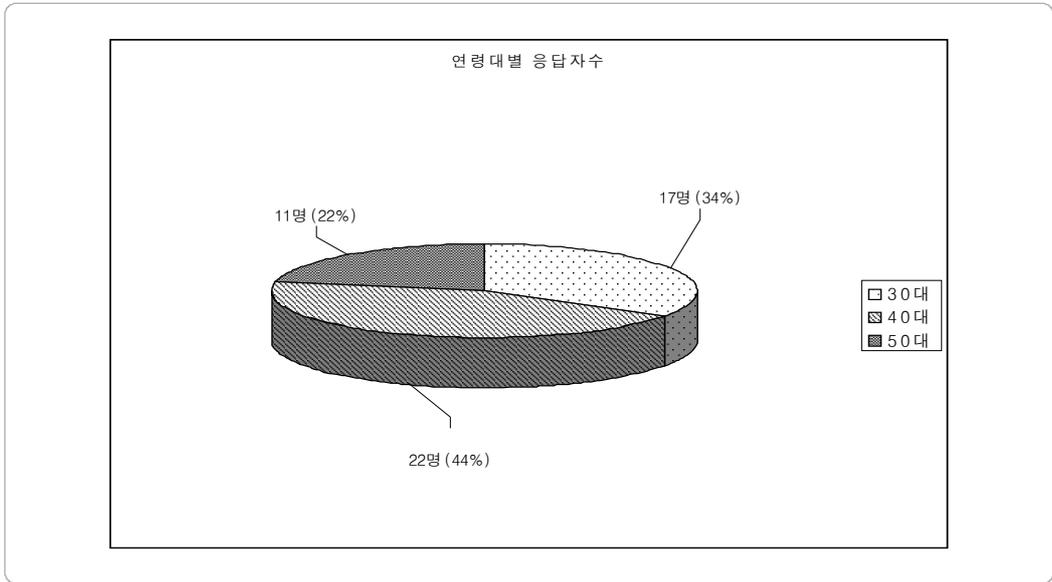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총 50여명의 응답자 중 성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43명(86%), 남성이 7명(14%)로 대부분 응답자들이 여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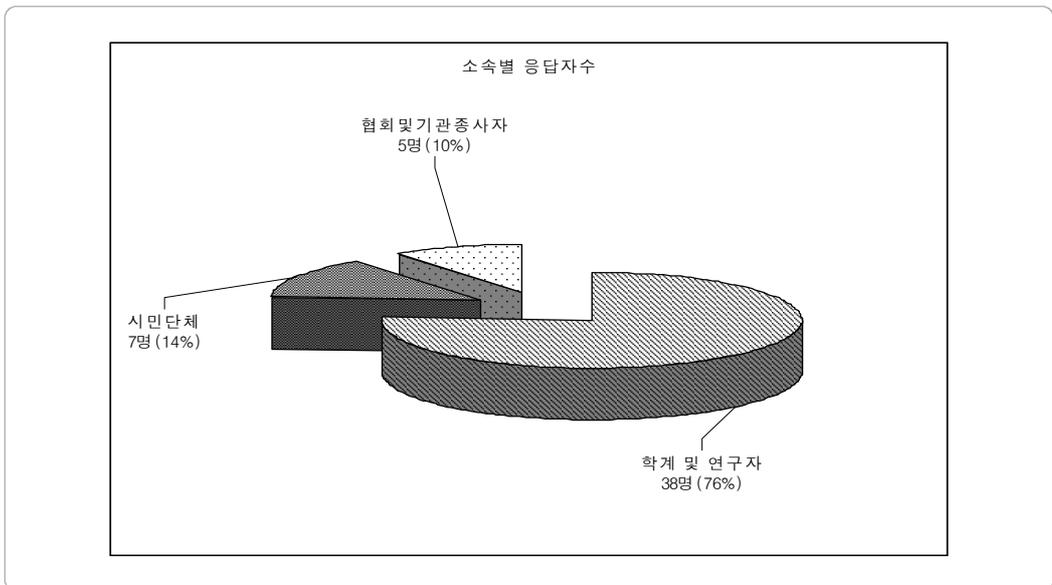
〈그림 5-1〉 성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40대가 22명(44%)으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7명(34%), 50대가 11명(22%)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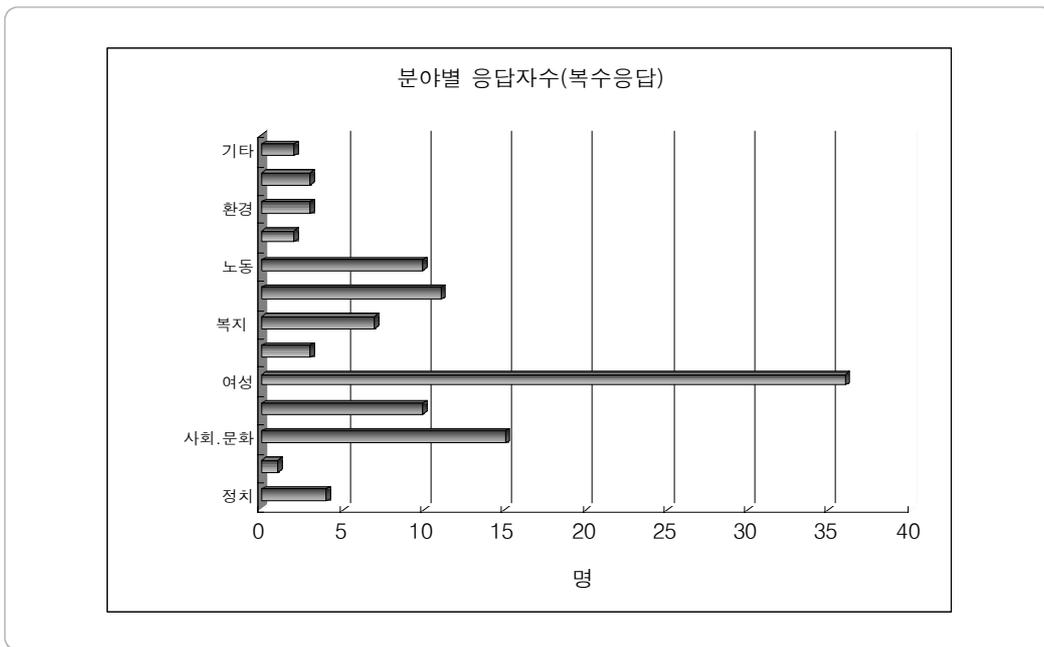
〈그림 5-2〉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소속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학계 및 연구자가 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시민단체 종사자 7명(14%), 협회 및 기관 종사자 5명(10%)순이다.



〈그림 5-3〉 소속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분야에 응답한 수가 36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사회·문화 분야가 15명(30%), 가족분야 11명(22%), 노동분야 10명(20%), 교육분야 10명(20%)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야는 조정, 공학 등이다.



〈그림 5-4〉 분야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전체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6%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44%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계 및 연구자가 전체의 76%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문 분야는 여성분야에 응답한 수가 3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화, 가족, 노동,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	7	14.0
	여	43	86.0
연령대	합계	50	100.0
	30대	17	34.0
	40대	22	44.0
	50대	11	22.0
소속	합계	50	100.0
	학계 및 연구자	38	76.0
	시민단체	7	14.0
	협회 및 기관종사자	5	10.0
분야 (복수응답)	합계	50	100.0
	정치	4	8.0
	경제	1	2.0
	사회문화	15	30.0
	교육	10	20.0
	여성	36	72.0
	행정법	3	6.0
	복지	7	14.0
	가족	11	22.0
	노동	10	20.0
	도시·교통·건축	2	4.0
	환경	3	6.0
	의료	3	6.0
	기타	2	4.0
	합계	107	-

2) 여행 프로젝트 전반 평가

전문가 조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여행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성공적인 여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여행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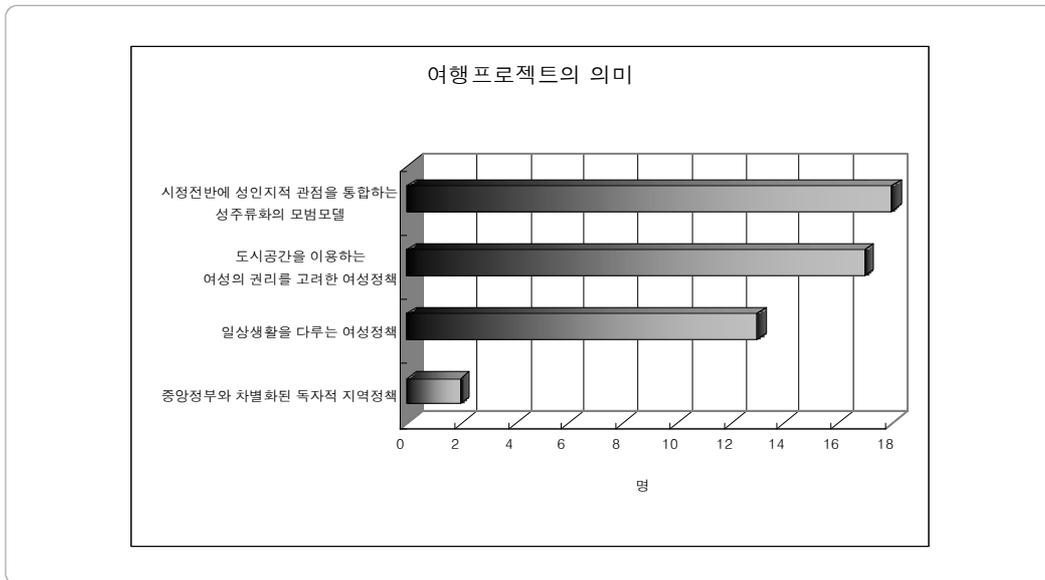
먼저 여행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18명, 36%)가 '시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

텔'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이라고 17명, 34%가 답했다. 여행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명으로 4%에 불과했다.

여행 프로젝트는 성주류화 모델, 여성친화도시 정책, 일상생활 밀착형 정책, 독자적 지역여성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중 성주류화 모델로서 의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표 5-4 ▣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구 분	응답수	비율(%)
시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모델	18	36.0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	17	34.0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일상생활을 다루는 여성정책	13	26.0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	2	4.0
합계	50	100.0



〈그림 5-5〉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

(2)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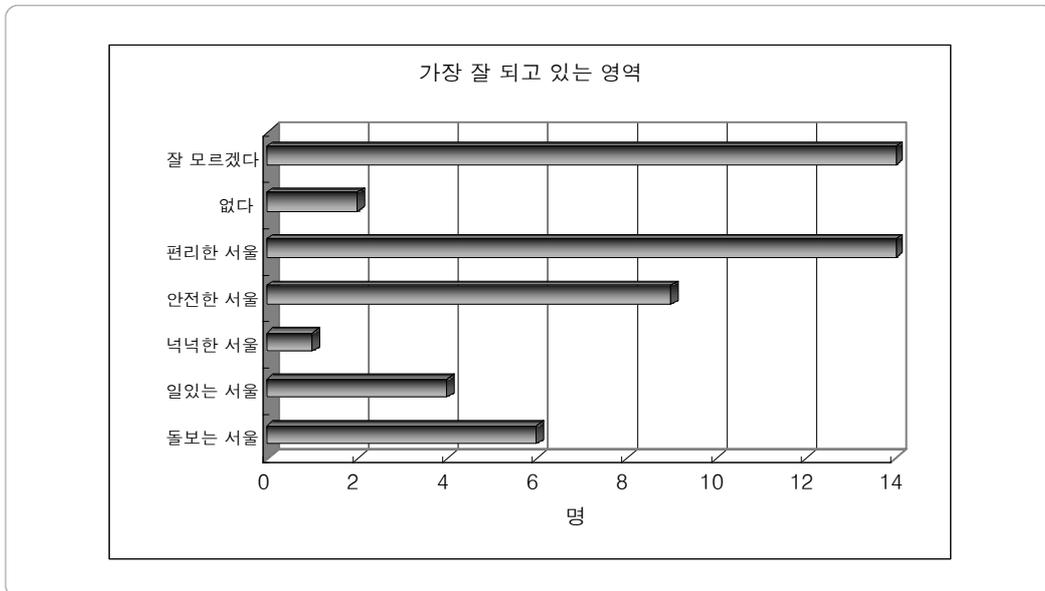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편리한 서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총 14명으로 전체의 28%로 나타났다. '모르겠다'

라고 답변한 전문가 또한 14명(28%)이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18%), 돌보는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명(12%) 순이었다. 넉넉한 서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2%)에 불과했다.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설이나 하이일이 빠지지 않는 보도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편리성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한 서울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영역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정체성 확립 및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5-5 ▣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영역	응답수	비율(%)
편리한 서울	14	28.0
모르겠다	14	28.0
안전한 서울	9	18.0
돌보는 서울	6	12.0
일있는 서울	4	8.0
없다	2	4.0
넉넉한 서울	1	2.0
합계	50	100.0



〈그림 5-6〉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

(3)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17명, 34%)가 '일있는 서울'을 꼽았다. 이어서 '돌보는 서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14명(28%), '안전한 서울'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각각 7명(14%)순이었다.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사업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노동 경감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여행 프로젝트가 여성의 도시 공간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만큼이나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일/가족 양립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6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영역	응답수	비율(%)
일있는 서울	17	34.0
돌보는 서울	14	28.0
안전한 서울	7	14.0
모르겠다	7	14.0
넉넉한 서울	3	6.0
편리한 서울	2	4.0
합계	50	100.0

위에서 여행 프로젝트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꼽은 편리한 서울은 이 문항에서는 가장 적은 응답자(2명, 4%)가 응답해 편리한 서울 영역이 높은 인지도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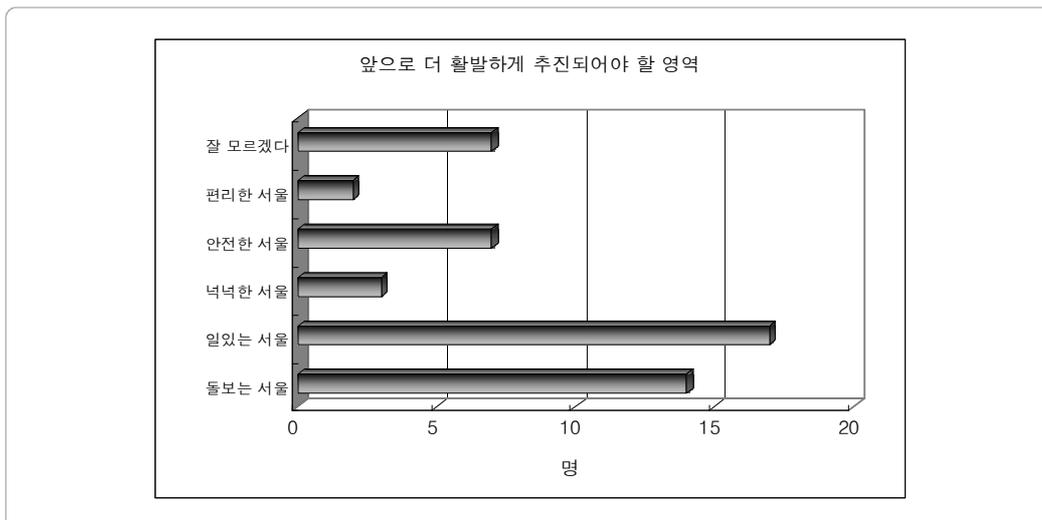


그림 5-7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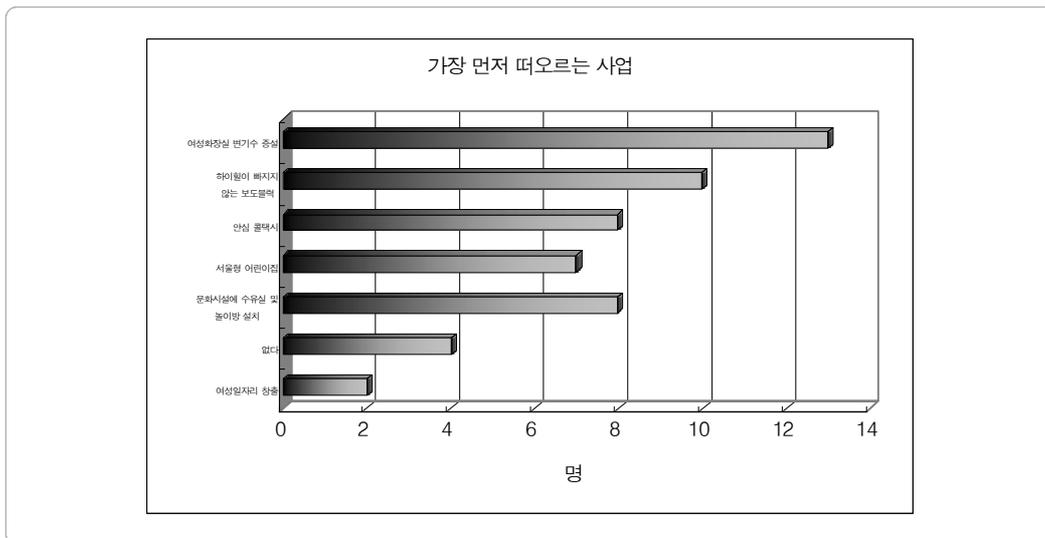
(4)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이라는 답변이 13명(26%)로 가장 많았고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이 10명(2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안심콜택시’(8명, 16%), ‘서울형 어린이집’(7명, 14%),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6명, 12%) 순이었다. ‘없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4명(8%) 있었다.

표 5-7 여행 프로젝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사업	응답수	비율(%)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13	26.0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10	20.0
안심 콜택시	8	16.0
서울형 어린이집	7	14.0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	6	12.0
없다	4	8.0
여성 일자리 창출	2	4.0
합계	50	100.0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설’ 사업이나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사업은 여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홍보할 때 자주 언급되던 사업으로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홍보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5-8〉 여행 프로젝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

(5)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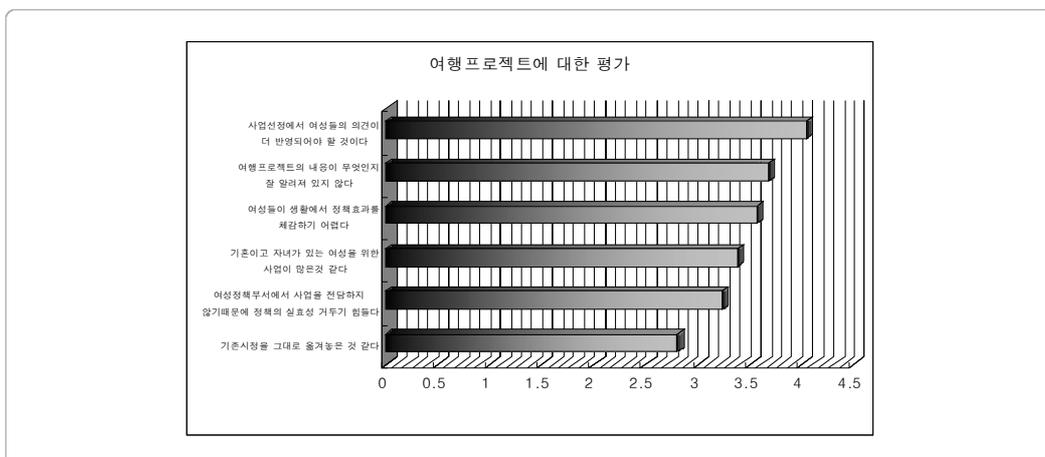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3.68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가 3.56점으로 다소 높게 나왔다.

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주체인 여성들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쉽게 정책을 체감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행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마련도 중요하다 하겠다.

▮ 표 5-8 ▮ 여행 프로젝트의 전반적 평가

번호	항 목	평 균
1	기존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2.80
2	여성정책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3.24
3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다	3.38
4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3.56
5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68
6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04

문항 중 ‘기존의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르면 여행 프로젝트 중 다수의 사업이 기존의 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5-9〉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3) 여성과 도시 공간

여성과 도시 공간과 관련된 문항은 도시 공간, 보행 및 통행권, 교통, 건강 및 식품안전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 영역별로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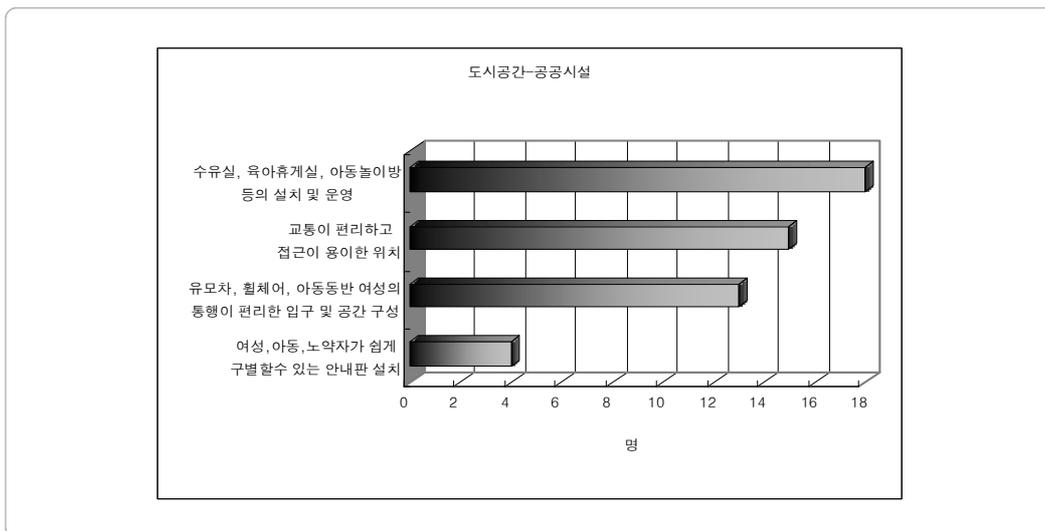
(1) 도시 공간

➤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요건으로는 응답자 중 18명(36%)이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가 15명(30%),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이 13명(26%)순이었다.

▣ 표 5-9 ▣ 도시공간-공공시설

구 분	응답수	비율(%)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18	36.0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5	30.0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	13	26.0
여성, 아동, 노약자 등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4	8.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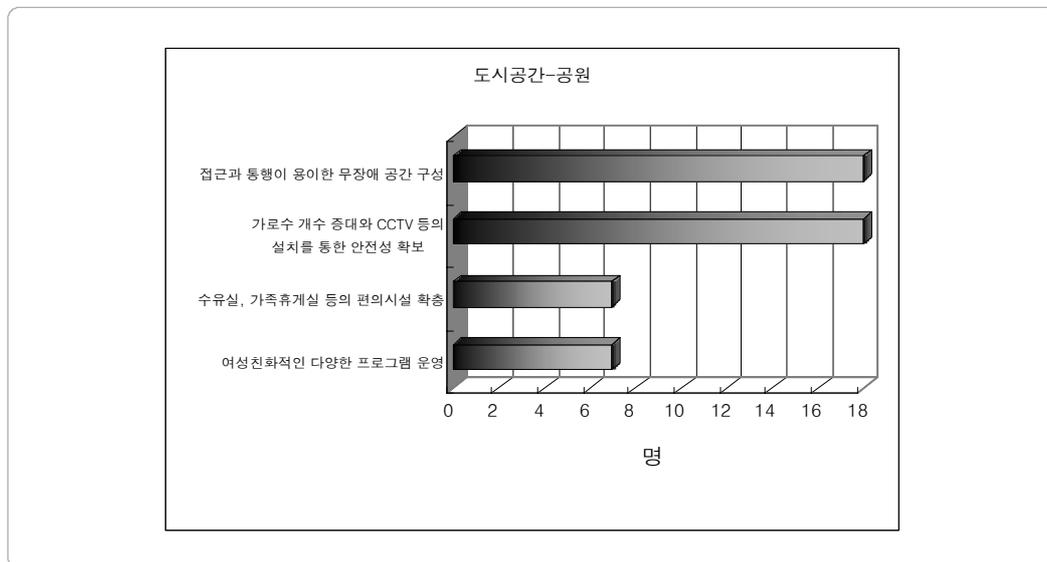
〈그림 5-10〉 도시공간-공공시설

➤ 공원

도시 공간 중 공원이 여성 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 구성’과 ‘가로수 개수 증대와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각각 18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수유실, 가족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라고 응답한 수는 각각 7명(14%)이다. 공원의 경우는 여성편의시설보다는 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증진하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5-10 ▣ 도시공간-공원

구분	응답수	비율(%)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 조성	18	36.0
가로수 개수 증대와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18	36.0
수유실, 가족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	7	14.0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7	14.0
합계	50	100.0



〈그림 5-11〉 도시공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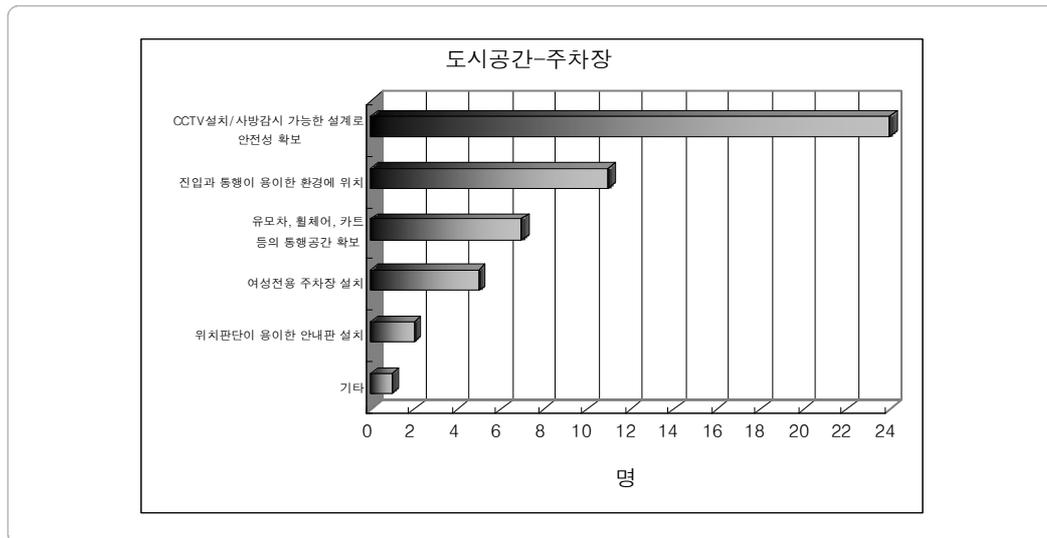
➤ 주차장

도시공간 중 주차장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응답자중 과반수에 가까운 24명(48%)이 'CCTV 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두 번째로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가 11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가 7명(14%) 순이었다. 여성 전용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10%로 낮았다.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친화적 주차장 요건으로 '안전성'이 중시된 반면 여성전용주차장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 프로젝트의 주차장 사업들이 여성우선주차 구역을 만드는데 치중하기보다 주차장 전반의 안전 설계 및 시설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게 한다.

▣ 표 5-11 ▣ 도시공간-주차장

구분	응답수	비율(%)
CCTV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24	48.0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	11	22.0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	7	14.0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5	10.0
주차장내 위치판단이 용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2	4.0
기타	1	2.0
합계	50	100.0



〈그림 5-12〉 도시공간-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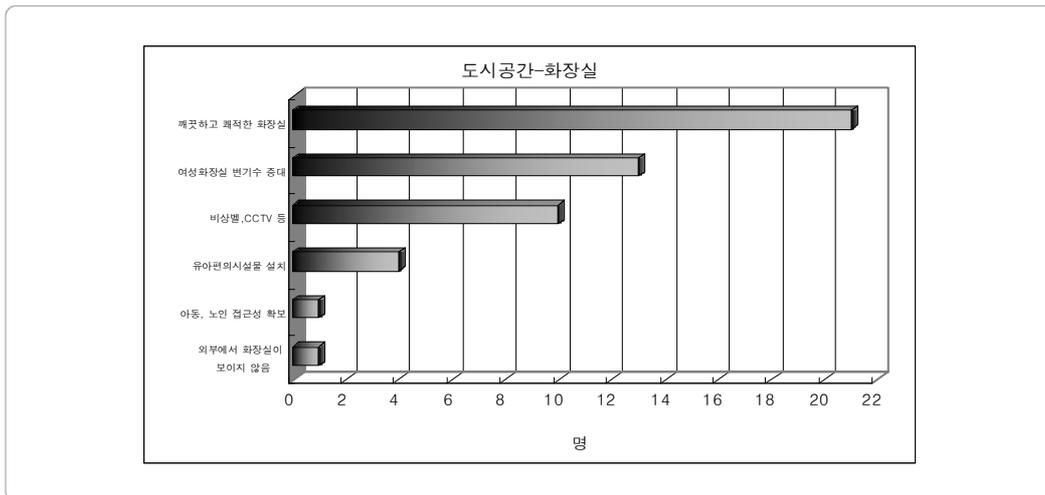
➤ 화장실

도시 공간 중 화장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21명,42%)가 꼽았다. 이어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대로 화장실 혼잡 방지'가 13명(26%),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이 10명(20%)을 차지하였다.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만들기가 여행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 화장실의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리체계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는 단시간 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표 5-12 ▣ 도시공간-화장실

구분	응답수	비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	21	42.0
여성화장실 변기수 증대로 화장실 혼잡 방지	13	26.0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비상벨,CCTV 설치)	10	20.0
유아용 세면대 및 변기, 기저귀 갈이대 등의 유아편의 시설 설치	4	8.0
아동, 노인 등의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확보	1	2.0
외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배치	1	2.0
합계	50	100.0



〈그림 5-13〉 도시공간-화장실

(2) 보행 및 통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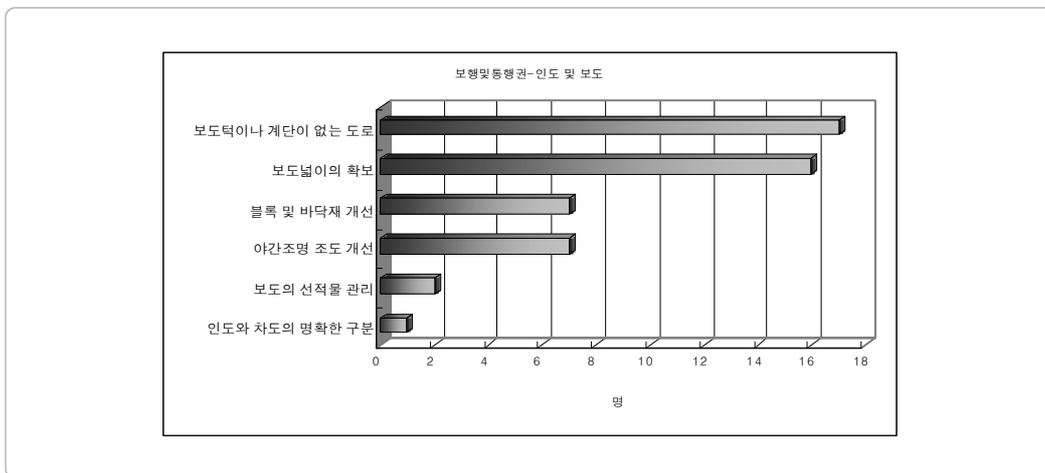
➤ 인도 및 보도

여성이 걷고 이동하기 편리한 인도 및 보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등이 각각 17명(34%), 16명(32%)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야간조명 조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로 여성 불안감 해소’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가 모두 7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턱이나 계단이 없고, 보도의 폭이 넓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여성 외에도 모든 시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행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표 5-13 ▣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구 분	응답수	비율(%)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17	34.0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	16	32.0
보행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블록 및 바닥재 사용	7	14.0
야간조명조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로 여성의 불안감 해소	7	14.0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	2	4.0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1	2.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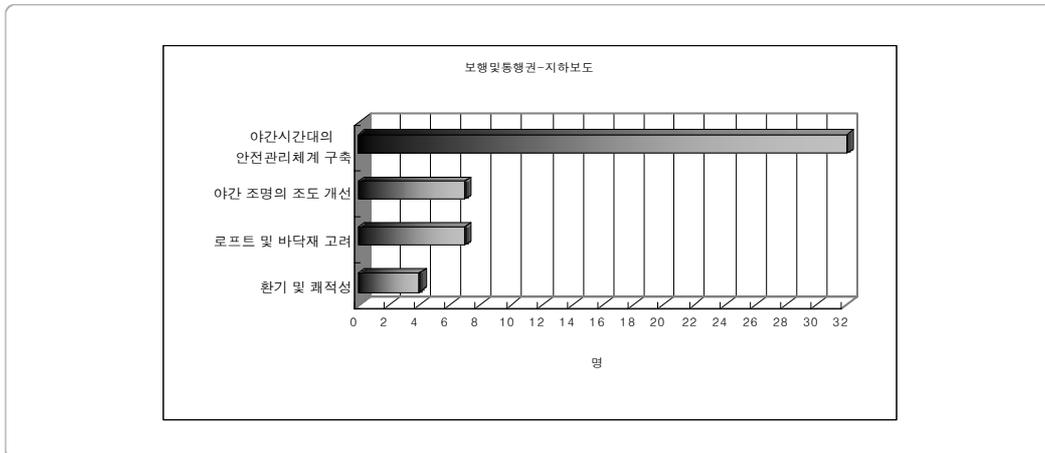
〈그림 5-14〉 보행 및 통행권-인도 및 보도

➤ 지하보도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보도가 갖춰야 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려 32명(64%)의 응답자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꼽아 지하보도의 야간시간대 안전 보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야간조명의 조도 개선’과 ‘유모차,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장치 및 바닥재 고려’가 모두 7명(14%)으로 나타났다.

▮ 표 5-14 ▮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구분	응답수	비율(%)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32	64.0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	7	14.0
유모차, 휠체어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 장치 및 바닥재 고려	7	14.0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한 쾌적성 확보	4	8.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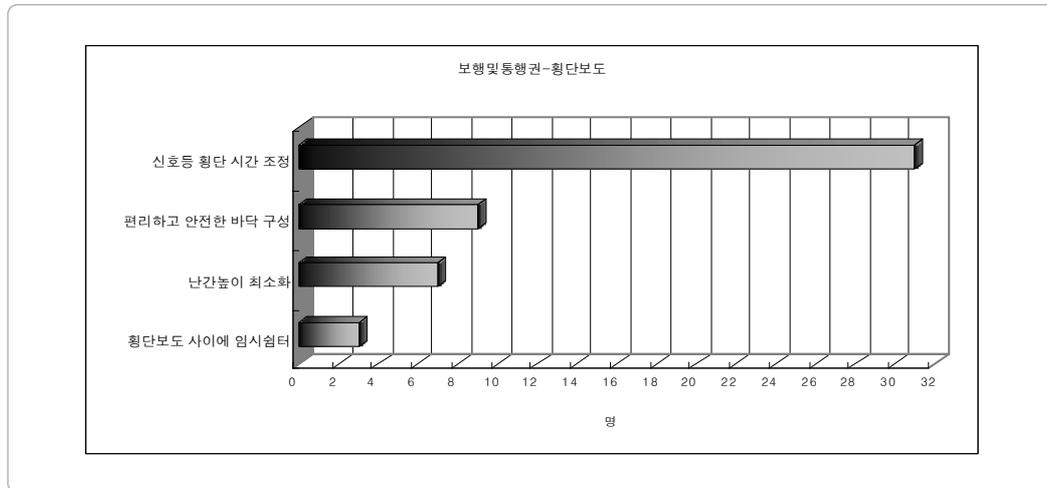
〈그림 5-15〉 보행 및 통행권-지하보도

➤ 횡단보도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의 영역 중 횡단보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체 62%에 해당하는 31명이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라고 응답하여 성/연령 등을 고루 배려하는 신호등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 구성'이 9명(18%),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가 7명(14%)으로 나타났다.

▣ 표 5-15 ▣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31	62.0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 구성	9	18.0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	7	14.0
횡단보도 사이에 임시선타 설치로 안전성 확보	3	6.0
합계	50	100.0



〈그림 5-16〉 보행 및 통행권-횡단보도

(3)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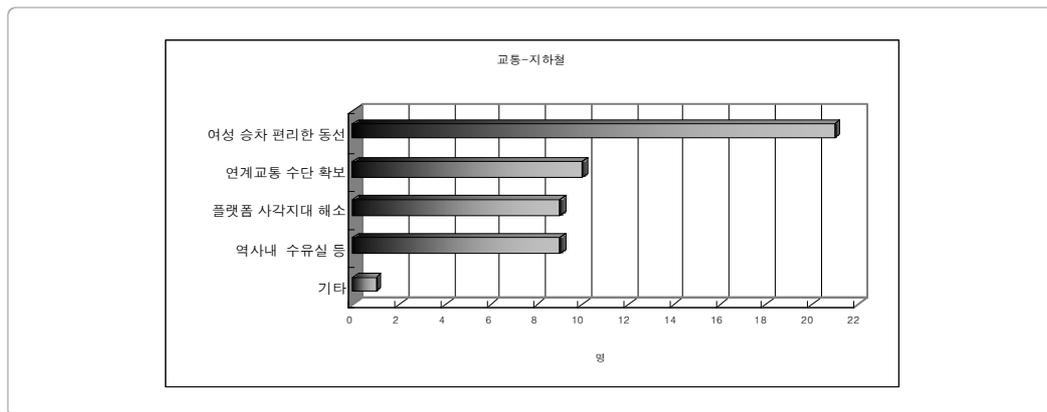
➤ 지하철

여성 친화적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체응답자의 42%에 해당하는 21명이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라고 답하였다.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라고 응답한 수가 10명(20%)이고,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과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 시설 운영의 활성화’라고 각각 9명(18%)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인들의 지하철 환승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 표 5-16 ▣ 교통-지하철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21	42.0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	10	20.0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	9	18.0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활성화	9	18.0
기타	1	2.0
합계	50	100.0

여행 프로젝트 지하철 사업은 지하철 역사 내 수유방 구비, 여성 화장실 변기 수 증대, 여성편의 시설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여행 프로젝트의 지하철 사업은 지하철 역사 설계 시부터 여성과 노인의 승하차, 환승이 편리한 동선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7〉 교통-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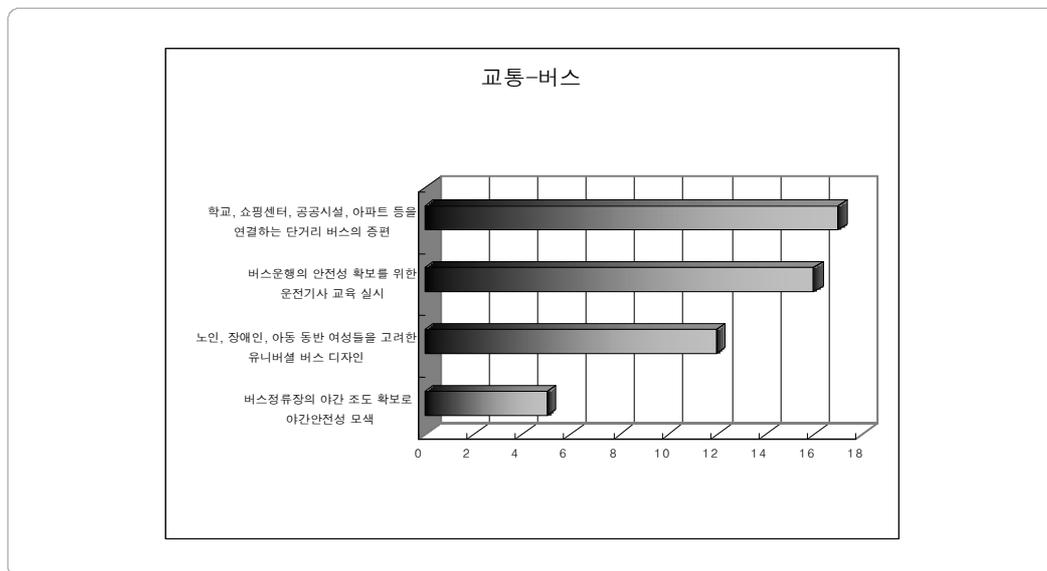
➤ 버스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과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가 각각 17명(34%), 16명(32%)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설 버스 디자인’이 12명(24%)으로 나타났다.

▣ 표 5-17 ▣ 교통-버스

구분	응답수	비율(%)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	17	34.0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	16	32.0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설 버스 디자인	12	24.0
버스정류장의 야간조도 확보로 야간 안전성 모색	5	10.0
합계	50	100.0

교통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하여 여성의 이동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



〈그림 5-18〉 교통-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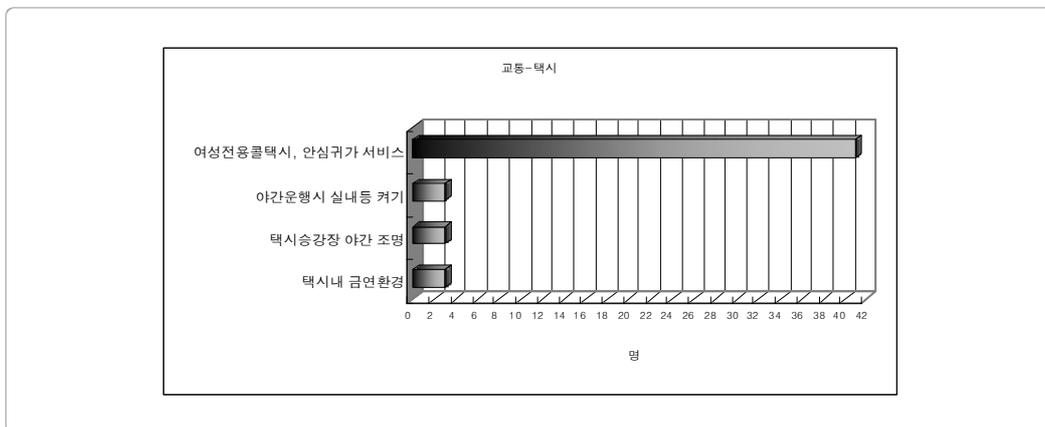
➤ 택시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무려 41명(82%)이 ‘여성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의 야간안전성 확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전용콜택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기사 확보 등 운영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야간 운행 시 실내조명 켜기 등으로 여성이용자 불안감 해소’, ‘택시승강장 접근용이성 및 야간 시 조명 조도 확보’, ‘택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이 모두 3명(6%)으로 나타났다.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주로 요구되었다면 택시의 경우는 안전성, 특히 심야시간대 이용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현안임을 알 수 있다.

▣ 표 5-18 ▣ 교통-택시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의 야간안전성 확보	41	82.0
야간운행시 실내조명등 켜기 등으로 여성이용자 불안감 해소	3	6.0
택시승강장의 접근용이성 및 야간시 조명 조도 확보	3	6.0
택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	3	6.0
합계	50	100.0



〈그림 5-19〉 교통-택시

(4)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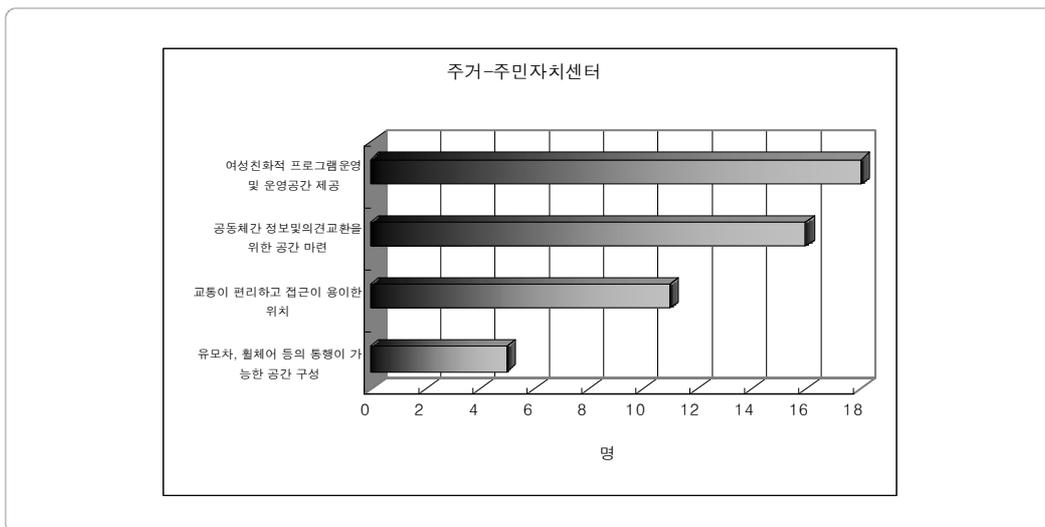
➤ 주민자치센터

여성 친화적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요건으로 18명(36%)이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공간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이 16명(32%),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1명(22%) 순이다. 여성 친화적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인 공간 및 위치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인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는 주거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에서는 뉴타운 등 새로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표 5-19 ▮ 주거-주민자치센터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공간 제공	18	36.0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	16	32.0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11	22.0
유모차, 휠체어 등의 동행이 가능한 공간 구성	5	10.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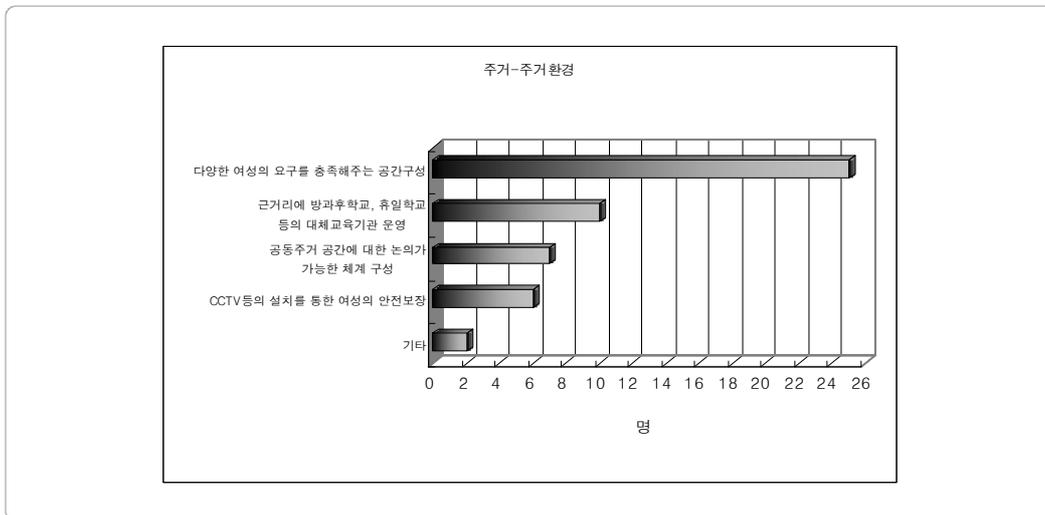
〈그림 5-20〉 주거-주민자치센터

➤ 주거 환경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과반수(25명, 50%)가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대체교육기관 운영’이 10명(20%), ‘공동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이 7명(14%),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이 6명(12%)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뉴타운 건설시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 5-20 ▣ 주거-주거환경

구분	응답수	비율(%)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	25	50.0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대체교육기관 운영	10	20.0
공동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계 구성	7	14.0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	6	12.0
기타	2	4.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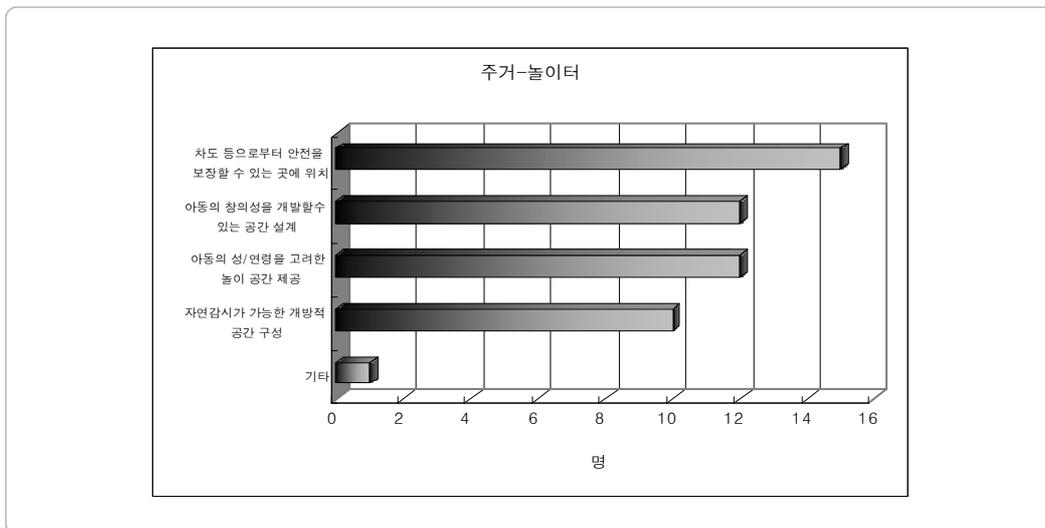
〈그림 5-21〉 주거-주거환경

➤ 놀이터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15명(30%)이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제시된 네 가지 보기를 비교적 고루 포함하고 있다. 기타로는 놀이터가 단순히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성과 연령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 5-21 ▣ 주거공간-놀이터

구 분	응답수	비율(%)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	15	30.0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	12	24.0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	12	24.0
자연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10	20.0
기타	1	2.0
합계	50	100.0



〈그림 5-22〉 주거공간-놀이터

(5) 건강 및 식품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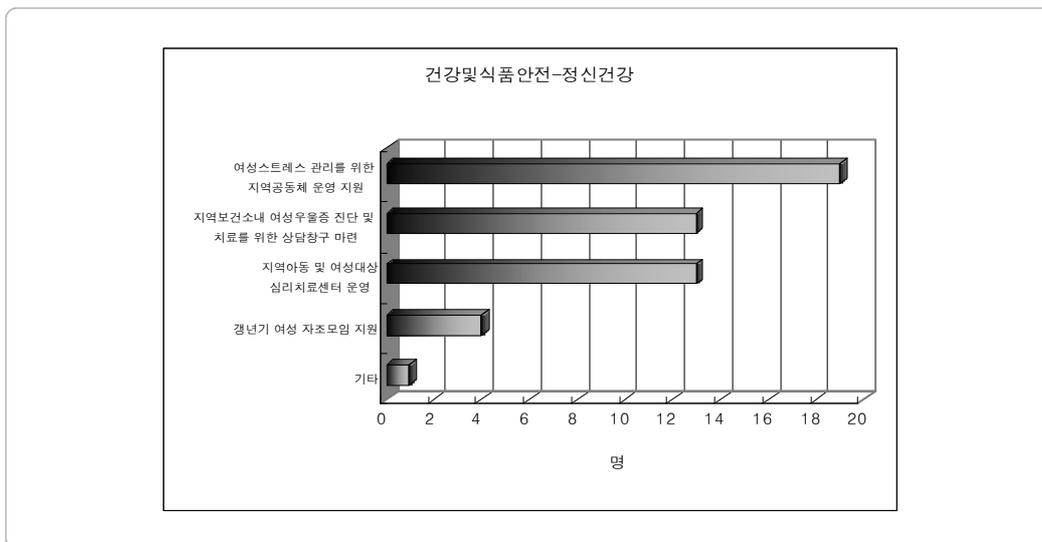
➢ 정신건강

여성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19명(38%)이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과 ‘지역 아동 및 여성대상 심리치료센터 운영’이 13명(26%)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치료 및 진단보다는 우울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접근(교육 및 강좌,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 건강 분야의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수요를 조사하였다.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에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2 ▣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19	38.0
지역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	13	26.0
지역 아동 및 여성대상 심리치료센터운영(지역내대학 심리상담소 연계)	13	26.0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지원	4	8.0
기타	1	2.0
합계	50	100



〈그림 5-23〉 건강 및 식품안전-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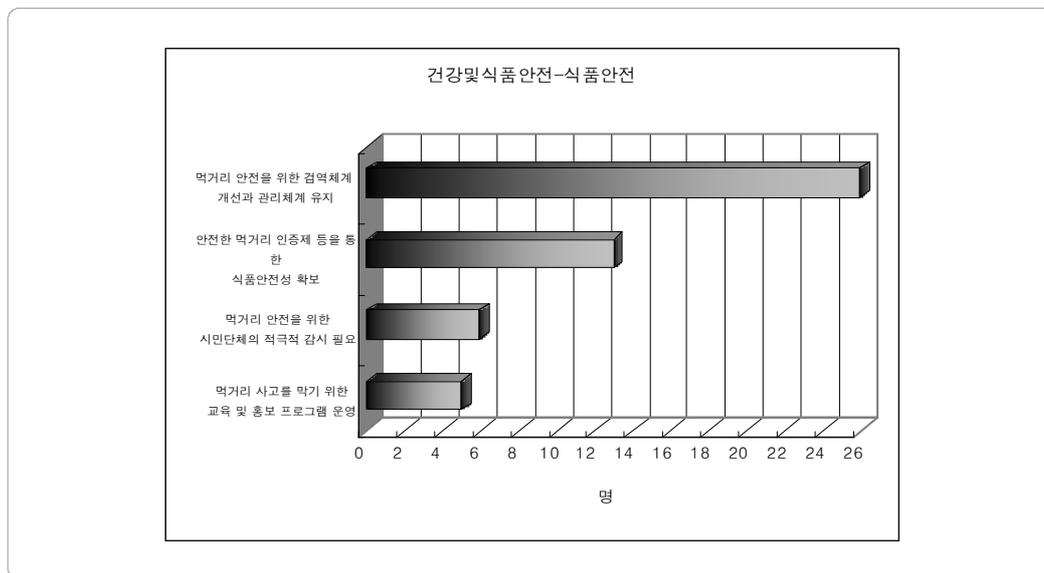
➤ 식품안전

식품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과반수의 응답자(26명,52%)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를 선택했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13명(26%)으로 뒤를 이었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가 6명(12%),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5명(10%) 순이다.

2008년 식품 안전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여성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압도적으로 지적하였다. 여행 프로젝트에서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표 5-23 ▣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구분	응답수	비율(%)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	26	52.0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13	26.0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	6	12.0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5	10.0
합계	50	100.0



〈그림 5-24〉 건강 및 식품안전-식품안전

4) 여행동반자 운영

(1) 여행동반자 인지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행동반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50명의 응답자 중 30명(60%)이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20명(40%)가 여행동반자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여행 동반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여행동반자 인지도

구분	응답수	비율(%)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있다	30	60.0
여행동반자에 대해 모르고 있다	20	40.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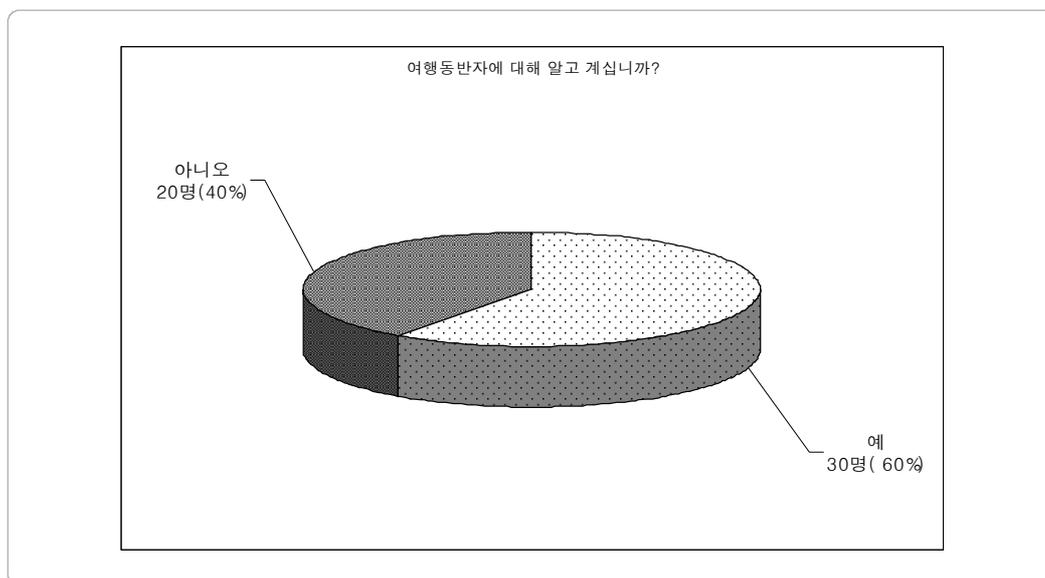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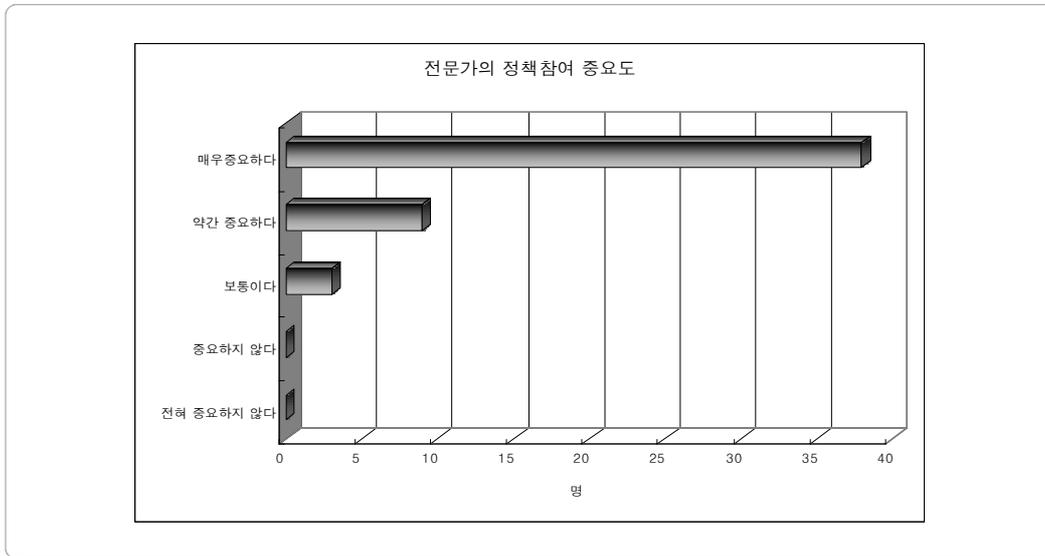
그림 5-25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여행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과정에 전문가참여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38명, 76%)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약간 중요하다'가 9명(18%), '보통'이라고 답변한 수가 3명(6%)로 모든 응답자가 전문가의 정책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정책 참여는 여성의 경험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에서 동반자단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표 5-25 ▣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구분	응답수	비율(%)
보통이다	3	6.0
약간 중요하다	9	18.0
매우 중요하다	38	76.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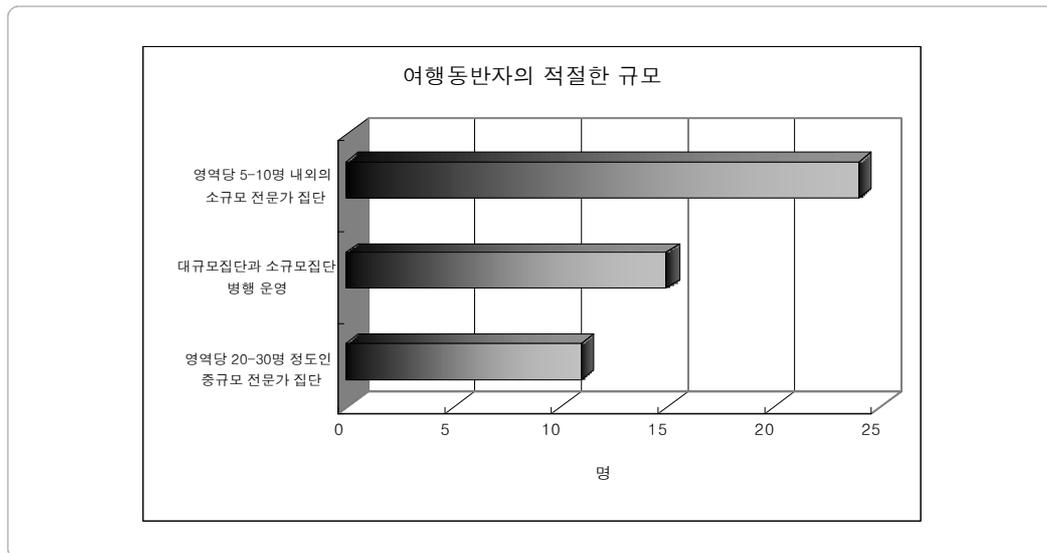
〈그림 5-26〉 전문가의 정책참여 중요도

(3)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모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영역당 5-10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이라고 응답한 수가 24명(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병행 운영’이 15명(30%), ‘영역당 20-30명 내외의 중규모 전문가 집단’이 11명(22%) 순이었다. 현재의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여행 동반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작은 소규모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표 5-26 ▣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구분	응답수	비율(%)
영역당 5-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	24	48.0
대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병행 운영	15	30.0
영역당 20-30명 내외의 중규모 전문가 집단	11	22.0
합계	50	100.0



〈그림 5-27〉 여행 동반자의 적절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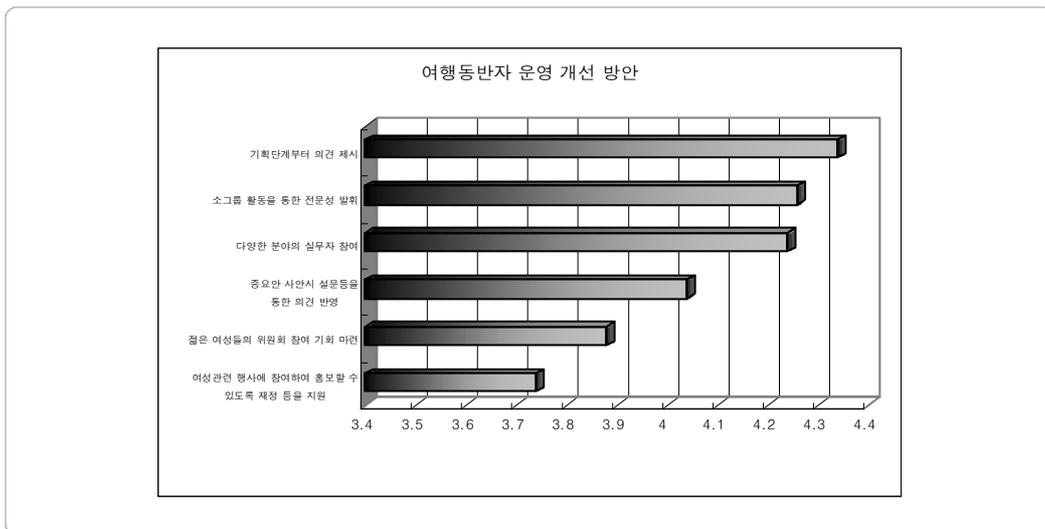
(4)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중요도 평가)

여행 동반자 운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문항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가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소그룹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가 4.26점으로 높게 나왔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가 4.24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4.04점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를 통해 여행 프로젝트 개별사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여성친화적 서울시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여행 동반자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 프로젝트 수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번호	항목	평균
1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	4.34
2	소그룹활동을 통해 담당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4.26
3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4.24
4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4.04
5	젊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3.88
6	여성관련 학술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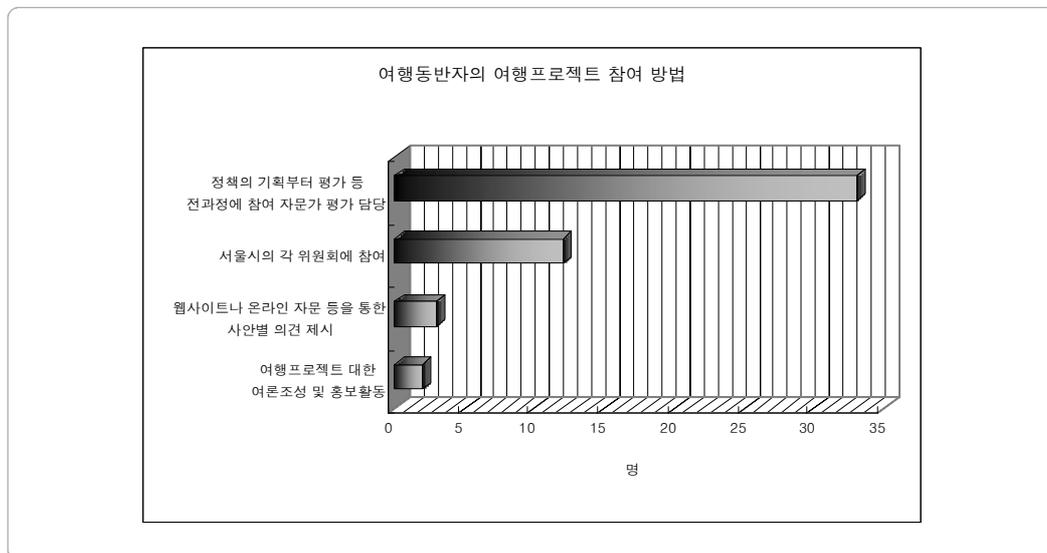
〈그림 5-28〉 여행 동반자 운영 개선 방안

(5)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33명(66%)이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가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선택한 방법은 '서울시의 각 위원회 등에 참여'로 12명(24%)이 응답하였다. 위의 여행 동반자의 운영 개선방안 평가문항의 결과와 비슷하게 여행 동반자가 장기적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표 5-28 ▮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구분	응답수	비율(%)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가 평가를 담당	33	66.0
서울시의 각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등에 참여	12	24.0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	3	6.0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 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2	4.0
합계	50	100.0



〈그림 5-29〉 여행 동반자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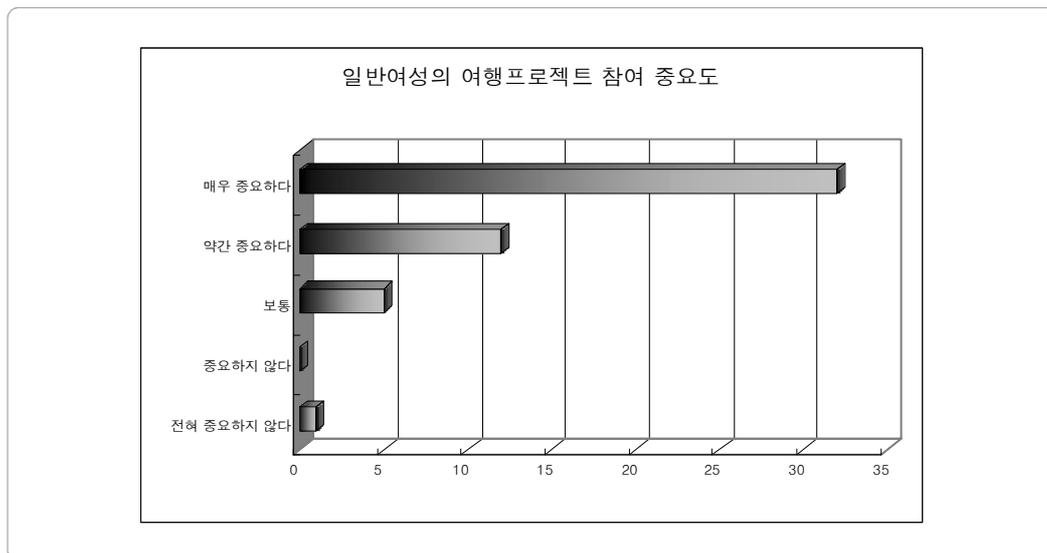
5) 여행 프로슈머 활동

(1)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여행 프로젝트의 일반여성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32명(64%)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약간 중요하다’가 12명(24%), ‘보통이다’가 5명(1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명(2%) 순이다. 여행 프로젝트에 전문가의 참여만큼이나 일반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표 5-29 】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구분	응답수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0
보통이다	5	10.0
약간 중요하다	12	24.0
매우 중요하다	32	64.0
합계	50	100.0



〈그림 5-30〉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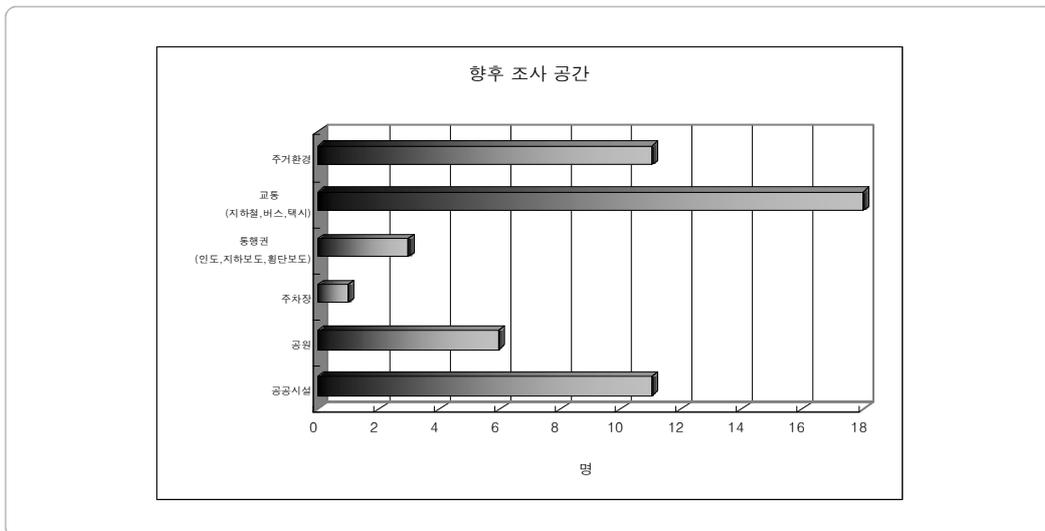
(2)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여행 프로슈머가 향후에 우선적으로 조사할 공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공간으로 18명(36%)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을 선택했다. 그리고 11명(22%)이 '공공시설'과 '주거환경'을 꼽았다. '공원'이 6명(12%),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도)'이 3명(6%), 주차장이 1명(2%) 순이었다. 향후 조사해야 할 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빈도가 높은 공간이 우선순위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여행 프로슈머 조사가 주차장, 화장실, 지하보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이용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과 관련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이나 공원 등의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조사 툴(tool)을 개발하여 다양한 여성 집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30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구분	응답수	비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18	36.0
공공시설	11	22.0
주거환경	11	22.0
공원	6	12.0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3	6.0
주차장	1	2.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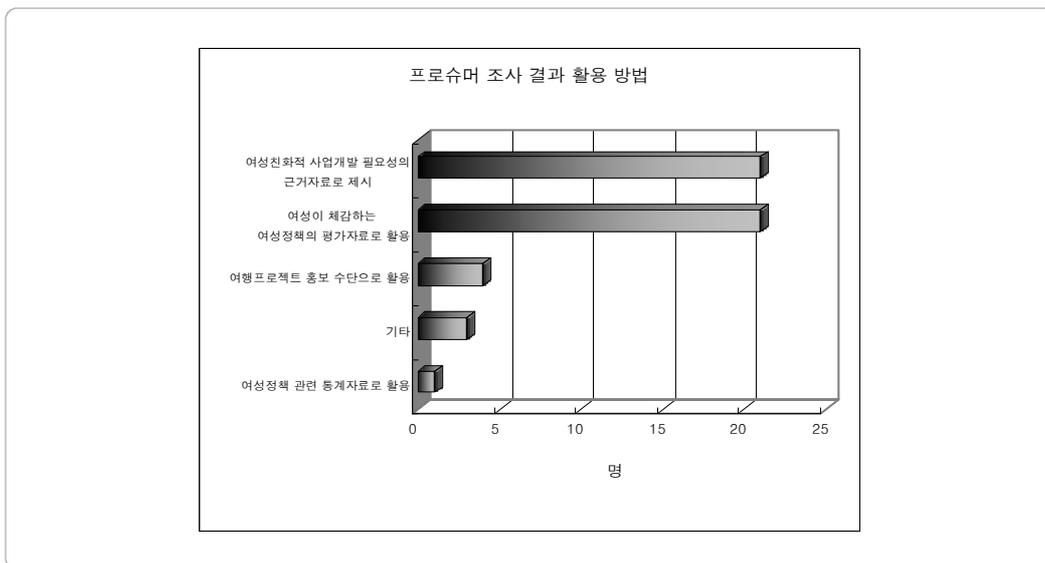
〈그림 5-31〉 여행 프로슈머의 향후 조사 공간

(3)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여행 프로슈머의 다양한 조사에 대한 결과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21명(42%)이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와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으로 응답하였다. 그 밖에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4명(8%), ‘여성정책 관련 통계 자료로 활용’이 1명(2%) 순이다.

▮ 표 5-31 ▮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 방법

구분	응답수	비율(%)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	21	42.0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	21	42.0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4	8.0
기타	3	6.0
여성정책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	1	2.0
합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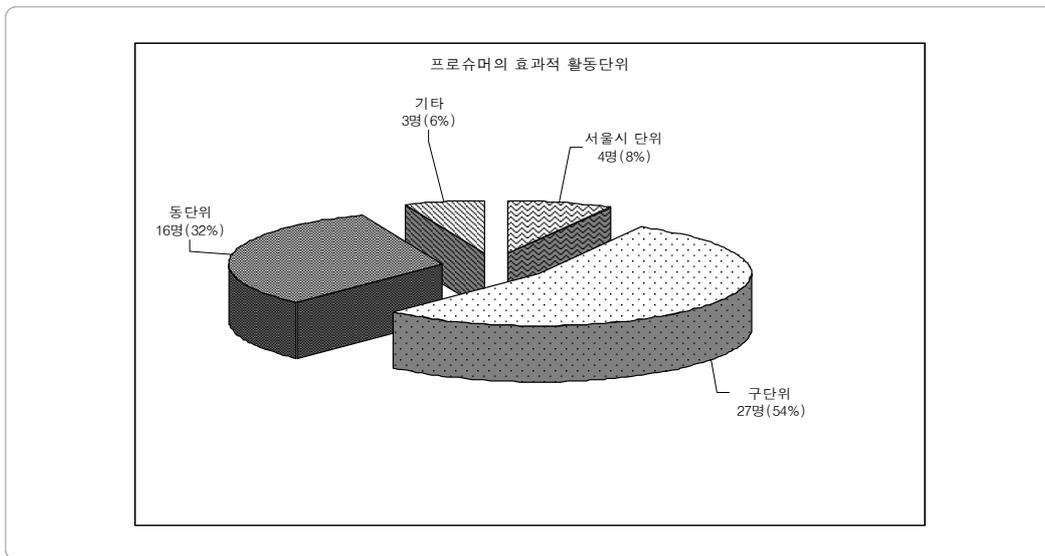
〈그림 5-32〉 프로슈머 조사결과 활용방법

(4)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단위

여행 프로슈머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27명, 54%)의 응답자가 '구 단위'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동 단위' 16명(32%), '시 단위' 4명(8%) 순이다. 기타로는 '구 단위는 범위가 크고 동 단위는 너무 세부적이므로 유사 생활권 즉 몇 개의 동을 묶은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슈머단은 조사 목적에 따라 시 전체, 구 또는 생활권역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5-32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구분	응답수	비율(%)
구 단위	27	54.0
동 단위	16	32.0
서울시 단위	4	8.0
기타	3	6.0
합계	50	100.0



〈그림 5-33〉 프로슈머의 효과적 활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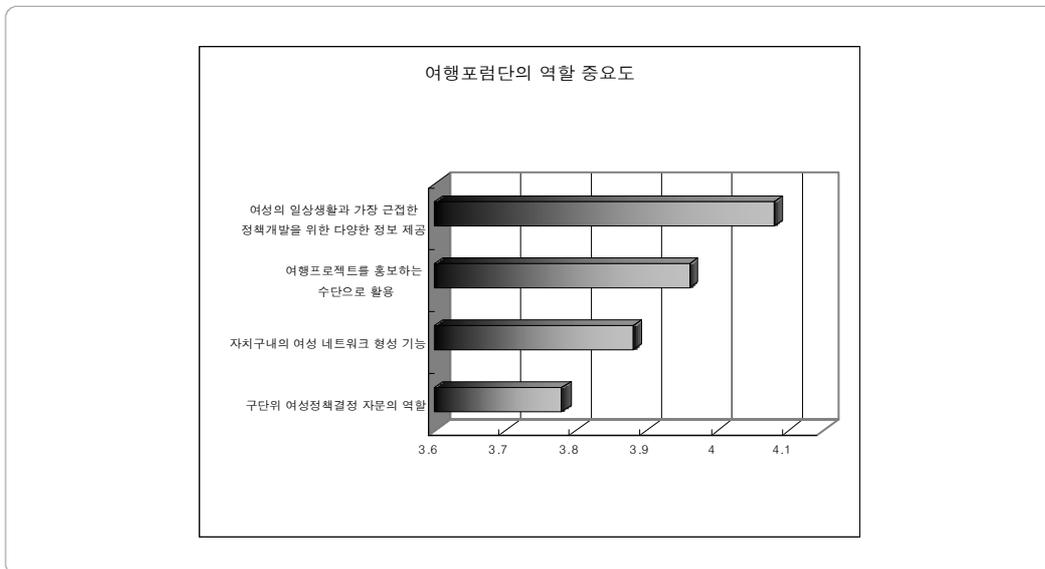
(5) 자치구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자치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포럼단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3.96점,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이 3.88점, ‘구 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이 3.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포럼단은 자치구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성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3 | 여행 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번호	항목	평균
1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4.08
2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3.96
3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	3.88
4	구 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3.78



〈그림 5-34〉 여행포럼단의 역할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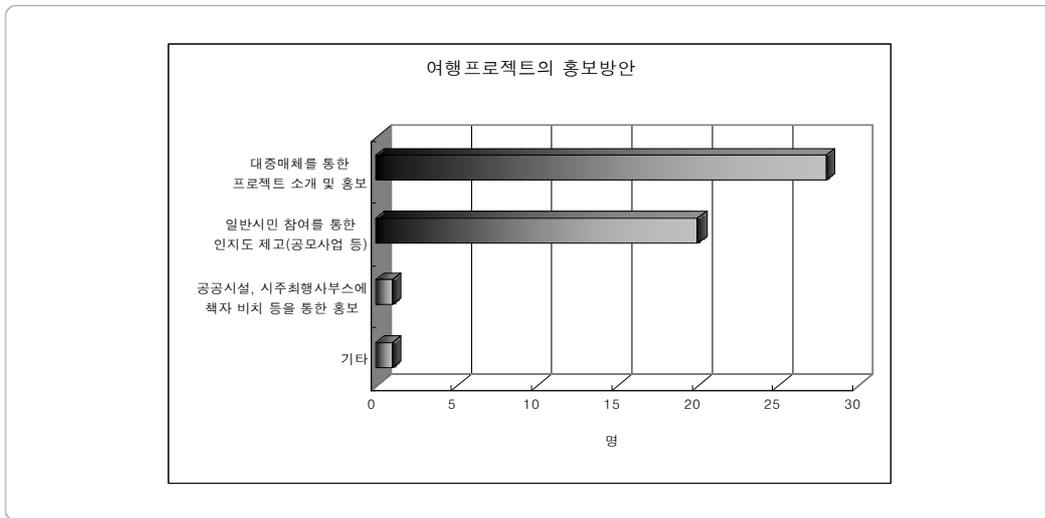
6)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1)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방안

여행 프로젝트가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과반수(28명, 56%)가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공모 사업 등)'가 20명(40%)으로 많았다. 기타로는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여성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 5-34 ▣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방안

구분	응답수	비율(%)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	28	56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공모 사업 등)	20	40
공공시설, 시 주최 주요 행사 부스에 책자 비치 등을 통한 홍보	1	2.0
기타	1	2.0
합계	50	100.0



〈그림 5-35〉 여행 프로젝트의 효과적 홍보 방안

(2)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은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여행

프로젝트 평가, 동반자 운영, 신규사업 제안, 홍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영역 별로 중복되거나 또는 수위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들이 있기는 하나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응답들이 많았다.

전문가 의견 중 여행 프로젝트가 중단기 목적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 외에도 삶의 질적인 측면들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것, 상시적으로 일반 대중 여성들의 삶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사업 별로 정책 효과 및 예산 투입, 여성의 정책 수요 반영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5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구분	발 전 방 안
여행 프로젝트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 목적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서울신청사, 용산랜드마크 사업 등 신규사업에 적극 개입 - 아이돌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기존의 아이돌봄=어머니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사업 및 홍보가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의 저임금화가 문제, 여성 자신이 경제활동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 - 여행사업에 독자적인 브랜드를 선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행 프로젝트를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선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서울시 정책 전반에 여성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필요 - 사업이 주로 기혼/육아를 하는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음. 미혼여성 및 노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임 -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보장되어야 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여성의 편리함 추구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어필하고 있음. 이와 함께 여성들의 정신적인 삶, 삶에 있어서의 욕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여행 프로젝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여성들의 욕구와 필요를 주기적/체계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예산투여 비중에 따른 평가 필요 - 사업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한 프로젝트의 발전 모색 필요 - 환류와 실사를 높은 비중으로 하는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
신규 정책 및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층 여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저소득 취약여성의 문화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전시회 및 관람 등에 여성, 어린이, 한부모 동반 가정 우대 제도 필요 - 저소득층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여행 프로젝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프로젝트가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일상적 홍보 강화 필요 - 기존의 광고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를 소개하는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진행 후 나타날 효과를 알리는 홍보 방식이 필요 - 여행의 인지도 확산과 서울여성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터넷 여행 사이트 운영 필요
여행동반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의 별도 그룹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에 관한 feedback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자문단과 운영단의 효과적 연계 필요 - 동반자 규모를 축소하고 기능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자문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영역별 제안 사항 및 사업

전문가 조사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여행 프로젝트의 5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응답들 중 발전방안에 포함된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하나 앞으로 여행 프로젝트에서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노인여성에 대한 복지 증진, 일/가족 양립 지원 강화, 학력 별, 연령별, 계층별 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제고, 여성들의 문화향수권 제고 및 여가 증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및 먹거리 안전 확보, 생태환경보전 관련 사업 등의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표 5-36 여행 프로젝트의 영역별 사업 제안

영역	제안 사항 및 사업
돌보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이상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 -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온/오프 라인 모임 구성(수다 모임 등) - 여행 프로젝트를 기업사회공헌사업과 연계(시,자치구 중심으로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 여성노인의 노인정 공간 확보 등 노인층에 대한 복지 강화 프로그램 필요 - 여성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겨울 생계비 지원등의 지원과제 발굴
일있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돌봄노동을 유급화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개, 상담 기구 활성화 -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 필요 - 대졸여성의 취업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넉넉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 프로그램 필요(인터넷 예약시 할인혜택 등) - 서울시 문화기금의 성인지적 활용계획 및 점검 제도화 - 여성의 여가활용에 대한 조사 필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가활용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의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안전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 심야 및 새벽에 여성이 안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가칭 '안심공간'을 확보명시하고 관리하여 안심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필요 - 생태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서울시에서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편리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배출 공간 부족,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여성친화적인 공간 및 환경 조성 필요

7) 소결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조사는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의와 평가,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구축, 전문가와 일반여성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를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더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이며 잘되는 영역은 편리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 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질문한 결과 공공시설은 유아편의시설 설치, 공원은 접근성과 안전성 제고, 주차장의 CCTV 설치, 화장실 쾌적성 증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보행 및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유모차, 동반아동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지하보도의 경우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횡단보도는 여성 및 아동, 노인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과 관련된 수요로는 지하철은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확보가 필요하고, 버스는 여성의 이동이 많은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과 안전한 버스 운영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택시는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전용콜택시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여성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공간 제공과 근거리 방과 후 학교, 휴일학교 등의 대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아이들 놀이터는 안전성, 특히 차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식품 구입을 보장하는 감시관리체계의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여행 프로젝트는 영역별로는 '일있는 서울'과 '돌보는 서울'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구축과 여성의 안전,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 활성화와 여성의 경험 반영을 위해 전문가와 일반 여성의 정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반자와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

동과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여행 사업에 있어 전문가 자문과 일반 여성의 조사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참여는 5~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책 초기부터 시행단계, 평가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여성들의 참여 조직은 자치구 단위 혹은 생활권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통과 관련된 조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현재까지 수행해 온 여행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앞으로 2년간 여행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W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VI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1. 여행 사업 전반 발전방안

1) 대표 사업 발굴 및 확산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다. 여행동반자 그룹의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먼저 여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과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질적,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여성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한다.

새로운 사업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사업들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화장실, 주차장 사업을 들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과제 제안」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여행 사업 중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화장실 개선 사업이나 주차장, 보도 개선 사업을 「女幸 화장실」, 「女幸 안심 주차장」, 「女幸 길」 등의 브랜드화 하고 각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이를 갖춘 시설을 인증하는 것이다.

화장실의 예를 들면 남녀 변기수 비율 1: 1.5, 유아동반용 편의시설 설치, 여성편의시설 설치, 청결도, 비상벨 설치, 문틈새 간격 최소화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기존의 시설이나 신규 시설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면 여행 화장실로 인증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브랜드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파편적으로 시행하던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확산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하고 시민의 여행 사업 체감도도 높일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 다섯 개 영역 중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충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 및 환류체계 개발

여행 프로젝트가 서울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서울 여성의 삶의 질 변화, 서울 여성의 도시 생활 만족도, 여행 프로젝트 전반과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여행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평가계획 및 평가방법을 결정할 '여행 프로젝트 평가준비위원회(가칭)'이 조직한다. 평가준비위원회는 여성, 복지, 경제, 도시계획, 교통, 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직한다. 평가준비위원회에서는 서울여성 관련 통계, 도시·교통·건축 관련 계획, 여행 프로젝트 전반,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세부사업 등을 고루 분석하여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개발된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여행 프로젝트 전반과 여행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7:3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질적 평가는 각 분야에 추천된 5명 정도의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일 년에 한번 연말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중간과 종료 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각 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환류의 방법은 시정 조치와 같은 처분의 방법이 아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와 환류에는 일반 여성시민 조직인 프로슈머단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여행 프로젝트관련 성인지 교육의 확대

서울이 여성의 적극적 사회 기여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의 성인지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성인지적 사고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존에 수행해왔던 도시계획 및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의 성인지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여성정책, 도시 계획 등을 최초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결정과 판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경제·복지·문화·도시계획·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수행의 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교통 분야의 경우, 한번 계획되고 실행되면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실제 생활에 밀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해 앞으로 건설되고 운행될 도로, 보도, 대중교통 수단 운행, 교통 체계 등은 다양한 여성들의 신체조건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시 및 교통 계획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위해 여성 건축·교통·도시계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유망한 여성 건축인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발굴하여 해외공모전이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학과 및 도시계획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여행(女幸) 건축 대상 공모(가칭)’ 사업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 건축 및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유망한 미래의 여성 건축인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발굴·지원하도록 한다.

4) 여행 프로젝트의 국내외 교류 강화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국내외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좁게는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 넓게는 국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비단 서울시의 여성 및 도시 정책의 주제가 아닌 나라를 초월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주제이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국내의 자치단체, 국외의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에서 여행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독자적 지역 여성 정책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타 시도의 지역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교류를 확대하면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도시 혹은 지역과의 교류 강화와 아울러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 정책의 성주류화는 이미 세계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여행 사업 기획 시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였던 경험이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도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면서 도시 정책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약 250개의 단체는 <주거여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있다. 사람과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 및 북유럽 국가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여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여성 정책의 국제교류는 선진도시와 개발도상국 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교류는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사업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사업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 도로, 환경, 교통, 도시개발의 영역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개발하되 공유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여성 친화적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해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인프라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도시공간', '도시의 여성정책', '여성친화적 도시·교통 계획' 등의 범국가적 주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서울이 되어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의 국제행사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등의 국제적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UN HABITAT 등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포럼에 참여하여 여행 사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국제 교류 방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행 사업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적으로 여행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 사업 내용들과 여행 프로젝트 기획에서 추진 과정의 경험들을 영역하고 이 자료들을 영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홍보 및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도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도시 간 성인지적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자들을 서울로 초대하여 여행 사업 투어를 하거나 서울시의 도시 정책 담당자들이 해외 사례를 방문 조사하는 것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여행 프로젝트의 홍보 방안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일반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여행 프로젝트가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응답자의 56%가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라고 답하였고 40%가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라고 답하였다. 현재 TV, 인터넷 매체, 지하철 및 버스 등의 옥내·외 광고 등을 통해 여행 프로젝트가 홍보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여행 프로젝트 광고가 신선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며 투입 예산에 비해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회적인 TV 광고나 가시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광고판 등을 지양하고 보육문제, 여성 취업 문제, 여성과 도시 공간 문제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대중매체에 여행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대중매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모차에 자녀를 태운 여성이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도보로 혹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을 밀착 취재한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이 '여성과 도시공간'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지켜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여행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 프로젝트의 각 분야별 신규 사업이나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여행 프로젝트의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발전 방안

기존의 도시는 주로 남성 도시설계자와 개발자들의 시각에서 설계되고 시공되었다. 대부분의 도시거주자나 도시설계자 및 개발자들은 도시가 성차별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특정한 성별, 정상신체의, 아이가 없는 노동자 남성을 기준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여성에게 보다 불편하고 위험하며 차별적인 공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서울시의 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정책의 방향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응답한 총 2,444명 중 남성이 1,067명, 여성이 1,377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61%, 여성이 77.4%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공간은 공중화장실(67.4%), 대중교통(36.6%), 운전·주차(35.8%), 보육시설(29.4%), 보도통행(18.3%)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생활에 대한 불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6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5.0%, 여성이 65.6%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07, 인터넷 조사 결과).

이처럼 도시공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중립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성과 연령, 그리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의 영역을 크게 도시 공간, 보행 및 통행권, 교통, 주거, 건강 및 식품안전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을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세부영역이 여성 친화적 공간 및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시공간

(1)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 시설, 공립학교 및 병원 등이 있다.

이렇듯 공공시설은 공공의 편리한 목적으로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공공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동반하는 여성들에게 공공건물의 난간이나 턱은 불편함으로 다가 온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으나, 여성들이 업무를 보는 동안 자녀를 잠시 맡아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캐나다의 경우 공공건물 코너에 건물 가장자리 높이를 조절하거나 계단을 없애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여성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자녀 동반 여성의 공공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 등의 육아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공공시설에서 업무를 보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동안 동반 자녀의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담당 인력의 배치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공공시설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아동동반 여성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 육아휴게실, 아동놀이방의 설치 및 운영'을 꼽았다. 서울시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수유실 및 휴게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어린이 놀이방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여행 프로젝트의 개선방안으로 내놓은바 있다. 이처럼 공공문화시설에 한정되었던 자녀 동반 여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이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여성친화적 공간 구성

여성인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로운 입구와 공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공공시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위치해 있는 공공시설의 이동이 어려운 시에는 주거지역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단거리 순환 버스를 운행하거나 자세한 안내판의 설치로 공공시설을 찾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모차 및 휠체어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하는 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입구의 턱을 없애고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동반이 용이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 중에 있는 공공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여성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원

도시생활자에 있어서 공원은 도심 속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공원 또한 다양한 성과 연령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할 공간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공원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시공원이 언제나 여성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무장애 공간 구성 및 야간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여성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할 때가 많다. 동시에 동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빈도 또한 높다. 이러한 이동 수단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 입구의 턱 및 산책로의 난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산책로 등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자전거 등에 유모차나 휠체어 동반 여성의 통행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로수 개수 증대, 공원 곳곳에 비상벨 설치 등의 지원과 함께 야간안전요원 등의 배치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전요원의 배치 등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울 시 인근 여성주민들로 자율적으로 조직된 여성자원 안전요원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여성편의시설의 운영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실제로 여성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어린 자녀의 수유나 기저귀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공원을 중심으로 수유실 및 가족휴게실이 운영되고 있다. 공원 내 여성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 초기 공간 구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평가 등을 통해 지적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원 곳곳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유모차 등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대여서비스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대여를 위해서는 입구와 떨어진 건물 등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설 및 장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원 내 여성편의시설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원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새벽이나 일몰 후 요가나 에어로빅 강습 등의 여성 건강 단련 프로그램이나 자녀와 함께 하는 야생화 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이 공원이라는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차장

2007년에 있었던 프로슈머 결과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 여성 중 61.9%가 위험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75.2%의 여성이 여성전용주차장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48%가 주차장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CCTV 설치 및 사방 감시 가능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를 들어 여성친화적 주차장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사항이 안전성임을 알 수 있었다. 주차장이 여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의 안전성 확보

주차장내에서 여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내 조명 개선, 근거리에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차장 내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여성이 주차장을 위험을 느끼는 장소가 아닌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의 재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향후에 주차장을 계획할 때에는 설계 당시부터 여성전용주차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방감시가 가능한 트인 공간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도 여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제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가족친화적 주차장 구성

자녀 및 노인을 동반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족친화적 주차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차장은 최소한의 공간에 가능한 최대한의 차를 주차하는 기능을 우선시했다. 이 때문에 주차 후 이동하는 동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차장 내에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하

는 여성들을 위해서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분배가 필요하다. 또 주차장 공간 내에 노약자 및 아동이 잠시 대기 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화장실

프로슈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청결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심야시간대 화장실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의식 높았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위치가 외지지 않을 것, 비상벨을 칸마다 설치할 것, 견고한 문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여성친화적 화장실을 위한 주요요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해 프로슈머 조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화장실 변기 수 증대와 안전성 확보 등이 그 뒤를 이어 많은 수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주요 공용화장실이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클린 화장실 체계 마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 단위로 화장실의 청결과 쾌적성을 점검하여 부족한 사항에 있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상담전화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 실시

여성들이 야간시간대에도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화장실 입구에 CCTV 설치, 화장실 내에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 설치의 확대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입구의 CCTV를 감시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완전 봉쇄하도록 한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입구에 CCTV가 실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고 비상시 취해 할 행동을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여성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안전장치의 설치, 전담인력의 배치, 사고율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안전한 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각 기관이 인지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복합적 여성 전용 공간으로 구성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긴 여성을 배려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장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조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남성화장실 대비 여성화장실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한다. 신규로 계획되거나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 기능에 여성간이휴게실, 파우더룸 등의 설치로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 여성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같이대, 유아용 세면대 및 변기 등의 유아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녀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 보행 및 통행권

(1) 인도 및 보도

편리한 보도란 성인 두 사람이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수치를 나타내면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 아래 2m 정도의 공간이다. 여성은 자녀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노인을 부축하여 병원 등에 함께 가야 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아동이나 노인을 동반하고(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고) 도보로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인도 및 보도가 여성이 걷고 이동하기 편리한 공간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도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공간 구성’과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를 대다수의 응답자가 꼽았다. 해외연구와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 및 인도가 여성을 걸기에 편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 여성친화적 인도 및 보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여성들이 걷기 편리하고 안전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도 및 보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보도 및 인도의 심도 깊은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조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최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적 조사로는 인도 및 보도를 이용하는 여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질적 조사로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아동동반, 휠체어 사용, 유모차 동반, 노인 동반, 시장바구니 등의 짐을 수반)등을 체험하게 한 후에 각 상황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등을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친화적 인도 및 보도의 기준을 개

말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한다.

➤ 평등한 인도 및 보도 만들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턱이나 계단이 없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동반자녀, 또는 유모차 및 휠체어가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보도의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위한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평등한 인도 및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보행 방해 요인과 위에서 언급했던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단 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도 및 보도의 개보수 공사 일정과 방법을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하보도

프로슈머 조사결과 지하보도에 비상벨 설치, 노숙인 및 취객 관리, CCTV 설치, 조명 개선 등을 바라는 의견이 많아 주로 지하보도의 안전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답해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보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지하보도의 존폐여부 결정을 위한 환경 조사 실시

안전문제나 위생문제 등으로 지하보도의 폐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친화적 지하보도에 대한 방안을 논하는 것에는 찬반의 의견이 있다. 그러므로 시차원에서 지하보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보도를 폐쇄할 경우 가까운 횡단보도나 육교 등의 위치 및 거리 등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폐쇄할 지하보도와 계속 유지할 지하보도를 선택하고 차후 각각의 이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야간시간대 지하보도의 안전성 확보

위의 환경조사를 통해 유지할 지하보도 및 폐쇄 전까지 관리해야 할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명의 조도를 개선하고, CCTV 설치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CCTV설치의 경우 각각의 지하보도의

CCTV를 전담하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서울시 지하보도 CCTV를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각 지하보도에 사고가 있을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락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지하보도의 재탄생: 문화소통공간

보통 지하보도는 어둡고, 청결치 못하며, 위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지하보도는 여성에게 두렵고 위험한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제 위험하고 두려웠던 그 공간을 여성들의 문화소통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고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하보도라는 공간을 여성예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곳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보도의 벽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형태로 바뀌서 야간시간대에도 전시가 가능하게 하며 원래의 지하도 조명과 작품의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보다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지하보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소통공간 외에도 여성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제제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여성주의 장터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횡단보도

도시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동 양식 연구에서 보면 여성은 도시지역에서 남성보다 더 자주, 더 짧게 여러 번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이동은 주로 재생산노동, 육아 및 부모 돌봄과 같은 가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여 주로 도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녀, 유모차, 휠체어를 동반하고 도보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이다. 신호등의 횡단시간에 맞춰 길을 건너야 하는 문제, 차도와 인도사이의 난간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여성의 보행 및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여성, 노인,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이라고 답해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동시 반드시 만나야 하는 횡단보도가 여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신호등 횡단 시간 조정

신호등의 녹색불 점등 시간(차가 멈추고 사람이 건너는 시간)을 노인, 아동, 여성의 보

폭을 고려해서 연장해야 한다. 녹색불의 점등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보폭이 짧은 아동, 여성, 이동이 느린 노인들은 급하게 뛰어야만 길을 건널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인 동시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다양한 신체조건과 상황에 있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신호등의 녹색불 점등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호등의 점등 시간의 조정은 교통의 혼잡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신호등은 주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최대한의 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도로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신체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도로 건설 및 신호 체계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 여성친화적 난간 설계

여성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난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인도와 차도사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녀, 유모차, 휠체어 등을 동반하는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난간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난간 높이를 낮췄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난간의 높이를 유지하되 한쪽 공간을 할애하여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통행에 편리한 바닥재 구성

정해진 시간에 횡단보도를 편리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의 선택도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횡단보도의 바닥재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지만 간혹 인사동이나 청계천 같은 테마 거리에는 요철이 심한 돌바닥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구성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리의 경우 횡단보도 부분에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편리한 바닥재로 교체하는 등의 유연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3) 교통

(1) 지하철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중 지하철에서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젠더와 교통수단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과밀(지하철이 사람들로 밀리

는 현상)에 대한 반감이 높으며, 안전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았다. 이는 지하철이 과밀한 경우 여성들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야간시간대 등에는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탑승객이 200%에 육박할 정도로 붐비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편리하고 안전한 탑승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전용공간을 따로 배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친화적 지하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 여성친화적 지하철 설계 및 운행의 제도화

지하철의 동선 및 설계가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의 넓은 간격은 아동과 유모차 등을 동반하는 여성, 치마를 입은 여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폭이 작은 여성에게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은 성과 연령 등 다양한 이용자의 환경을 분석하여 대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지하철은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과밀한 지하철에서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 등이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여성편의시설 수요 조사 실시 및 운영 활성화

지하철과 역사를 포함한 공간에 다양한 여성편의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부 지하철역사에 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공간 부족으로 역장실과 같은 곳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관리 인력이 없어서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의 여성사용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이고,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 등을 조사하여 이를 실제 사업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독립된 공간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수유실과 같은 여성편의시설은 분기마다 운영과 관리 사항을 평가하여 해당 역의 경영 및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 버스

젠더와 교통수단의 관계성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남성과 여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용시간,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다르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이 라이프 스타일, 일상 활동, 욕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많고, 자녀와 노인을 돌보는 빈도가 남성보다 높으며,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등의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남성들은 러시아워 시간에 중심부 도로를 지나 일터로 직행하는 반면 여성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여러 번에 걸쳐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버스는 여성들이 단시간, 여러 번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여성친화적 교통수단이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젠더 관점의 교통수단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동네 여행 단거리 버스 운행

여성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문가들은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을 꼽았다. 이동을 동반하고 유모차, 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각종 짐을 들고 ‘걷기’에는 멀고 ‘장거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워 교통비용이 높게 드는 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의 효율적 운행이 필요하다. 효율적 단거리 버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단거리 버스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운행지와 배차 시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도보로 주거지로 향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운행지점이 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점이 될 수 있게 계획하도록 한다.

한 예로 캐나다 몬트리올의 “Between Two Stop”는 밤에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에 가까운 장소까지 태워주는 버스시스템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이용객은 안전을 도모하며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간에는 여성의 편리한 동선 이동을 위한 효율적 단거리 버스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동네 여행(女幸) 단거리 버스의 운행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

➤ 성인지적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디자인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이 바로 운전을 담당하는 주체인 운전기사의 성인지적 안전교육이다.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있거나, 쇼핑카트 등의 짐을 들고 있거나, 유모차 및 휠체어 가지고 버스에 탑승한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저상으로 설계된 버스 등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분기별로 여성들의 버스 탑승의 다양한 상황과 이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야간에 버스에서 일어나는 여성대상 성추행 등 폭력 사건을 예방을 위한 운전기사의 감시 및 대처 교육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3) 택시

전문가 조사 결과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무려 82%의 응답자가 '야간전용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이용자의 야간안전성 확보'를 꼽을 만큼 여성의 택시 이용에 있어 '야간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택시가 목적지까지 가장 편하고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난 여성 상대 택시 강도 및 살인 사건 등으로 아직도 여성이 야간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의 활성화

서울시는 지난해 4개의 브랜드 콜택시를 연합하여 '여성전용콜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운전기사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운전기사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회사별로 여성운전자를 일정 수준까지 채용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전용 콜택시의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여성 전용 콜택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우기 쉬운 통합 콜번호(여성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번호) 도입 등으로 여성전용콜택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일정기간동안 탑승객에게 '여성전용콜택시'를 홍보하는 기념품을 배포하고 타 콜택시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란, 멕시코,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서도 여성전용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여성전용택시의 경우 특별히 내부에 청결을 유지하고 좌석뒷면에 거울, 메이크업도구, 여성지 등을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전용 콜택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간시간대 여성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 사용자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거

(1)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행정과 주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기도 하며, 참여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체력 단련 및 문화 강좌 등을 통한 주민 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 주민행정기관이었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 주민참여, 주민교류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일/가사 모두를 담당하는 여성이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성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체력단련 및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영 후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요즘 들어 여성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요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과거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취업, 창업, 사회참여, ICT 등의 기술 교육으로 확대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일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 여성공동체를 위한 공간 구성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지역의 주거, 환경, 교육, 아동 등의 문제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이다. 한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양한 여성공동체에 대한 구성을 돕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2) 주거환경

주거환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관계된 것으로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란휴식, 육아, 식사, 가사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과거에는 주거 환경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면 아토피 등의 환경으로 인한 병의 증가 등으로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친환경적인 부분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욕구와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이에 맞춰 변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 구성'이라고 답하였다. 여성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이 디자인하는 주거환경 공모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일 년에 한번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 동네(안)'라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거 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와 함께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여성들이 보는 주거환경(안)'의 코너를 통해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여성이 바라는 주거환경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날마다 배움터(근거리 대체교육기관) 운영

집과 가까운 거리에 휴일이나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체교육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 배움터는 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이 학교 후에 이용할 수 있고, 학교시간과 학원시간 또는 학원시간과 다음 학원시간 사이의 여유시간 등에 들러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를 관리하고 아동의 학습을 담당할 인력은 자치구내에서 자원봉사인력을 지원 받아 충당하되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담당할 인력에게는 수료증 등을 수여하고 서울시나 구 단위 인사 및 채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3) 놀이터

놀이터는 사전적 의미로 “보통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를 뜻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놀이터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1위가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로 안정성이었고 2위가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로 창의적 계획 및 설계와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 충족을 꼽았다. 과거의 놀이터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기능을 확대하여 모든 성과 연령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쉼터 및 문화 창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공동체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놀이 공간 구성 계획의 제도화

이제까지 아파트 및 공공시설의 놀이터는 모든 건물을 배치하고 자투리 공간에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거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그늘지고 어두운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차도 등에 근접하여 위험하거나 사망이 막혀 자연 감시가 불가능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나 공공시설을 계획 할 때 놀이터(놀이공간)이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사망이 트여 있어 자연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위치, 시설의 양과 질, 안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 놀이터의 창의적 공간 설계

천편일률적인 놀이공간을 지양하고 놀이터에서 또래들과의 놀이와 교류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상어린이놀이터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곳을 선정하여 놀이터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디자인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놀이터는 오픈 당시에는 대단한 호응을 얻었지만 1-2년이 지나면서 설치했던 기구들이 줄고 늘 보는 놀이기구에 대한 상상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놀이터가 창의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받아 분석하고, 분

석을 통해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주어야 한다. 한번 설치되어 고정된 시설물 외에 육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시켜주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교체는 다른 구(동)의 놀이터의 시설물과의 상호 교환으로 시설물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 외에 아동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빈 벽이나, 자유롭게 어우릴 수 있는 진흙탕 등을 배치하여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 우리 가족 모두 놀이터에서 놀아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

놀이터를 아동들만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놀이터가 지역공동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요일별로 각 연령대별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하여 놀이터를 개방하는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안물바(안 쓰는 물건 바꿔 쓰기)장터 등을 놀이터에서 열어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자녀들에게는 환경친화적 삶을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옛날 먹거리와 옛날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옛날 놀이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옛날 먹거리를 나눠주며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놀이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세대와 이웃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놀이터는 단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이 아닌 공동체놀이터로 거듭날 수 있다.

5) 건강 및 식품안전

(1) 정신건강

사회가 기능화, 고도화되면서 빠른 적응이 개인에게 요구되고, 그러한 적응 과정은 개인에게 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정보습득을 위한 투자와 성공을 위한 경쟁, 항상 시간에 쫓기는 촉박한 삶 등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과거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영역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 사회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여성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한 가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은 일과 가사의 이중적 스트레스, 산전/산후 우울증, 주부 갱년기 우울증, 여성노인 우울증 등으로 전 생애를 통해 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관리를 위해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운영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여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주민자치센터 등에 모여 요즘 자신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말하고 이웃들의 자문을 구하는 일명 ‘수다모임’등의 모임이 여성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번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다모임’, ‘웃음모임’등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일명 ‘수다모임’ 또는 ‘웃음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자치구(동)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다과비, 전문가 초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동네 여행(女幸) 마음치료센터 운영

여성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도 이를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실제 상담센터의 턱이 너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심리상담소와 연계하여 ‘우리 동네 여행(女幸) 마음치료센터(가칭)’운영을 제안한다. 이곳에서는 인근 여성주민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등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 한달에 하루 ‘마음 치료의 날’로 지정하여 인근 여성주민들의 방문 심리 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식품안전

최근 멜라민 파동, 가짜 계란 사건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여성이 안전한 먹거리를 사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감시자 및 관리자의 역할을 더해야 할 것이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검역체계 및 상시관리체계 유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재배방법 등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마트나 시장에 있어서는 엄중 처벌하고, 사실을 안내문을 통해 공시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별 안전한 먹거리 선택 방법 등을 책자로 배포해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불량 먹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 먹거리 인증제 실시

각 먹거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먹거리에 ‘안전한먹거리 인증제(가칭)’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식품별로 엄격한 기준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먹거리인증’ 식품을 90%이상 판매하는 마트나 상점에는 ‘안전한 가게’ 인증을 하고 현판 등을 입구에 달게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홍보함으로써 자율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 하는 먹거리 감시단 운영

시민단체와 지역여성이 함께 하는 먹거리 감시단을 운영케 하고 이를 지원한다. 이 단체는 상시적으로 마트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학교 급식 먹거리, 음식점 먹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자치구(시)는 감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감시단의 감시내용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gender-sensitive urban governance)는 여성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첫째는 도시 개발,

도시 정책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계획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Beall, 1996). 비올은 여성들이 도시 개발 혹은 도시 정책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 둘째는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구 및 그와 관련된 기구에 참여하여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셋째는 도시 공간 설계 사업의 대표자나 관리, 전문가 선출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 정책이 성인지적이 되려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성인지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도시 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나 자문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정책 추진 절차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올이 제안한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는 서울시 여행 동반자단 운영 방안 모색에 유용하다. 비올의 제안 중 도시 정책 수립하는 정부 기구, 서울시의 경우 각 실국의 정책 수립과정에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과 공무원의 성인지성 제고 및 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성인지적 분석이나 자문과정을 포함시키는 것들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적 도시 거버넌스의 또 다른 예로는 캐나다 여성들이 도시 주거 계획에 참여하여 싱글맘 주택, 공동거주 주택, 노인여성, 단기 체류자 주택, 폭력 피해자 쉼터 등 건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건축 과정에 참여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토론토 시 여성안전감시단(Women's Safety Audits) 운영도 좋은 사례이다. 여성안전감시단은 건물이나 환경을 여성과 보편적 약자(장애, 노인, 어린이)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tool)이자 절차(process)이다. 여성안전감시단은 여성에 위험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한다.

WSA는 지방 정부관리와 지역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안전감시단은 여성에 대한 안전은 사회의 다른 약자들에 대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이들의 시도는 캐나다와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되어 수백여 개의 도시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성안전감시단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설계와 토지 이용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 주었다. 빌딩, 지하주차장, 도로, 골목길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을 여성 친화적으로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 계획 입안가들에게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 시설 건설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도시 환경에 예산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바꾸었다(Khosla, 2003).

캐나다와 토론토 시 사례는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동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일반 여성들이 지역사회 안전과 도시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으로 실행한 점, 여성 및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은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 운영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의 여성 참여 운영 방식, 여성 참여단 구성, 자문 방법이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의견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여행 동반자와 여행 프로슈머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가 참여 : 여행 동반자 단 운영 방안

동반자단 운영과 관련하여 동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반자들은 동반자 운영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행 동반자의 구성과 운영이 다소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여행 동반자단 분과 내 위원들 간의 동질성이 부족해 의견 교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동반자단 운영과 관련해 동반자단이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여행 사업의 성인지성을 강화해야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008년 「여행 동반자 1차 온라인 서면자문 조사결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행 동반자의 활동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참여 방식의 다원화

동반자단 운영을 규모별, 이슈별, 자문공간별 등으로 다원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반자단 총회 및 분과 총회

대규모 총회나 분과 총회는 연 1~2회 정도 개최하여 모든 동반자와 각 실국의 선임본부와 해당 실국의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회의를 통해 동반자들은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반자가 자문한 내용이나 실국의 반영 결과 등을 공유하여 동반자의 결속력과 자문 참여도를 높인다.

➤ 이슈별 소그룹 전문가 자문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여행 동반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규모를 '영역 당 5명~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으로 제안하였다. 향후 여행 동반자단은

기존의 대규모로 운영하는 동반자 그룹을 각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사안에 따라 소규모 전문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별로 특정 전문가 그룹을 대상을 4-5명씩을 함께 모아 의견을 묻는 전문가 FGI(초점집단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전문 집단의 전문가는 기존의 동반자 외에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소그룹 전문가 자문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안(agenda)이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실국에서의 자문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셋째 동반자들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자문에 참여하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온라인 자문

동반자단 총회나 소그룹 전문가 자문은 다수의 동반자가 참여하기 힘들고 참여하는 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다. 실국에서도 동반자 분과회의 개최는 시간적, 공간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도가 낮다. 오프라인 회의의 시간적,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 방식이 온라인 자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는 오프라인 회의보다는 호응도가 낮았으나 실제로 이에 참여하였던 동반자단에서는 온라인 자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온라인 자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온라인 자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자문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둘째로 자문 대상 사업을 온라인 조사에 적절하도록 조사 설계가 잘 되어야 하며, 셋째 조사 결과 분석 및 자문 반영 상황을 동반자들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장 방문

동반자들이 시정에 적용 가능한 자문이나 모니터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문 대상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직접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안내 책자 등을 미리 보내주거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008년 여행 동반자 1차 온라인 서면자문 조사」).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동반자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자문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동반자 현장 방문은 주택건축분과에서 은평 뉴타운과 문정지구를 현장 방문한 사례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현장 방문 자문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위원회 참여

동반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여행 사업 자문 외에 각종 서울시의 위원회에 정규 위원으로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동반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신문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동반자들이 여행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안이 발생하면 신문 등에 기고하여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고 여행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여행 사업 홍보를 위해 좋은 방법이지만 동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동반자단 구성의 유연화

현재 여행 동반자단은 5개 분과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자단은 교수, 연구자, 관련기업 대표 및 임원, 법조인, 언론인, 서울시 여성단체 대표, 관련 NGO 대표, 서울시 관련 기관(인력, 보육 등)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반자 분과와 전문분야가 상이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다수 있다. 분과별로 동반자단 규모가 30명에서 50명으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반자들의 자문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자단을 전문가, 실무자, 일반시민, 젊은 연령대로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그룹 구성

동반자의 자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반자단의 조직과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5개 분과체제를 유지하되 소규모 전문가 그룹은 약 10개의 세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그룹은 10개 분야 이내로 운영하고 세부 분

야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소규모 전문가 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도록 하고 이들은 주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와 평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다양한 연령대의 동반자단 구성

전체 동반자단은 연령 대 폭을 확대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동반자단이 사회의 저명인사 중심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30대 젊은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자단에 젊은 여성들을 포함시키거나 대학 등과 연계하여 여행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참여

동반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동반자단에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동반자의 전문 분야가 다양할 것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동반자들은 전문가 외에도 NGO 단체의 참여 확대, 일반시민여성대표(동별 통장 혹은 반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소규모 전문가단을 제외한 동반자 전체 구성은 연령대, 지역별, 분야별로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자단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포함하는 것이 운영 상 어렵다면 여성 전문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3) 동반자단 지원 체계 구축

동반자단이 성인지적인 시정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동반자단의 구성과 조직, 참여방식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자문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자의 참여 의지가 높아도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나 동반자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동반자단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실국·동반자 협력체계 구축

동반자의 시정 참여 및 여행 사업 자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자와 관련 실국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적인 도시 파트너십(inclusive urban partnership)이 필요하다. 통합적 파트너십이란 도시의 거주자, 도시

설계자, 도시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 집단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실국에서는 도시 시민 여성을 대표하는 동반자단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반자와 실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실국은 첫째 주요 사업 중 동반자 자문이 필요한 사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자문이 필요한 어젠더(agenda)를 발굴한다. 둘째 각 사안에 맞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집단을 선정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셋째 자문결과를 사업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반영한 결과를 동반자에게 알린다. 넷째 이러한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행 CF 및 CF 매니저의 활동을 강화한다.

동반자 단도 동반자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전문적이며 실질적인 자문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동반자단의 조직체계를 재구축하고 동반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동반자 자문 의무화

시정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성인지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주요사업과 여행사업들에 대한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동반자단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뒤 시정 운영 자문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성인지적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여행사업부터 동반자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2010년까지 시행하는 132개 여행 사업들은 기획단계, 추진단계, 평가단계별로 최소 3회 이상의 동반자 자문을 받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행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시에는 동반자 자문 여부와 자문 반영 정도를 보고하도록 한다. 2009년도 여행 신규과제 추진 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동반자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시정 사업의 경우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단계별로 여성들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는 절차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예산 지원 확대

동반자 운영 및 자문, 모니터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반자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동반자들의 여행 사업 자문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적합한 자문비와 모니터링 비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동반자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실국과 밀착하여 집중적인 자문에 참여할 것이다.

동반자 분과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동반자단은 분과별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조직이 있으며, 분과 내에서도 여행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동반자 분과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분과별 운영비를 지급하여 동반자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2) 일반 여성 참여 : 여행 프로슈머단 활성화 방안

여성 친화적인 도시 정책 수립에 일반 시민 여성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 초기부터 일반 여성들의 생활불편 요인 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도에도 서울시는 여행 프로슈머단을 구성해 화장실, 주차장, 지하보차도, 콜택시, 영유아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여성들의 도시 여성 정책 참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들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 규모이어야 하는지, 다수의 일반 시민이 시정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일반 여성들이 생활환경 내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떠한지, 일반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이 일반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반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여행 프로슈머 단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되 향후 전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참여단위 및 참여방식 다양화

➤ 지역사회 여성 참여: 자치구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 여성들이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해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위로는 전문가 조사 결과 구 단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일반 여성들의 참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생활권역별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전 시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소규모 단위로 자치구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운영주

체나 지원주체는 자치구의 여성단체와 여성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지역 단위로 도시 공간 및 생활환경에서 여성들의 불편 요인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주변 환경 안전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제를 정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의 조사 결과는 반드시 자치구나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들의 제안대로 시정되었는지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 일반 여성 시민 참여 : 사이버 여행 프로슈머단

일반시민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 시민여성 집단이 체험 단 혹은 모니터링 집단으로 체험 후 체험후기를 UCC 등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참여도 시단위로 할 수도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일반 시민 참여 제안 중 좋은 의견들은 반영하고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거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일반 여성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사이버 여행 프로슈머단으로 명명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장애인, 이주자, 한부모 여성 참여: 여행 WISE 단

일반 시민 여성들 내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여성, 이주자 여성, 한부모 여성들은 여성 내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이중 차별에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행 프로슈머단의 경우도 중장년층 여성과 미혼 여성들 위주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관심사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프로슈머 단의 구성을 다원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도시 생활에서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 분야 및 대상 확대

현재까지 여행 프로슈머단이 조사를 한 분야는 지하철 화장실, 공영 주차장, 지하보차도, 브랜드 콜택시, 영유아플라자이며 조사 범위는 서울시 전역이었다. 앞으로 일반 여성들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슈머단의 조직과 아울러 조사 대상 및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조사 결과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았고 공공시설, 주거환경, 공원 등의 순으로 조사 수요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여행 프로슈머단은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에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슈머단이 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들과 각 영역별 조사 지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 가로등, 보행자 도로, 표시판과 안내도, 공공건물 접근성, 지역회관 및 청소년회관, 주거지역, 대중교통 이용, 운동장 및 놀이터, 안전감시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프로슈머 단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사 대상 확대를 위해서 어떤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어떻게 조사 설계를 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조사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후에는 프로슈머 단이 자체적으로 조사 내용과 조사 도구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1 프로슈머 조사 제안 목록

조사 사례	조사 지표
지역사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문화별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 학교, 보육시설, 마트, 일터, 훈련기관 연계(일/가족 양립) · 보건시설, 복지시설, 보육시설 충분성 · 지역 마트에서 신선한 식품 구입가능 여부(인종별) · 아이들의 놀이 공간 · 대중교통 연결체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단체 · 지역에 부족한 시설들
걷기 좋은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지 못한 길의 이용자 수, 주 이용시간대 · 가로등 조명, 가로등 수, 보도포장, 쓰레기 ·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적정성, 보도 턱, 신호건너는 시간 횡단보도 공간 충분정도 · 길 청소여부, 유지보수 정도, 관리기관 연락체계 · 휠체어, 유모차, 거동불편자, 약시자 이용 불편사항
가로등 조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도로별 가로등 수,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산책로 가로등 수, 운동경기장 조명 방해정도 · 주거지역 가로등 관리책임자, 관리소 · 가게, 광고 조명 정도, 보행자 안전 증진 여부
지역사회 표시판 및 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표시판, 안내판 수, 적정 위치, 디자인 심미성 · 지역안내도 비치 여부, 설치 지역 · 공공건물, 지역사회 건물 찾기 용이성 · 고장이나 긴급사태 발생시 연락처 명시 여부

조사 사례	조사 지표
공공건물 접근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정문 통과 가능성 · 건물안내도 조명, 표시판 위치 적정성 · 출입문 손잡이, 개폐시설의 중량, 폭, 시야확보 여부 · 건물 내 충분한 환기 공간 · 계단/리프트, 에스컬레이터/리프트, 계단/경사로 병행 · 화장실 어린이 편의시설, 청결도, 이동 동선
지역사회/청소년 센터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접근 도로의 조명, 사용편의성, 시야확보 · 센터 접근성 · 현관 입구의 안전성, 환영 받는 느낌 주는 정도 · 개관시간, 프로그램안내 정보 제공(다국어 제공) · 방문자 환대 및 정보안내 담당 직원 · 여성이나 소녀 전용 프로그램, 공간 · 휴게실, 비공식적 모임 장소 · 어린이 놀이방, 유모차 보관소 · 이용자 교통 지원
주거지역 삶의 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거 시설 종류, 다문화 가족 주거 시설 · 주거시설 관리 정도 및 관리실 연락처 인지 여부 · 인종차별, 반사회적 행동, 이웃간 분쟁 해결 서비스 · 주거시설의 질: 난방, 소음차단, 하수/운수, 내부공간 · 지역 내 인종, 연령 별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시설 · 보안시스템 · 주민대표자 집단 구성 및 지역사회 개선 정도
야외 운동장 및 놀이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수, 안전시설, 위급상황 시 비상전화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성별이용여부 · 아이동반 보호자 이용 시설 · 지역정부의 시설 지원 및 이용자 지원 정도
대중교통 조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정류장, 버스 안전도, 버스 요금 적정도 · 버스 노선 적정도 · 버스 정류장 디자인, 대기 의자, 조명, 안내도 · 지하철 역 조명도, 접근성, 환승체계, 자전거 보관소 · 지하철 역 관리체계, 관리인 · 지하철 역 공중전화, 화장실, 기저귀갈이대 등 · 공공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 제공
안전감시 시스템 조사 (자연감시체계, CCTV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지역 안전감시 시스템 종류(자연감시, CCTV..) · 자연 감시체계 증진 방안 · CCTV 감시 지역 적절성, 적절한 장소, 장점과 단점

출처: Sue Cavanagh(1998), *Making Safer Places for Women*, Women's Design Service, pp.63~84.

자료 재구성

(3) 조사 도구(tool) 개발

프로슈머단을 통한 일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여성들이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도구가 잘 개발되어야 일반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도구에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가에 대한 절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슈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자치구나 지역사회 혹은 시차원에서 여성 친화적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프로슈머 조사는 기존의 정책에 대해 일반 여성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단은 일반 여성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앞으로 시 단위 프로슈머단 뿐 아니라 자치구 단위 프로슈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 런던 시에서 자치구 단위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들(10대 학생, 20대 젊은 여성, 아이를 둔 어머니, 이주자 여성들 등)이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조사할 때 사용한 틀이다. 이들은 안전과 접근성 등 다양한 이슈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 틀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문제 설정부터 기록, 발표, 시행까지 과정들을 직접 수행하였다. 물론 조사의 경험이 있었던 지역여성단체의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사례들은 본 연구의 부록으로 번역하여 실었으므로 참고하면 유용할 것이다.

1	토론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 조사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
2	지도 그리기 Ma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이 조사 현장의 지리를 익히고 조사 지점을 체크 · 조사 지역에 맞게 조사 방법과 조사 계획 수립
3	관찰 Ob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 특징들을 찾아냄 · 특정시간대별, 장소별로 관찰 및 측정
4	기록 Recor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내용 및 면접내용 기록 · 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
5	분석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토대로 안전위험 요인 분석 · 개선을 위한 변화 요인 분석
6	발표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발표 · 지역사회 내에 안전이슈 제기 · 변화 위한 지지세력 결집
7	시행 Imple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립가에 조사 결과 제안 · 지역환경 개선 정책 수립 촉구

출처: Sue Cavanagh(1998), *Making Safer Places for Women*, Women's Design Service.

〈그림 6-1〉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이 틀은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 시민 조사단이 구성되면 자유토론(discussion)을 한다. 토론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단계로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에 대한 연상이나 경험 말하기 등으로 시작하여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그리기(mapping) 또는 지역 익히기이다. 조사 지역으로 선정할 곳을 현장방문해서 조사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지도에다 표시한다. 그리고 조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 방법과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observation)이다. 현장 방문 지도를 가지고 각 지점마다 특색들을 관

찰하고 위험요인을 찾아낸다. 때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소음을 측정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록(recording)이다.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필요시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로 녹화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석(analysis)이다. 조사한 내용과 기록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는 보고 및 발표(presentation)이다. 조사결과를 보고서, 스토리보드, 플라쥬, 사진,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거나 보도한다. 결과는 라디오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이 때 관계 당국 담당자나 책임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문서로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일곱 번째는 시행(implementation)이다.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서 검토하고 이들이 제시한 개선책을 수용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조사 도구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서울시 여행 프로슈머 조사단이 어떻게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앞으로 조사 영역을 확대하고 이러한 조사 절차를 거쳐 프로슈머 조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시행단계이다. 일반 여성들이 어렵게 조사해서 발굴한 이슈들과 개선책들이 관계 당국에서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2〉 런던시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Safety Audit) 절차

4. 맺는 말

서울시의 독자적인 여성정책으로 추진되는 여행 프로젝트는 지역 여성정책으로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행 사업 점검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점검하고 여행 프로젝트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3 가지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여행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할 방향 제시, 둘째는 여성 친화적 도시 정책 과제 제안, 셋째는 여성의 여행 사업 참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다.

여행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 사업 발굴 및 확산, 여행 프로젝트 평가 및 환류 체계 개발, 여행 프로젝트 담당자 성인지 교육 확대, 국내외 교류 강화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 보행 및 통행로, 지하보도, 횡단보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여행 사업에서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시설 및 환경, 지역사회 시설, 놀이 공간에 대한 사업을 제시하였고 여성의 정신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은 일반 여성들의 관심 영역이기는 하나 아직 여행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시의 관련 실국에서는 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과제 제안에 비중을 두었다. 왜냐하면 여행 프로젝트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반자단이나 프로슈머 단을 통해 여성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였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단, 일반 여성 프로슈머 조사단, 자치구의 여행 포럼단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번역하여 실었고 조사 활동 도구(tool)나 조사 영역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성의 참여는 전문가 외에도 주부, 일하는 여성, 빈곤층 여성 등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들은 연구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추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주요 실국에서 여행 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은 여성의 관점에

서 새롭게 추진하기보다 기존의 사업 중 여성과 연관이 있을 법한 과제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국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 도시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확고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과 시정에의 정착은 시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 혹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남성 전문가, 일반 여성 시민들이 연대하여 협력할 때 가능하다. 연계와 협력이란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지만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이란 이행 공유, 상호지원, 상호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각 참여집단은 자신들의 자원, 기술에 따라 기여하고 각 집단의 전문성,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과 시 정부가 소통과 연대를 할 때 여행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여성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 국토연구원(2004),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200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균형발전위원회.
- 김수영(2001),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 : 국내 환경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순(2007), “비성별적 도시의 모색 :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1호.
- 박정현(2005), 「한·독의 지속가능성 주거단지의 계획 특성 비교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2008), 「2008 여행 동반자 어울림 마당: 우수사례 및 시정반영결과」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2008), 「2008년 2/4분기 여행 프로젝트 추진상황 평가결과」
- 서울특별시(2007), 「사업별 4개년 계획 : 女幸 프로젝트 2010」
- 서울특별시(2007),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 사업별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2008), 「사업별 4개년 계획: 2008년 연동계획(안)」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7), 「정책포럼 서울시 여성정책의 지형확대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화장실 안전실태」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브랜드콜택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 동반자자문 결과 보고서」
-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실태조사」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2007), 「여성이 디자인하는 도시 女幸」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2008), 「여행 프로젝트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제안」
- 송기택(2006),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정개발연구원(2000),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개발 연구」
- 시정개발연구원(2006), 「지속가능발전(SD)과 서울특별시 - 통영 RCE 협력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2006),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200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여성정책 자문회의 검토자료.
- 이규인(1997),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개념적 모델 수립에 관한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3(2)
- 이민영(2006),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Universal Design 에 관한 연구 :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화·조영미(2007), “여성의 도시권을 통해 본 도시 여성정책 전망: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23차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이연숙(2005), 『유니버설 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사
- 이재하(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그 개선방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11
- 장윤정(1999), 「장애우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실증적 요구조사 : 장애우 사회통합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방향 모색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미·김창연·이선민·나영정(2007), 「여성이 디자인하는 도시 女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택도시연구원(2006),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Huri Focus」, 제22호
- 최길동·김병철(2007), “중소도시 버스정류장과 유니버설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2007 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최시영(2006), “누구를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인가”, 「도시와 빈곤」, 2006. 8. 통권 81호.
- 캐더린 애트필드(2007), “유방암과 환경문제”, 「여성건강」, 8권 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 하은경(2004), “공간계획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0, No.4
- 한국여성개발원(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개발 - 성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Ahenda 21(<http://www.un.org/era/sustdev/agenda21text.htm>)

Aitchison, Cara(1999), “New cultural geographies: the spatiality of leisure, gender and sexuality”, *Leisure Studies*, 18:1, 19 - 39.

- Audirac, Ivonne(2008), "Accessing Transit As Universal Design",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3:1, 4-16.
- Balsas, Carlos J. L.(2004), "Measuring the livability of an urban centre: an exploratory study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9:1, 101 - 110.
- Beall, J.(1996), "Urban Governance: Why Gender Matters", UNDP.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 Beall, Jo(1996), "Urban Governance : Why Gender Matters", UNDP.
- Berglund, Eeva(2007), *Doing Things Differently: Women's Design Service at 20*, Women's Design Service.
- Boelhouwer, Joroen(2002), "Social Indicators and Living Conditions in the Netherland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 89-113.
- Bondi, Liz(2003), Constructing Gender, Constructing The Urban : a review of Anglo-American feminist urban geography,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10, No 3.
- Bondi, Liz, Damaris Rose(2003), "Constructing gender, constructing the urban: a review of Anglo-American feminist urban geography",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 10, 229-245.
- Bonnie Kettel(1996), "Wome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42:10, 1367-1379.
- Borchorst, Anette and Birte Siim(2008), "Woman-friendly policies and state feminism: Theorizing Scandinavian gender equality", *Feminist Theory*, vol. 9, 207 - 224.
- Cavanagh, Sue(1998), *Making Safer Places: A resource Book for neighbourhood Safety Audits*. Women's Design Service.
- Cepolina, Elvezia M. ; Nick Tyler (2004), "Microscopic simulation of pedestrians in accessibility evaluation",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27:3, 145 - 180.
- Childs, Mark C.(2008), "Storytelling and urban design", *Journal of Urbanism: International Research on Placemaking and Urban Sustainability*, 1:2, 173 - 186.
- Cho, Youngmi(2008), "Gender Mainstreaming of Seoul City: Strategies for Expanding the Gender Perspective in City Policies", *Gender and Urban Policies*, Proceedings of Women's Worlds 2008.

- Day, Kristen, Craig Anderson, Michael Powe, Tracy McMillan, and Diane Winn(2007), "Remaking Minnie Street: The Impacts of Urban Revitalization on Crime and Pedestrian Safe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 26, 315 - 331.
- Don, Mitchell(2003), *The Right to the City :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Y:Guilford.
- Fadda, Giulietta and Paola Jirón(1999), "Quality of life and gender: a methodology for urban research",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 11, 261 - 270.
- Fadda, Giulietta(2003), "Urban Sustainability, Quality of Life and Gender", *In City and Gender International Discourse on Gender, Urbanism and Architecture*, U. Terlinden.
- Fainstein, Susan & Servon J., Lisa eds.(2005), *Gender and Planning :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 Fenster, Tovi(2004), "Gender and the City : The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Lise Nelson and Joni Seager eds., *A Companion to Feminist Geography*, Blackwell Publishing.
- Fenster, Tovi(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2:3, 217-231.
- Fincher, Ruth(2006), "Space, Gender and Institutions in Processes Creating Difference", *Gender, Place & Culture*, Vol 14, 5 - 27.
- Fortune, Jennifer(2008), "Women and Sustainable Housing and the Way We Live, *Gender and Urban Policies*", Proceedings of Women's Worlds 2008.
- Fouracre, P. R., ; M. Sohail b; S. Cavill (2006), "A Participatory Approach to Urban Transport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29:4, 313 - 330.
- Hannan, Carolyn(2005). "*Asia and the Pacific Beijing+10: Selected Issues. Gender Mainstreaming: A Key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at National Level*", United Nations ESCAP, 49-57.
- Ilcan, Suzan, Marcia Oliver ; Daniel O'connor (2007), "Spaces of Governance: Gender and public sector restructuring in Canada", *Gender, Place & Culture*, 14:1, 75-92.
- Iveson, Kurt(2003), " Justifying exclusio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the dispute over access to McIvers ladies' baths, Sydney", *Gender, Place & Culture*, 10:3.

215 - 228.

- Kail, Eva and Elisabeth Irschik(2008), "Fair Shared City: Gender Mainstreaming Planning Strategy in Vienna", *Gender and Urban Policies*, Proceedings of Women's Worlds 2008.
- Kakad, Krishna(2000), "Gender, Culture, and Architecture in Ahmedabad and Berlin",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vol. 4, 201 - 223.
- Law, Robin(1999), "Beyond 'women and transport':toward new geographies of gender and daily mobi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4, 567-588
- Lefebvre, H(1991), *Critique of Everyday Life*, London, Verso.
- MaDowell, L.; Perrons, D.; Fagan, C.; Ray, K. & Ward, K.(2005), "The Contradictions and Intersections of Class and Gender in a Global City : Placing Working Women's Lives on the Research Agenda"[online], London: LSE Research Online.
- Massey, Doreen(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guire, Joan M., Sally S. Scott, and Stan F. Shaw(2006), "Universal Design and Its Application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7:3, 166-175.
- Musterd, Sako(2008), "Integrated urban renewal in The Netherlands: a critical appraisal", *Urban Research & Practice*, 1:1, 78 - 92.
- Pain, Rachel(2000), "Gender, Race, Age and Fear in the City", *Urban Studies*, vol. 38.
- Prabha, Khosla(2003), "Women's Environments: The Struggle for Healthy & Sustainable Planet", *Women and Environments International Magazine*, No. 60/61.
- Preece, Julia(2002). "Feminist Perspective on the Learning of Citizenship and Governance", *Compare*, 32:1.
- Purcell, Mark(2002), "Excavating Lefebvre :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 Journal* 58.
- Purcell, Mark(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564-590.
- Raco, Mike(2007), "Securing Sustainable Communities: Citizenship, Safety and Sustainability in the New Urban Plannin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 14, 305 - 320.
- Reid, Bryonie(2008), " 'Rearranging the ground': public and private space in Belfast,

- Northern Ireland", *Gender, Place & Culture*, 15:5, 489 - 503.
- Salzburg, Land(2006), Requirement - Oriented Spatial Planning : Gender Practice and Criteria in Spatial Planning. Final Report
- Scraton, Sheila, Beccy Watson, "Gendered cities: women and public leisure space in the 'postmodern city'", *Leisure Studies*, 17:2, 123 - 137.
- Sibley, David (1995), "Gender, Politics and Geographies of The City", *Gender, Place and Culture*, 2:1.
- Skaburskis, Andrejs(1997), "Gender differences in housing demand", *Urban Studies*, 34:2, 275-320.
- Spain, Daphne (1993), "Gendered Spaces and Women's Status", *Sociological Theory*, 11:2, 137-151.
- Takao, Yasuo(2007), "Japanese women in grassroots politics: building a gender-equal society from the bottom up", *The Pacific Review*, 20:2, 147 - 172.
- Takeda, Hiroko(2006), "Gendering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The gender-specific pattern of political activity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Japanese Studies*, 26:2, 185-198.
- Vaiou, Dina & Lykogianni, Rouli(2004), "Women, Neighbourhoods and Everyday Life", *Cohensive Neighbourhoods and Connected Citizens in European Societies*, 16-17.
- Williams, Allison ; Valorie A. Crooks (2008), "Introduction: space, place and the geographies of women's caregiving work", *Gender, Place & Culture*, 15:3, 243 - 247
- You, Nicholas(2007), "Sustainable for whom? The urban millennium and challenges for redefining the global development planning agenda", *City*, 11:2, 214 - 220.

1. 철길 아래 보행자 아치 - 사우스와크(Southwark)의 보행자 도로 조사

> 목적

이번 조사audit는 Southwark Park Road와 Rotherhithe New Road 사이 철길 아래에 놓여 있는 보행 아치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평가하고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행 아치는 특히 야간에 지역 여성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조사 시행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본 심사는 런던의 Southwark구에 있는 Abbeyfield 단지Estate의 Bede House Women's Group가 수행하였다. Bede House는 정착 지원 및 사회 행동 센터(a Settlement and Social Action Centre)로 Bermondsey와 Rotherhithe의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고 있다.

> 기간

조사의 대부분은 1995년 7월과 9월, 이른 저녁 세션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 지원

본 심사는 Bede House의 공동체 활동가와 Women's Design Service의 커뮤니티 안전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았다.

> 배경

Bede House Women's Group은 Abbeyfield 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며 이들은 매주 사회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피크닉을 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강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걸을 때 개인 안전에 관해 점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Women's Design Service는 Bede House의 공동체 활동가를 초대하여 여성과 관련한 지역안전문제를 논의했으며, 안전 심사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지역은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들과 유사한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그들의 안전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이 사례는 런던시 Women's Design Service에서 발간한 *Making Safer Places: a Resource book for Neighbourhood Safety Audits* 부터 발췌하여 번역하였음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조사와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였을 때 여성들은 파괴행위, 마약남용, 소소한 범죄 등과 연관된 지역 내 수많은 안전문제들에 대해 보고했다. 그들은 단지 주변과 단지 내 몇몇의 장소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지하 주차장과 파괴된 유모차고지, 오락시설이 폐쇄된 지역 공원과 지하도이었다. 또한 그들은 지역 상점과 학교, 청소년 클럽의 수준이 낮은 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장소는 바로 보행자 아치였다. 그들과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큰 문제였다. 여성들은 확대된 지역 지도를 가지고서 만약 자신들이 밖으로 나가야한다면 왜 이러한 아치들을 거쳐서 가야하는지를 설명해보았다. 보행자 아치는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상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통로이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두 번째 조사 기간 동안, 여섯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걸었고 컬러 슬라이드와 프린트 필름을 이용해 문제점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작동하지 않는 가로등과 들끓는 비둘기, 쓰레기 및 움푹 파인 어두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아치 아래의 상황에 제일 많이 집중했다. 또한 아치가 그들의 외출을 어느 정도 방해하는지,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나쁜 경험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지역에 사는 100명의 여성에게 실시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기간 동안 찍은 사진 중 문제를 잘 드러내는 사진들을 선택하고 질문지를 분석하고 난 뒤 이 최악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개선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국 즉 철도청과 사우스와크 의회에 편지를 보냈다. 1996년 봄, 여성들은 'You and Yours' 프로그램, 즉 라디오 4의 매주 커뮤니티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아치들에 관한 사연을 올렸고, Southwark의 재생 및 환경부의 대표들이 이에 답하기 위해 초청되었다.

그들이 제안한 개선책은 바로 이것이었다. 보다 밝은 조명 설치 및 우묵한 곳 메우기, 벽과 바닥의 청소, 비둘기 통제, 거울과 CCTV 설치, 그리고 경찰 순찰 강화이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아치와 관련한 책임소재 문제는 복잡하였다.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의회는 공공 고가 도로의 일부분으로 아치 아래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몇 주 이내에 Southwark Park Road 철도에서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1996년 8월 및 9월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했다. Rotherhithe New Road의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의회는 적극적으로 철도에 관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

2. 학교 통학로 안전 조사 - 해머스키스와 풀햄(Hammersmith and Fulham)의 보행자 도로 조사

>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타운 센터에서 지역 중학교에 이르는 두 가지 보행루트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이 조사는 캠브리지 학교의 12~16명의 학생들이 수행하였는데 캠브리지 학교는 런던의 Hammersmith와 Fulham 구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이다.

> 조사 지역

학생들은 타운 센터에서 학교 출입구에 이르는 두 가지 대안 보행 루트를 조사하였는데 각 루트마다 미리 정해진 6개의 관찰 포인트들이 있다.

> 기간

토론과 조사 수행, 분석과 조사결과 발표에 3개의 아침 세션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세션과 발표를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더 들었다.

> 지원

조사는 Hammersmith와 Fulham의 도시 연구 센터가 조직하였고 캠브리지 학교 교사들이 참여하고 Women's Design Service가 지원하였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토론이 열렸을 때, 조사단은 그들이 학교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안전함과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는 요소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하였다. 안전하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길 위에 흰 줄무늬를 그려놓은 횡단보도(zebra crossings), 친절한 사람들, 어느 쪽으로든 잘 보이는 시선, 조명, 공중전화, 상점과 인도와 도로 사이의 경계들. 안전하지 못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 건축 장의 발판들, 도로 공사들, 보이지 않는 코너들, 술 취한 사람들, 거지들, 거리 음악가들, 술집들, 싸움, 서로 밀치는 사람들, 심한 교통체증과 빌딩 부지들이다. 이것들 중 일부는 안전 체크 항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거리 지도들을 이용하여 두 개의 보행자 거리에서 조사해야 할 지점을 정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4개의 3-4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그룹에는 조사할 루트와 관찰 포인트 3군데가 표시된 거리지도를 주었고, 체크리스트와 카메라, 테이프 녹음기도 제공하였다.

각 그룹은 어른들과 함께 지도로 표시된 길을 걸으며 멈추며 정보들을 녹음했다. 관찰 포인트에서는 각 방향과 보도 표면 상태를 촬영했다. 그룹토론 내용과 배경 소음도 역시 함께 녹음하였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다음 조사 세션을 위해서, 조사단은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정보들은 발표문에 적었다. 그 외에 조사지역 지도와 사진 6장, 체크리스트 분석과 소음 측정수치도 발표하였다. 조사 그룹은 각각의 관찰 포인트에서의 그들의 경험을 몇 단어로 축약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간사에 의해 전시회준비를 거쳤고 학생들은 도시연구센터의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이를 구의 청소년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에게 보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 조사가 다학제적이며 수학이나 영어 같은 핵심과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뻐했다. 이는 학생들의 지도독해, 사진, 소음 측정과 디자인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성 조사 (Accessibility and Safety - On Public Transport)

➤ 목적

이번 조사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와 현재의 대중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이동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겪는 이들의 문제를 기술하는 데 있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젊은 어머니, Elaine Donnellon

➤ 조사지역

알링턴에 있는 구시가지 지하철 역

➤ 조사지원

조사는 나 혼자 하였다. 나는 Islington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다. 이 심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그 외의 추가지원은 비디오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개발 충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나는 젊은 엄마의 관점에서 본 조사를 수행했다. 나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독립성을 제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당시 나는 Islington에 있는 Old Street 지하철역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 역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역이며 많은 통근자들 -주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이 이용한다. 그러나 Old Street 지하철역은 이 역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들을 간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침, 출근시간동안 비록 세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음에도,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 하나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작동 중이었다. 그러나 이 때 런던 지하철은 출구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바로 올라오는 방향의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하고 있었다. 내려가는 사람들은 고장 나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약 100걸음) 혹은 비상계단을 이용해야만했다.

이번에는 아직 유모차를 타야하는 나의 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통근자들이 역을 빠져나갈 때 혼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하면서 나는 나의 분노를 좀 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나는 런던의 대중 교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혔거나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규명한 연구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나는 현 교통체계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를 발견하기 위해 정상인과 장애인,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나는 비디오로 기록하면서 내가 Old Street의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함을 열거했다. 또한 나는 역을 이용하는 내 친구와 유모차를 탄 그녀의 아기를 촬영했다. 나는 가시적으로 장애있는 여성이 비상계단을 사용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애썼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에스컬레이터에 그녀의 안내견을 태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나는 정상인이 이러한 상황에 참여할 하는 비디오의 다른 시퀀스를 계획했다. 나는 그들에게 유모차와 아기 대신 인형 그리고 쇼핑백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것을 주문했다. 그들의 실연은 다른 대중교통이용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녹화되었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은 대중교통에 좀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비교들을 보여주었다. 바로 저층 버스와 스웨덴의 지하철 시스템이다. 이는 Women's Design Service가 녹화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이번 조사결과는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서 전시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나는 조사를 통해서 접근 불가능한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노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좀더 강력한 비디오와 사진 이미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나는 대중교통 접근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젊은 봉사 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4. New Images 그룹 - 안전 예술 전시회 개최(Safety Art Exhibition)

➤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 클럽과 지역 환경에서 젊은 여성들이 안전함 혹은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어떠한 개선책들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실질적인 방책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가벼운 학습 장애를 가진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New Images 그룹

➤ 조사 지역

런던의 Southwark구의 Peckham , Bellenden Old School에 그룹이 모이는 청소년 클럽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기간

1997년 1월과 4월 사이 7개의 2시간 짜리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다.

➤ 지원

이 조사는 런던 청소년클럽 연합(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전문 예술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개발 총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조사 참가 젊은 여성들은 Southwark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 클럽을 오기 위해 프로젝트 미니버스를 타고 온다. 그들은 오래된 학교 빌딩에서 매주 만나며 다른 조직들에도 참여하고 있다. New Images의 젊은 활동가들이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에 관해 듣고 이들과 만나기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를 초대했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처음 만났을 때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보편적인 감정들과 관심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그들은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했다. 바로 그들이 만나는 '센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룹은

센터 내 안전성에 대해서만 토론하였는데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클럽 및 커뮤니티 빌딩 안과 주변을 촬영했다. 센터의 입구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동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계단들이 있었다. 빌딩은 불빛이 밝지 않은 주차장, 사용하지 않은 외부 화장실 등이 있는 음침한 지역에 있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젊은 여성들이 클럽과 건물을 위해 제안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회의실 공간에 새로운 칠을 한 다른 벽들 및 벽화나 그림, 또한 좀 더 많은 여성이 클럽에 올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는 더 큰 미니버스, 주차장에 밝은 조명, 클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은 사진 전시를 통해 클럽과 커뮤니티 빌딩에 관한 그들의 관심과 제안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안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기반하여 젊은 여성들은 8개의 사진을 선택하여 캔버스의 그림으로 다시 만들었다. 8개의 그림은 벽화로 만들어졌고 클럽의 벽에 걸려 전시되었다.(여기에 나타난 그림들은 다른 승객들과 공공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텅 빈 공원을 홀로 걷는데 느껴지는 두려움 등을 표현)

그들은 그들의 벽 걸개를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서 전시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를 통해서 여성 그룹은 개인 안전문제를 토론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청소년 클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토론할 수 있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장소, 그들이 좀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그룹의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5. 햄 지역 가로 안전조사 -콜라주와 비디오(Street Wise in Ham - Collage and Video)

➤ 목적

본 조사는 11-16세 사이의 젊은 여성 그룹이 그들의 지역 환경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햄과 피터샘 청소년 클럽(Ham과 Petersham Youth Club)

➤ 조사 지역

런던의 Richmond구

➤ 기간

1997년 1월 4월 사이 13회의 저녁 세션

➤ 지원

이 조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비디오 지도교사와 클럽의 청소년 활동가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청소년 활동 개발 총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Ham과 Petersham Youth Club은 Richmond의 번두리의 주택단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다. 조사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지역 내의 젊은 여성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조사 첫 세션에 초대하면서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은 지역 여성들을 초대하여 「젊은 여성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클럽에 젊은 여성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안전문제와 건축 환경에 대한 그룹을 만들려고 열중해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위한 현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조사지역 조사(discussion and mapping)

조사 개요를 설명하는 세션에서 젊은 여성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은 지역의 개인 안전에 관한 그들의 고민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 그들은 큰 종이 시트에 대략적인 지도를 그렸고 거주그룹

및 중심 길들과 건물들을 표시했다. 그 다음 그들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고민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문제를 기록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사진 찍기와 비디오 제작을하기로 결정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그 다음 주, 그룹은 확대지도를 들고 그들의 루트를 계획하고 지역 주변을 걸어다녔다. 루트 안에는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왔던 거주지와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두웠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전등을 들고 그들의 지도에 쓰레기, 어두운 골목길들, 그라피티, 열악하고 부서진 거리 조명, 위험한 횡단보도, 조악한 안내표지판, 손상된 전화 부스, 개 배설물과 위험하거나 망가진 인도를 표현하는 각각의 다른 심볼들을 표시했다. 또한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다음 세션에서 그룹은 그들의 지도에 사진을 추가하고 그것들을 콜라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콜라주에 더 많은 그림과 사진을 계속해서 추가했다.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그룹은 비디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했다. 전문적인 비디오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영화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으로 스토리보드를 디자인하고 촬영하려 나가게 되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들의 작품은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가 열리던 저녁에 발표되었다. 그들의 비디오는 다른 청소년 클럽들의 젊은 여성들에게 시연되었고 포스트카드가 그들의 콜라주로 만들어졌다.

또한 그들은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의 예술 전시회에 참가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은 함께 단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들은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고 독해능력과 지도 읽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6. 도심 속의 젊은 여성들 (Young Women's Inner City - Safety Video)

➤ 목적

본 조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 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Golbourne Youth Centre에 기반을 둔 13-16세 사이의 젊은 여성 그룹

➤ 조사 지역

런던의 Kensington & Chelsea 구에 있는 Westbourne Park

➤ 기간

1997년 1월과 4월 사이에 열린 10번의 2시간의 저녁 세션

➤ 지원

이 조사는 London Union of Youth Clubs의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부가지원은 비디오 전문 지도교사와 Women's Design Service에게서 받았다. 재정은 National Youth Agency의 청소년 활동 개발 충당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 배경

위 여성들은 Golbourne 청소년 센터에서 안정된 모임을 갖는 젊은 여성그룹의 멤버들이다. 센터는 Westbourne Park/ Landbroke Grove 지역의 저층 주택 단지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개조한 곳에 위치해 있다. 개인 안전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독특한 관심사였다.

➤ 조사 활동(Audit Activities)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센터 주변의 위험요소들 : 조악한 조명, 어두운 골목길, 영망으로 유지되고 있는 단지와 더러움,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임.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인접한 지역들 주변을 걸으면서 지도 그리기에 착수했다. 심사는 청소년센터와 지역주택단지 중 하나이자 더럽고 위험한 곳으로 여겨진 Brunswick Park의 뒤쪽의 철도 인도교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대부분의 여성들은 청소년 센터에 오기위해서는 철도 인도교를 건넌다. 이 다리는 조명이

열악하며, 쓰레기와 그래피티로 오염되어있다. 청소년 센터의 접근, Brunswick Park 주택단지
에 있는 보도 발코니와 계단 의 조명 역시 조악하였다. 걷는 동안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촬영했으며, 드라마와 그룹인터뷰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녹화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들은 그들의 조사 작업을 Young Women into Safe Surroundings 프로젝트가 열린 지
역에 발표했으며, 그들의 비디오는 다른 청소년 클럽들의 젊은 여성들에게 시연되었다. 또한
그들은 1997년의 세계여성의 날의 런던 박물관에서 열린 Young Women Telling It Like It Is
의 예술 전시회에 참가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것을 즐겼으며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 비디오를 편집하고 적절한 음악과 크레디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
할 수 있었다. 결과는 직접적이면서도 몽롱한 분위기의 20분여 영화였다. 영화는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성장하는데 알맞고도 안전한 단지를 제공해주는 보살핌의 결여에 대한 좌
절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영화가 이 지역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지역 환경을 바꾸는
미래의 변화와 관련한 토론에 더 많이 포함되길 원한다.

7. 소머즈 타운의 미래 : 스토리보드와 비디오 (Somers Town's Future - Storyboard and Video)

➤ 목적

본 조사는 그들의 집과 학교가 있는 남부 Camden 지역에 위치한 Somers 타운의 많은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청소년과 커뮤니티 그룹

Somers Town's Future는 방글라데시의 13-21세의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이 그룹은 이 지역의 보다 큰 젊은 여성 그룹의 일부로 미팅을 갖고 있다.

➤ 조사 지역

런던의 북서쪽의 Chalton Street에 인접한 Somers 타운 지역에 집중되었다.

➤ 기간

1997년 1월 7월 사이 주마다 정기적인 세션과 그리고 이후 비정기적인 세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 지원

조사는 1996년에서 1997년 Camden Youth Office와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의 일부로서 Women's Design Service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되었고 재정지원을 받았다. NHSA는 WDS에 의해 3년간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심사 기간 동안 두 명의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채용되어 WDS의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 및 Camden의 청소년 담당자와 함께 일했으며, 청소년 활동과 커뮤니티 안전에 관해 연수를 받았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비디오 청소년활동가 역시 이 세션에 고용되었다.

➤ 배경

Somers 타운은 런던 시내의 중심이며 Single Regeneration Bid(SRB)의 펀드를 받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거리에서 걷는 것, 특히 밤에 걷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과 그들의 부모의 관심은 젊은 여성들이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에 있다.

NHSA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Camden Youth Office는 6개월간 본 단체의 파일럿 클럽을 지

원하기로 했으며 그 기간 동안 심사 작업은 다른 전통적인 청소년 클럽의 활동들에 더하여 진행되었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젊은 여성들은 지역 주민 홈에서 매주 주기적으로 만났다. 이들은 지역 안전 전반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서로의 토론 내용과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했다. 이들은 척도로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척도조사 모델은 지역의 안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그룹은 Somers 타운의 Chalton Street 주변의 지역의 인종차별적인 낙서들, 파괴 행위, 넘치는 쓰레기와 잡동사니, 열악한 놀이 시설들과 낙후한 주택 상태들을 사진으로 찍어 조사하였다. 이 조사과정은 똑같은 주제로 비디오로도 만들어졌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결과 Somers 타운은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가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주택단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룹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기준 이하의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스토리보드 전시물과 Real Lives 비디오는 1997년 7월 지역주민, 커뮤니티 단체, 도시계획, 주택 지역사회안전부가 참여한 NHSA(지역사회 보건안전 조사)의 금년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되었다. 1997년 11월에는 그들의 작품을 Camden 청소년 위원회에 선보였고 스토리보드는 지역현장을 투어전시하기 시작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본 조사를 통해 이들은 Somers 타운의 젊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와 사진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진 조사 작업은 학교 수업의 일부(portfolios)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조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얻었거나 지역사회 사안들에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조사 참여자들 중 자격증을 따거나 청소년 포럼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조사에서 제시된 제안사항들은 NHSA 보고서에 포함되었고 이듬해 소머스 타운 개발 실천전략들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8. 방글라데시 여성의 쇼핑 조사 (Bangladeshi Women's Shopping Audit Group)

➤ 목적

본 조사는 지역 쇼핑 시설들의 부족과 관련한 것으로 특히 소머즈 타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지역에서 팔고 있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본 조사를 위해 25세 이상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조사단으로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조사 지역

런던의 북서쪽의 Camden구의 Somers 타운

➤ 기간

1997년 2월과 4월 사이 세션 5회

➤ 지원

본 조사는 1996년에서 1997년 지역사회보건안전조사(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 NHSA)의 일부로서 Women's Design Service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 의해 조직되었다. NHSA는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에 의해 3년간 프로젝트의 펀드를 받고 있다. 심사는 지역주민 홀에 기반을 두었다. sylheti를 말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가에 의해 통역이 제공되었으며 전사회 설명은 프리랜서 통역가에 의해 번역되었다.

➤ 배경

1996년 Camden의 방글라데시 거주자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4세 사이의 21%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45세 이상 여성에서는 83%가 자신이 장기간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조사들은 Somers 타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서 고도의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에 고통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모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인종차별 폭력의 역사가 있다. Somers 타운의 쇼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성들이 필요한 만큼 자주 외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이들 여성의 음식섭취와 운동, 웰빙, 사회적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조사단 여성들은 지역주민 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처음 만났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스케일 모델이 사용되었고 통역이 제공되었다. 여성들은 이 지역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상점이 적고 파는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Chalton Street의 금요시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장이 몇 시간 밖에 열리지 않으며 주로 옷과 가사용품을 파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여성들은 적절한 가격에 신선한 음식을 사기 위해 너무 비싼 버스요금을 내고 Camden 타운까지 가야만 한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 여성들은 Chalton Street와 다른 지역 점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여성들은 초창기 토론할 때 문제제기 하였던 지역을 사진 촬영했다. 또한 Chalton Street의 시장이 열리는 날과 열리지 않는 날을 방문하여 활동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지역의 판자로 둘러싼 많은 점포들을 촬영했고 Drummond Street의 거리 외관과 대조해보았다. Drummond Street는 좀 더 북적거리는 방글라데시 쇼핑 지역이다. 15분이 걸리며 대중교통으로 가는 가기가 힘들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들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좀 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점포들을 추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은 쇼핑 시설의 부족이 지역주민의 경제발전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은 상점과 비즈니스를 하려는 지역주민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와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또한 점포의 부족이 이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좀 더 오래 개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상점 앞이 보다 매력적으로 변모하며 지역 내 자연스러운 파수꾼을 늘릴 수 있도록 오픈하기를 고대했다. '쇼핑 조사'는 1997년 7월 NHSA(지역사회 보건안전조사)의 착공식에서 전시되었으며 이러한 안들은 지역 재생 팀의 멤버들에게 소개되었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본 조사는 지역 쇼핑 시설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새로운 과일 및 야채 가게가 생기고 지역 슈퍼마켓의 확장과 개선이 있었다. 음식생활협동조합, 오가닉 카페와 local food-growing project(the Green Pepper project)같은 아이디어들이 NHSA의 마지막 해에 추진되고 있다.

9. 소말리 여성의 놀이 여가 시설 조사(Somali Women's Play and Leisure Facilities Audit)

➤ 목적

본 조사는 북 Camden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놀이 및 여가 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소말리 여성들이 체육 레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레저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The Somali Women's Neighbourhood Health and Safety Group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소말리 여성그룹Somali Women's Group 으로부터 구성되었다. 모든 여성들은 런던의 북 Camden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 조사 지역

북 Camden 운동장과 Swiss Cottage 도서관 그리고 레저 센터

➤ 기간

1997년 11월과 12월 사이 2시간 짜리 아침 세션 6회

➤ 지원

본 조사는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Community Safety Officer와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 1996/1999)와 소말리어를 할 수 있는 조교가 참여하였다. 본 심사 세션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가 주관하였으며, Somali Women's Group과 Somali Women's Refugee Centre의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

➤ 배경

소말리 여성은 런던의 새로이 정착된 소수인종 커뮤니티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Camden구에서 그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들은 내전으로 소말리의 집과 일터를 버리고 피난 온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점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피난민들에게는 거대한 도시환경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Camden 의회의 이주민 정책은 구에 새로이 정착한 정착민들을 전 구로 골고루 분산시켜 기존 커뮤니티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많은 소말리 여성들을 고립시켜 이들을 사회화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소말리 여성이 거주하

는 열악한 임시 주거 시설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커뮤니티, 건강, 사회와 레저 시설에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차이는 이들이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낳고 있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토론은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가 조사 과정을 설명했고 여성들은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특히 지역 내에서 레저 서비스 제공 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말했다. 조사단은 놀이터 3곳과 NW6와 NW8 지역의 오픈 스페이스, 또한 Swiss Cottage 도서관과 레저 센터를 조사 대상으로 선택했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안전 체크항목을 각각 만들었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방문한 놀이터의 모든 관련 사항들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테이프 녹음기로 그들이 찾아낸 것들을 담았다.

Swiss Cottage 도서관에서는, 조사단은 사서 한명을 만나 도서관을 둘러보고 그들 관심사에 대해 토론했으며,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사진 촬영하였다. 레저 센터에서는 스태프가 없어 리셉션 지역만 둘러볼 수 있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단은 다양한 연령 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춘 안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소말리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2개 국어의 도서와 오디오 테이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소말리어로 된 정보 전단지과 표시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레저센터에서는 조사단은 그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했다. 그곳에는 소말리에 관한 정보가 없었으며 그들은 소말리 여성이 스포츠 활동을 하려면 여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센터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 이후 조사단은 Swiss Cottage 도서관과 레저 센터에 제안 사항을 편지로 보냈다. 도서관은 결과적으로 소말리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 펀드를 할당했다. 소말리 여성 심사의 대표들은 역시 그러한 제안을 수행하는 실행 그룹의 일부가 되었다. 조사 결과 전시회는 1998/1999년 Camden에서 열리는 4개의 공공건물에서 열렸으며 부서와 기관에서 선정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10. 소말리 여성의 주거 시설과 보건센터 조사(Somali Women's Housing and Health Centre Audit)

➤ 목적

본 조사는 북 Camden에 거주하는 소말리 여성들이 주택과 건강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혹은 언어적 장벽이 있는지 규명하고 기관에서 이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청소년/커뮤니티 그룹

The Somali Women's Neighbourhood Health and Safety Group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소말리 여성그룹Somali Women's Group 으로부터 구성되었다.

➤ 조사 지역

조사단은 Belzw Priory 보건소와 아동클리닉과 NW6의 Solent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또한 Camden구에 있는 새집re-housing 거주를 위한 지원서의 디자인과 작성양식을 살펴보고 지역 당국 건물의 하자보수 상태를 점검하였다.

➤ 기간

1998년 2월과 3월 사이 오전 세션 6회

➤ 지원

본 조사는 커뮤니티 안전 담당자(Community Safety Officer)와 지역사회보건안전조사단 Neighbourhood Health & Safety Audit(NHSA 1996/1999)와 소말리아어를 하는 조교가 함께 수행하였다. NHSA는 Women's Design Service가 이끌고 있으며 Camden의 공동 자문위원회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본 조사 세션은 West Hampstead Women's Centre가 주관하였으며, Somali Women's Group과 Somali Women's Refugee Centre의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

➤ 배경

Camden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소말리 여성은 지난 5년 동안 영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부모이다. 그들이 거주할 적절한 주택을 찾고 그들 자신 및 가족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이 재정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이유들로, 소말리 여성들이 영국에서의 사회 주택social housing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 도착한 이들은, NHS로부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반면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정보들은 그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 조사 활동

○ 토론과 지도 그리기(discussion and mapping)

조사단은 소말리 여성들이 주거시설과 보건소 이용에서 얼마나 언어 문제, 통역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와 병원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 후에 조사단은 Camden 의회에서 만든 주거시설 입주 신청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 중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는 집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 관찰과 기록(observation and recording)

조사단은 보건소 매니저와 보건소 방문단 리더와 접촉하여 보건소와 2개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 전에 체크리스트와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고 조사 중에 관련 사안들은 사진으로 찍었다. 이후 조사에서 조사단은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는 여성의 집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진을 찍었다.

○ 분석과 발표(analysis and presentation)

조사결과 이 시설들에는 통역이나 번역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원 시스템이 없어 소말리 여성들이 보건소나 주거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소에서는 시설의 위치와 표지판에 문제가 있었다. 안내소에는 소말리어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며 대기실에서도 어떠한 놀이 시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태프와의 토론에 있어서도 소말리와 문화 차이를 느꼈으며 소말리 방식의 아이 양육과 가족계획이 언제나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스태프는 이러한 주제에 관해 심화된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새집 거주를 위한 지원 양식에는 소말리 여성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성과 표현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지원자가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소말리어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어떠한 언어 보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지도 않았다. 일부 개인 정보가 요구되었는데, '생년월일'과 '성'과 같은 사항들은 다양한 문화적 번역을 통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공공 주택의 사소한 보수와 유지에 있어 도움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 소말리 여성들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언어소통의 문제와 보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치료받지 못하였다.

○ 실행과 결과(implementation and outcome)

조사 결과는 Camden의 주택부와 건강 당국에 소개하였다. 제안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새집 거주를 위한 지원 양식의 표현을 바꾸기, 소말리 지원자가 겪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그리고 소말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중 일부를 훈련시켜 주택 부서에서 소말리 여성 지원자로 일하게 하기.

소말리어로 말할 수 있는 DIY 과정 역시 여성에게 그들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향상시켰고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전 문 가 조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女幸)팀에서는 여행(女幸)프로젝트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역 여성정책으로 도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요소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여행 프로젝트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5개 핵심 정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일상 전반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여행 프로젝트 수행으로 서울 여성의 전반적 삶을 행복하게 하고자 전문가 여러분의 여행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여행 프로젝트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12월 12일(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서면자문확인서는 서명하시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 본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연구책임자	조영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팀장)
공동연구자	백경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 락 처	e-mail : happyw_08@yahoo.co.kr Tel : 810-5011,5019 Fax : 810-500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시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 지역정책
 ②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여성 정책
 ③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일상생활을 다루는 여성 정책
 ④ 시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의 모범 모델
 ⑤ 기타()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여행 프로젝트 중 잘 되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① 돌보는 서울 ② 일있는 서울 ③ 넉넉한 서울 ④ 안전한 서울
 ⑤ 편리한 서울 ⑥ 없다 ⑦ 잘 모르겠다

3.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 중 앞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돌보는 서울 ② 일있는 서울 ③ 넉넉한 서울 ④ 안전한 서울
 ⑤ 편리한 서울 ⑥ 없다 ⑦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하면 어떤 사업이 떠오르십니까?()
 ① 서울형 어린이집 ② 여성 일자리 창출
 ③ 문화시설에 수유실 및 놀이방 설치 ④ 안심 콜택시
 ⑤ 여성 화장실 변기수 증설 ⑥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럭
 ⑦ 기타() ⑧ 없다

5. 귀하는 여행 프로젝트의 다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	기존의 시정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3	여성정책 부서에서 사업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4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5	여행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다					

다음은 여성과 도시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아래에 제시한 영역이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

6-1 공공시설

- ___ 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 ___ ② 수유실, 육아휴게실(엄마와 아동이 설 수 있는 공간), 아동놀이방 등의 설치 및 운영
- ___ ③ 유모차, 휠체어, 아동동반 여성의 통행이 편리한 입구 및 공간 구성
- ___ ④ 여성, 아동, 노약자 등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___ ⑤ 기타()

6-2 공원

- ___ ① 접근과 통행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Barrier-free) 조성
- ___ ② 가로수 개수 증대 및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 ___ ③ 수유실, 가족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
- ___ ④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___ ⑤ 기타()

6-3 주차장

- ___ ① 진입과 통행이 용이한 환경에 위치
- ___ ② CCTV 설치 및 사방이 감시 가능한 설제로 안전성 확보
- ___ ③ 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의 통행 공간 확보
- ___ ④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 ___ ⑤ 주차장 내 위치 판단이 용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___ ⑥ 기타()

6-4 화장실

- ___ 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비상벨, CCTV 설치)
- ___ ②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한 실시간 관리 체계 마련
- ___ ③ 아동, 노인 등의 이용이 용이한 접근성 확보
- ___ ④ 여성화장실 변기 수 증대로 화장실 혼잡 방지
- ___ ⑤ 외부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배치
- ___ ⑥ 유아용 세면대 및 변기, 기저귀 갈이대 등의 유아편의시설 설치
- ___ ⑦ 기타()

보행

7-1 인도 및 보도

- ___ ① 보도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Barrier-Free) 공간 구성
- ___ ② 동반아동,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넓이의 확보
- ___ ③ 보행에 편리성을 보장하는 블록 및 바닥재 사용
- ___ ④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나 사방감시가 가능한 거울 설치(여성의 불안감 해소)
- ___ ⑤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
- ___ ⑥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판 등의 선적물 관리
- ___ ⑦ 기타()

7-2 지하보도

- ___ ①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
- ___ ②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___ ③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로프트 등의 지원 장치 및 바닥재 고려
- ___ ④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한 쾌적성 확보
- ___ ⑤ 기타()

7-3 횡단보도

- ___ ① 여성, 노인 및 아동의 보폭을 고려한 신호등(Green light) 횡단 시간 조정
- ___ ②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난간 높이의 최소화
- ___ ③ 횡단보도 사이에 임시쉼터 설치로 안전성 확보
- ___ ④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바닥 구성
- ___ ⑤ 기타()

교통

8-1 지하철

- ___ ① 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운행 시간 조정 또는 연계 교통수단 확보
- ___ ② 여성, 노인의 승차가 편리한 동선 및 설계
- ___ ③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방감시가 가능한 체계 구성
- ___ ④ 지하철역사내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활성화
- ___ ⑤ 기타()

8-2 버스

- ___ ① 학교, 쇼핑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를 연결하는 단거리 버스의 증편
- ___ ② 버스정류장의 야간 조도 확보로 야간 안전성 모색
- ___ ③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기사 교육 실시
- ___ ④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여성들을 고려한 유니버설 버스 디자인
- ___ ⑤ 기타()

8-3 택시

- ___ ① 여성전용콜택시(여성운전자 배치), 안심귀가서비스(탑승 택시 및 도착지에 대한 문자 서비스)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 이용자의 야간 안전성 확보
- ___ ② 야간운행시 실내조명등 켜기 등으로 여성 이용자 불안감 해소
- ___ ③ 택시 승강장의 접근용이성 및 야간시 조명 조도 확보
- ___ ④ 택시 내 금연 환경 확보 등 쾌적성 모색
- ___ ⑤ 기타()

주거

9-1 주민자치센터

- ___ 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 ___ ②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 구성
- ___ ③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공간 제공
- ___ ④ 지역공동체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공간 마련
- ___ ⑤ 기타()

9-2 주거환경

- ___ ①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공간(문화체육 시설, 공부방, 직거래장터 등)구성
- ___ ② CCTV 등의 설치를 통한 여성의 안전 보장
- ___ ③ 근거리에 방과후 학교, 휴일 학교 등의 대체 교육 기관 운영
- ___ ④ 공동 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체제 구성
- ___ ⑤ 기타()

9-3 놀이터

- ___ ① 아동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설계
- ___ ② 차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
- ___ ③ 아동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놀이 공간 제공
- ___ ④ 자연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 ___ ⑤ 기타()

건강 및 식품안전

10-1. 정신건강

- ___ ① 지역 보건소 내 여성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
- ___ ② 여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지원
- ___ ③ 지역 아동 및 여성 대상 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역 내 대학 심리상담소 연계)
- ___ ④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지원
- ___ ⑤ 기타()

10-2. 식품안전

- ___ ① 먹거리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___ ②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상시 관리체계 유지
- ___ ③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 감시 필요
- ___ ④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등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 ___ ⑤ 기타()

서울시는 전문가 그룹의 협력을 통한 여행 프로젝트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여행 동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귀하께서는 ‘여행동반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서울시는 여성의 관점을 도시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분과의 19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행 동반자 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행동반자는 도시 정책 설계단계부터 정책시행과정까지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여 각 시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여행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여성정책 수립에 전문가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_ ② 중요하지 않다 ___ ③ 보통 ___ ④ 약간 중요하다
- ___ ⑤ 매우 중요하다

13. 여행 동반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규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영역당 50명 정도인 대규모 전문가 집단
- ___ ② 영역당 20-30명 정도인 중규모 전문가 집단
- ___ ③ 영역당 5~10명 내외의 소규모 전문가 집단
- ___ ④ 대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병행 운영
- ___ ⑤ 기타()

14. 여행동반자의 운영개선방안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					
2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담당 영역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4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설문(온라인 자문 포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5	젊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6	여성 관련 학술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기타						

15. 동반자그룹의 여행 프로젝트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평가를 담당
 ② 서울시의 각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참여
 ③ 웹 사이트나 온라인 자문 등을 통한 사안별 의견 제시
 ④ 여행 프로젝트에 관련한 신문 기고 등 여론조성 및 홍보 활동
 ⑤ 기타()

서울시는 일반 여성들이 생활에서 여행 프로젝트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여성으로 구성된 '여행프로슈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있어서 일반 여성의 참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7. 2008년도에는 여행 프로슈머단은 지하철 화장실, 공영 주차장, 지하보차도, 안심 콜택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슈머단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시설 ② 공원 ③ 주차장
 ④ 통행권(인도, 지하보도, 횡단보도) 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⑥ 주거환경 ⑦ 기타()

18. 귀하는 프로슈머단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정책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
- ②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 ③ 여성친화적 사업 개발 필요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
- ④ 일반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
- ⑤ 기타()

19. 프로슈머의 활동 단위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서울시 단위 ② 구 단위 ③ 동 단위 ④ 기타()

20. 서울시는 2008년 지역사회에서 여성 전문가와 일반여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자치구 여행포럼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약 800여명의 여행 포럼단이 조성되었는데 포럼단 역할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구 단위 여성정책결정 자문의 역할					
2	여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구 단위의 조사 및 지원 역할					
3	자치구내의 여성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					
4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여행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여행 프로젝트가 서울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중매체를 통한 프로젝트 소개 및 홍보
- ②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 (공모 사업 등)
- ③ 공공시설, 시 주최 주요 행사 부스에 책자 비치 등을 통한 홍보
- ④ 여성의 날 등에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 ⑤ 기타()

22. 여행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의 전문 분야에 관련하여 여행 프로젝트에 제안할 사항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____① 남 _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는 어느 분야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____① 학계 및 연구자 ____② 시민단체 ____③ 공무원 ____④ 협회 및 기관 종사자
____⑤ 기타()

4. 귀하의 전문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① 정치 ____② 경제 ____③ 사회·문화 ____④ 교육
____⑤ 여성 ____⑥ 행정·법 ____⑦ 복지 ____⑧ 가족
____⑨ 노동 ____⑩도시·교통·건축 ____⑪환경 ____⑫의료 ____⑬기타()

긴 시간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여행 프로젝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정책개발-018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조영미, 김창연, 백경재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